

2013년도 제17차 정기(제18차) 총회

2013년도
제17차 정기 총회 자료집
(제 18차 총회)

일 시 : 2013년 1월 24일(목) 19:00~20:30

장 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13년도 제17차 정기(제18차) 총회

2013년도

제17차 정기 총회 자료집

(제 18차 총회)

일 시 : 2013년 1월 24일(목) 19:00~20:30

장 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차 례

■ 정기총회 순서	2
■ 제16차 정기(제17차)총회 회의록	5
■ 임시안건	8
■ 2012 감사 보고	9
■ 2012 사업보고 및 평가	15
I. 총괄평가	17
II. 사업보고 및 평가	23
1. 조직 사업	23
2. 평화-통일 사업	32
3. 정보-홍보 사업	52
4. 회원 사업	55
5. 재정 사업	57
6. 부설기구 사업	59
7. 연대 및 협력사업	75
■ 2012년 결산보고	89
■ 임원 인선안	93
■ 2013 사업계획안	97
I. 2013년 사업기조 및 방향(안)	99
II. 2013년 사업계획(안)	101
1. 조직 사업	101
2. 평화-통일 사업	103
3. 정보-홍보 사업	104
4. 회원 사업	104
5. 재정 사업	104
6. 부설기구 사업	104
7. 연대 및 협력사업	106
■ 2013년 예산안	109
■ 부록	115
평화여성회 정간	117
평화여성회 조직 현황	124
2012 성명서 목록	126
2012 성명서	127
회원가입서	188
	194

정기총회 순서

I 부 회원등록 및 식사 나눔, 인사나누기 (오후 6:00 ~ 오후 7:00)

II부 본회의 (오후 7:00 ~ 오후 8:30)

1. 개회선언
2. 대표인사
3. 서기임명
4. 성수보고
5. 회순채택
6. 전차회의록 낭독
7. 임시 사업감사 선임 인준의 건
8. 2012년 감사보고
9. 2012년 사업보고와 승인
10. 2012년 결산보고와 승인
11. 임위원출
12. 2013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13. 2013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14. 기타토의
15. 각종 상 수여
16. 회의록 발송
17. 폐회

전 회의록 낭독

제16차 정기(제17차)총회 회의록

□ 서가: 김선혜, 김영진

1. 일시: 2012년 2월 2일(목) 오후 6시 30분~ 9시 20분

2.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3. 주요내용

참석자가 돌아가며 덕담을 나누다.

1) 개회선언: 여혜숙 의장이 오후 7시 개회 선언을 하고, 정기총회를 시작하다.

2) 김금옥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격려인사를 하다.

3) 서기임명: 여혜숙 의장이 김선혜, 김영진 회원을 총회 공동서기로 임명하다.

4) 성수보고: 김지호 회원이 재적회원 70명중 위임 28명, 참석 17명, 총 44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여혜숙 의장이 정관에 의거 성회되었음을 선언하다.

5) 회순채택: 여혜숙 의장이 자료집의 회순을 낭독하고 조영희 회원이 인대보 받을 것을 동의하고 김성은 회원이 제청하여 회순을 채택하다.

6) 전차회의록 낭독: 2011년 회의록을 김선혜 회원이 낭독하다.

7) 감사보고: 2011년 사업감사 보고서와 2011년 회계 감사보고서를 김정수 대표가 대독하다.

8) 안건논의:

안건1. 2011년 사업보고와 승인에 관한 건: 총회 자료집 13쪽에서 70쪽 그리고 31쪽 유연 안보리 김의 1325호 관련 활동 관련하여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주최 유연여성지위위원회 워크숍관련 내용의 추가 별지를 토대로 정정안 정복위원장님이 보고하다. 총회 자료집 35쪽에서 52쪽을 기초로 갈등해결센터 사업에 대해 박수선 소장이 보고하다. 자료집 31쪽 3)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 조전 발송일을 1월 22일을 12월 22일로 수정, 33쪽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주제 '책 없는 세계와 동북아 여성의 삶'을 포함시킬 것을 김정수대표가 제안하여 수정하기로 하다.

최안진경 회원이 동의하고 김정아 제청한 후 모두 박수로 승인하다.

안건2. 2011년 결산보고 및 승인에 관한 건: 총회자료집 87쪽과 회계별지자료를 기초로 김지호 총무가 보고하다. 안대로 받을 것을 박종호 회원이 동의하고 김성은 회원이 제청하여 모두가 승인하다.

안건3. 조직개편안 승인의 건: 갈등해결센터를 평화여성회 부설기구로 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총회자료집 71쪽의 논의배경과 경과를 여혜숙 의장이 보고하다. 김성은, 박종호 회원이 부설기구의 필요성, 변화되는 것 등에 대해 질문하고 조영희 회원, 박수선 회원이 설명하다. 조직개편안에 대해 박종호 회원이 동의하고 최안전경 회원이 제청하다. 참석자 17명 모두 거수로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안건4. 임원선출: 박수선 인선위원장이 총회자료집 90-91쪽을 갈등해결센터 소장, 사업감사, 이사 인선안이 논의되었음을 보고하다. 갈등해결센터 소장으로 김선혜, 연임이사 김성은, 김지영, 박유희, 전은주, 정경심, 한정숙, 신임 이사 최순옥, 사업감사 전선미 되었음을 보고하다. 일괄 상정하기로 최안전경 회원이 동의하고 박종호 회원의 제청하다. 소장과 이사, 감사를 별도 처리하기로 박수선 동의, 조영희 제청하여 수정 동의안 제출하다. 17명 가운데 10명이 일괄 처리하기로 찬성하다. 임원선출안을 박수로 승인하다.

- 갈등해결센터 소장 이·취임식 -

안건5. 2012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에 관한 건: 총회자료집 75쪽에서 84쪽까지의 사업계획안을 정경란 정책위원장, 김선혜 갈등해결센터 소장이 보고하다. 박유희 이사, 김성은 이사장이 연대 사업 부문에 '학교폭력대책'이나 '장애인지역'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기하거나 범위를 제한하지 말 것을 제안하고, 박종호 회원이 평명지역 및 기타 지역, 학교폭력대책 등을 위한 평화교육단체 연대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다. 이상의 제안을 반영해 갈등해결센터가 사업할 것을 여혜숙 의장이 수정 제안 하다. 78쪽 3번 방법에 평화영화감상 등을 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다. 김성은 이사장이 원폭피해자 모임이나 활동에서 일본이 원폭 피해자라는 점만이 아니라 일본이 침략전쟁의 발발자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 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받은 것을 조영희 이사가 동의하고 박종호 회원이 재청하고 모두 박수로 승인하다.

안건6 2012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에 관한 건: 총회자료집 88쪽에서 89쪽까지의 2012년 예산 계획안을 김지호 총무가 보고하다. 갈등해결센터 예산안 가운데 교무금은 264만원을 240만원으로 하고, 잠수임은 1만원에서 25만원을 수정해서 2012년 예산을 받기로 박종호 회원이 동의하고 김정아 회원이 재청하고 모두가 '예'하여 승인하다.

9) 모범회원상: 김정아, 박재신 회원에게 모범회원상을 수여하다.

10) 회의록 발송: 김선혜 서기가 회의록을 낭독하고 김성은 이사장이 인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박재신회원이 재청하여 모두 박수로 받기로 하다.

11) 폐회: 여혜숙 의장이 오후 9시 30분 폐회를 선언하다.

<임시안건>

임시 사업감사 선임 인준의 건

2012년 임시사업감사로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을
선임한 것을 총회에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논의배경과 경과>

- (1) 전신미 사업감사가 19대국회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되었기에 사퇴의 의사를 밝힘.
- (2) 2012년 3차이사회(2012. 12. 13.)에서 임시사업감사 선임에 관한 논의.
이사회 논의 근거: 정관 제27조 9항(이사회 의결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의거

2012년 감사보고

2012년 평화여성회 사업감사 보고

1. 2012년은 한국의 총선과 대선을 비롯하여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강대국들 역시 선거국면을 맞았고, 북한은 김정은 지도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한해로서, 동북아시아에서 정치적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진 격변기였습니다. 남북관계는 2012년 한해 역시 남북대화 단절, 대북 식량 지원 중단, 민간 사회문화교류 차단 등 대북강경정책기조가 지속됨으로써 회행관계에 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 상황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사업의 평가 및 보고 자료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 온 사무처와 공동체결센터, 정책위원회의 활동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2. 2012년 평화여성회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여성평화주의의 의제를 제안하고,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연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채택을 요구하며, 핵무기와 핵에너지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대안을 모색하고, 학교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식의 저변을 넓히고 갈등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회원의 참여와 소통의 활성화를 통해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여성평화통일운동을 지향하며, 조직체계를 현실 역량에 맞게 재편하여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인적·물적 토대의 부족으로 인하여 여러 사업들을 소기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일정 정도 성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화여성회는 총선을 준비하며 젠더 100대 정책에서 평화통일분야에서 여성의제를 제시하고 대선을 맞아 7대 여성평화대선의제를 제안하여 평화통일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여성인권 보호, 분쟁 예방을 촉구하였으며, 여성가족부가 준비하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 평화통일분야의 여성참여 활성화와 유연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간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유연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아태지역협의회와 무장

강동여성국제네트워크 센터코젤포인드 모임에 참석하여 한국정부의 132호 이행 현황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소개하였으며, 2012 동북여성평화회의의 준비과정에서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여성단체의 입장을 발표하고 행사 개최를 통해 핵에너지 문제를 여성평화운동의 의제로 수용하고 미국 및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하는 등 민간협력을 추진하였으며, 평화통일운동이, 평화리더십캠프, 세대공간 통일기행 등 체험과 놀이를 통한 평화통일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회원들과 함께 하여 평화통일 의식 함양에 기여한 점은 높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갈등해결센터는 한해 학교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지역사회의 갈등해결과 평화의 문화 확산을 위하여 또래조정 사업을 비롯하여 갈등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또래조정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활동기반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갈등해결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해 또래조정을 폭넓게 진행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지평을 넓혔습니다. 또한 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시도하고 피해-가해자 대화모임을 시행하는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다만 자체평가에서도 지적한대로 센터의 제한된 역량에 따라 지역사회의 갈등해결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화 정책에 대한 연구와 사례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5. 창립 15주년을 맞아 평화여성회의 여성평화운동을 점검하여 '평화여성회가 만든 15가지 평화' 리플렛을 만들고 후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평화여성회 소식지가 '올리브'라는 제목으로 발간되고, 영화모임과 웹드모임이 진행되었으며, 갈등해결센터가 부설기구회하고 정책위원회 활동이 강화되고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재개를 위한 모색되는 등 15주년을 맞아 조직적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화여성회가 추구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6. 2013년 차기년도는 여성대통령시대를 맞고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 계획 수립 논의의 완성화가 예상되므로 평화·통일·외교 분야에서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평화여성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 있다 하겠습
니다. 여성평화통일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 다양하고 활발한 역할 수행을
기대해봅니다.

2012년 1월 18일 (금)

감사 김희운 (서명)
김희운

2012년 1월 18일

2012년 평화여성회 회계감사 보고

감사 보고서

평화여성회(여성정치 권위)

2012년 평화여성회(여성정치 권위) 감사와 원 고과 (내전준남부(여성정치)), 특별회
중, 수입세출금의어다 영수증이 잘 구비되었고, 통장기도 일치함으로 이상
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주년과 감사의 지적사항을 잘 수용하여 손권교
를 만들지 않은 점, 회계적합성 문장을 확보해놓은 점 등 회계처리여 받
편이 있었음도 이윤과 보고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내용

평화여성회(여성정치) 정성미, 기남, 장부과 수지출입처서, 영수증, 통장,
부실 감당해결결과 정성미, 기남, 장부과 수지출입처서, 영수증, 통장

2013년 1월 17일

감사 원 국 영

감사 김 희 은 (서명)

김희은

2012년 사업보고 및 평가

I. 2012년 사업 총평

II. 2012년 사업 보고



2012년도 평화여성회가 창립된 지 15주년 기념 사업보고 및 평가

I. 총괄평가

2012년은 평화여성회가 창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였다. 또한 불안정한 한반도의 상황과 복합적 국제질서 속에서 총선과 대선을 통한 한반도 변화와 안정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해이기도 했다. 한국을 비롯하여 주변강대국들이 선거 국면을 맞이하였고,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의 변화가 있었다. 남북관계는 MB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유지되면서 인도적 지원과 민간 사회문화교류마저 차단되어 민간단체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공간이 축소되었다.

평화여성회는 2012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격동의 시기인 2012년을 평화여성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독자적으로나 연대를 통해서나 여성들의 평화형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여성·평화적 관점을 확산시키려는 본래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는 원칙적인 논의 위에 사업방향을 수립하였다.

사업방향1.

한반도 위기 대응 긴급 여성평화행동을 전개, 선거를 앞두고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성인지적 평화주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을 제기,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의 한국이행방안 채택을 위한 활동을 전개, 핵무기와 핵발전소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의제를 발굴, 이를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상의 핵 없는 세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하려고 한다.

1) 한반도 위기 대응 긴급 여성평화행동을 전개 : 북한 지도체제의 변화와 동북아의 경제 환경 등의 변화 속에서 감지되는 한반도 평화의 위기에 대응하는 긴급활동을 조직하여 실천하려는 사업목표를 계획하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군사비 감축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평화단체와 연대하여 토론회와 기자회견, 피로먼스 등에 참여하였으나 따로 여성평화행동을 조직하지 못하였다. 정세에 맞는 주제를 설정했으나 언론의 관심과 일반여성 등 대중적 공감대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 일회성의 행사를 통한 방식이 아닌 지속적으로 내용을 담보해 갈 수 있는

평화여성회의만의 주력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2) 선거를 앞두고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성인지적 평화주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을 제기: 4·11총선을 앞두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의 20대 핵심과제 중 '평화·통일·외교·안보 분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제시하였고 100가지 선더정책수입에 4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포함시켰다. 18대 대선을 준비하며 7대 여성평화통일 대선의제를 작성하고 7대 여성평화통일 대선의제 대화마당을 개최하여 이 논의를 토대로 의제를 각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하였다. 아권 대선후보들은 평화여성회의 정책제안을 수용하여 대선 후보 공약과 정책에 반영하였다. 정책위원회가 대선의제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한 점은 대선과 같은 중요한 선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역량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의 한국이행방안 채택을 위한 활동을 전개 : 본회는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의 이행을 위해 수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2012년 본회는 국내적으로 동북아여성평화회의와 '평화·통일·외교정책에서 여성 참여 확대 토론회'를 여성단체들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총선 선더의제와 7대 여성평화통일 대선의제를 발표해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1325호 국가행동계획 채택을 요구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준비하는 제4차 여성정책발전계획(2013년~2017년) 초안 검토 워크숍에 참석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국가행동계획 채택을 포함한 평화통일분야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여성가족부, 통일부, 국방부, 외교통상부에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화여성회 의견서를 통해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소과제에서 중과제로 위상을 높일 것과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민간추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다. 국제적으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주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워크숍(태국)과 무장갈등예방글로벌파트너십(GPPAC) 선더포럼포인트 오임(미국)에 참석해 한국정부의 1325호 이행 현황과 한국여성들의 요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 국회의 결의문 채택과 한국 정부의 정책변화에 기여했다. 먼저 국회는 2월27일 1325호 수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수립'을 소

1) 통일·평화 분야에식 제기된 4가지 과제: 1. 회원정치와 공론을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 추진 2. 한반도 미래와 밀접한 평화정책 수립 3. 한미동맹 진상 외교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확대 4. 평화·통일·외교 분야에서 여성참여 확대

과제로 채택하였다.

4) 핵무기와 핵발전소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의제를 발굴, 이를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입상의 핵 없는 세계 만들기 운동을 전개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주기와 2012 핵안보정상회의에 대응하며 여성평화운동의 의제를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반대로 확장하였다. 2012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여성의 입장문서 “여성은 핵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원합니다.”를 발표하고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주제를 “핵 없는 세계와 동북아시아 여성의 삶”을 주제로 설정해 국내외적으로 한국 여성과 동북아시아 여성의 핵없는 사회를 향한 요구를 밝혔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참가자들은 ‘6자회담 참가국과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 참가국에 드리는 제안서’를 통해 핵없는 세계를 위한 동북아여성들의 공동의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미국대사관과 러시아 대사관 방문해 전달하고 핵안보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국가들 대사관에도 전달하였다. 시안변연연대로 ‘핵 안보 정상회의의 대항행동’, ‘핵 없는 세계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여성모임에 함께 참여하였다. 제3회 평화군축박람회에서 ‘탈핵과 여성의 삶’이라는 대중강의는 평화여성회가 생활 속의 탈핵과 반원전 운동을 시작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한 동북아여성연대강화, 평화를 향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추구, 언론사와 공동개치를 통한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홍보, 회의에 많은 여성의 참가 등으로 평화여성회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사업방향 2: 전환기의 남북관계의 안정과 평화 남북여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교류를 주도하고 위기에 처한 북의 여성과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남북여성 사이의 신뢰를 쌓고 협력을 추구한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를 통해 남북여성의 만남을 시도하고, 8.15기념식을 맞이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북측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려했으나 통일부의 불허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어린이들이 모금을 하여 민회협에 전달하였으나, 민간단체의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중단되어 전달되지 못했다. 남북여성의 교류와 협력사업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평화여성회 역할에 적합한 중·장기적 사업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다.

사업방향 3: 회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발달하고 유쾌한 여성평화운동의 영역을 발굴하고 확대한다.

계획된 사업 중에 여성평화글쓰기 모임과 회원 한마당은 진행되지 못했고, 평화웹트모임은 38여성대회 개최 시점에 맞추어 '여성은 평화의 힘'이라는 걸재를 완성하고 파워치와 브로치 등을 만들었는데 참여자들이 소소한 재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회원의 자발적 발의로 시작된 영화모임은 세 차례 진행되었고 두 번째 부터는 사무실과 같은 지역에 있는 서로살림생협과 함께 공동주최하면서 대상도 확대된 측면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모임이 사무국 중심으로 준비되고 진행되어서 앞으로는 회원들이 보다 주체적이고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회원과의 소통을 높이고,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케이스북을 활성화하였고, 2011년 준비호를 내었던 소식지가 2012년에는 '올리브'란 새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체험과 놀이를 통한 '평화통일로 한 걸음 더 성큼!'이란 제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회원과 대중에게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 한반도지형모양의 웃음이 관을 디자인하여 울과 함께 울서트 1,000개를 신청 받아 학교, 종교단체, 지역단체, 개인에게 보급하여 놀이를 통해 통일에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고, 세대공감 통일기행을 통해서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기행하면서 평화통일의식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사업방향 4: 학교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식의 저변을 넓히며, 갈등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활동한다.

학교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식의 저변을 넓히고, 갈등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활동하였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한 「도래조정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활동기반 구축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전국 79개 학교 1,300여명의 도래조정자를 훈련하고, 지도교사 200여명을 교육하며 도래조정자 지도교사를 위한 교육용지도서 개발과 학생을 위한 활동교재를 개발하였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도래조정 의 저변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학부모 교육이 증대하였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부모교육이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회복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다루는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는 저조하였으나 강의

등을 통한 방식으로 소개하는 활동을 이루어졌다. 특히 학부모 교육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나 의사소통 외에도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학교폭력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 활동(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이 다른 분야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센터 활동역량이 집중되지 못한 점도 있으나 학교 현장의 적용이 여전히 어려운 것도 한계로 보여 진다.

사업방향 5: 지역사회와 갈등해결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과 정책에 대한 연구와 사례 개발

지역사회와 함께 한 갈등해결과 평화문화 확산은 안산YMCA가 주최한 평화교육, 대전평화여성회가 주최한 평화교육 강사 과정, 울산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위한 평화교육, 경실련 갈등해소센터와 공동 주최한 교육 등이 모두 또래조정자 훈련을 위한 강사양성과정으로 또래조정자 훈련을 통한 갈등해결과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서대문지역에서 진행한 회의진행자 훈련은 주민참여의 확대, 공동체 활성화가 요청되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지역사회 활동가들이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리더교육으로서 시의 적절했다.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은 갈등해결센터 회원들이 서울 가정법원을 비롯해 인천, 수원, 의정부지방법원의 화해관고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법기관에서 회복적 정의 활동을 확산하고 기쁨을 미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 활동의 조직적 수렴과 회복적 정의의 확산과 현장 적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개인 사이의 분쟁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갈등 분쟁에도 조정자로 참여함으로써 갈등해결센터의 갈등 분쟁조정이 영역이 확대된 의미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갈등해결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해 역량을 키우고, 기반 조성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사업방향 6: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여성평화운동을 점검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후원행사를 계획하였고, 이를 위해 15주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그간 15년의 평화여성회의 여성평화운동을 사업별로 정리하여 “평화여성회가 만든 15가지 평화” 리플렛을 제작하였다. 특별위원회에서

는 평화여성회의 비전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는 진행하지 못했고, 향후 과제로 남게 되었다.

2012년 한 해 평화여성회의 사업은 남·북관계가 회복되지 못하여서 사회문화교류뿐 아니라 인도적지원도 어려웠지만 탈핵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총·대선 국면을 맞아서 여성평화외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였고, 학교폭력에 대한 회복적 관점의 대안인 토론회조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조직내·외적으로 활발히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평화여성회 조직의 변화가 있었다. 몇 년간의 논의를 통해 갈등해결센터가 부설기구화 되었고,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활동 재개를 위한 모색이 이루어졌다. 사무국에 인원이 보충되면서 사업에 탄력과 활기가 불게 되었다. 새로운 정부로 시작되는 2013년 평화여성회는 회원과 함께 하는 여성평화운동단체로서 새로운 다짐으로 남겨진 과제를 실천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실무력이 더욱 충원되어야 할 가장 큰 과제를 안고 2013년을 시작하게 된다.

II. 사업 보고 및 평가

1. 조직 사업

1-1. 회의

1-1-1. 총회

- 1) 역할 :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세(병인)의 예산 및 경관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구성 : 본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사업내용

(1) 정기총회

- 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2일(목) 18:00~21:00,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참석 : 참석 17명, 위임 28명 (총 45명)
- 내용 : 2011년 사업보고, 결산보고, 갈등해결센터 부설기구 승인, 2012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센터소장 이·취임 등

(2) 2013년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 역할 : 정기총회 준비, 실차-운영 기간 중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대행
- 구성 : 김선혜(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김영진(부설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김지호(총무), 김정수(공동대표), 박윤희(이사), 여혜숙(상임대표), 정경관(정책위원장), 조영희(이사), 최안전경(운영위원)
- 내용
 - 1차 : 11/12(월) 11:00~14:00 운영위원 위임안건(11월, 12월 사업계획 점검, 2012년 송년의 밤 건), 준비위원회 서기와 운영규칙 정하기, 준비위원회 회차별 의제 확인 등
 - 2차 : 12/10(일) 11:00~14:00 12월 사업계획 점검, 2012년 사업평가, 2013 계획
 - 3차 : 1/7(월) 11:00~16:00 2012년 사업평가, 2013 계획

1-1-2. 이사회

1) 역할 :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 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심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말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구성 : 공동대표와 이사, 이사 중에 호선한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 이사장 : 김성온

○ 이사 : 김선혜, 김정수, 김지영, 박유희, 여혜숙, 윤수경, 이택호, 전은주, 정경심, 정현벽, 조영희, 한정숙, 최순옥

3) 사업내용

(1) 1차 정기 이사회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월 18일(수) 12:00-14:00, 신촌 동감참치

○ 참석 : 김성온(이사장), 강순원, 김정수, 김지영, 여혜숙, 정현벽, 조영희, 한정숙 (총8인)

○ 내용 : 2011년 사업보고, 결산보고, 2012년 사업계획, 예산결정, 이사 선임, 총회순서

(2) 2차 정기 이사회

○ 일시 및 장소 : 2012년 8월 17일(금) 12:00-14:00, 신촌 동감참치

○ 참석 : 김성온(이사장), 김선혜, 김정수, 김지영, 박유희, 이택호, 여혜숙, 한정숙, 최순옥 (총9인)

○ 내용 : 상반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무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활동 재계 의 건

(3) 3차 임시 이사회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2월 13일(목) 15:00-16:00, 기독교회관 1층 커피숍

○ 참석 : 김성온(이사장), 김선혜, 김정수, 박유희, 여혜숙, 윤수경, 정현벽 (총7인)

○ 내용 :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추경예산(안) 심의, 사업감사 변경건

1-1-3. 운영위원회

1) 역할 :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2) 구성 : 공동대표, 각 센터 및 위원회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부설기구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여혜숙(상임대표)

(2) 위원 : 김선혜(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김영진(부설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김정수(공동대표), 김지호(총무), 정경관(정책위원장), 최안진경(정책위원)

3) 사업내용

(1) 제1차 : 2/13(월) 11:00~14:00 2, 3월 사업계획 검토, 15주년 기념행사 준비 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운영방식 및 일정화정

(2) 제2차 : 3/5(월) 14:00~16:00 3, 4월 사업계획 검토, 3.8 여성대회 준비,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준비

(3) 제3차 : 4/9(월) 11:00~14:00 4, 5월 사업계획 검토, 15주년 기념행사 준비,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평가, 웹사이트 관련 홈페이지 정리 논의

(4) 제4차 : 5/14(월) 11:00~14:00 5,6월 사업계획 검토, 15주년 기념행사준비

(5) 제5차 : 6/11(월) 11:00~14:00 6월, 7월 사업계획 검토, 15주년 기념행사준비

(6) 제6차 : 7/9(월) 11:00~12:30 7월, 8월 사업계획 검토, 15주년기념 행사 평가

(7) 제7차 : 9/10(월) 11:00~13:40 상반기 평가, 9월~10월 사업계획 검토

(8) 제8차 : 10/15(월) 11:00~13:00 10월~11월 사업계획 검토, 총회납액, 총준위 구성과 일정 정하기, 소식지 일정 검토

(9) 11월, 12월은 총회준비위원회와 함께 진행

1-1-4 주간회의

1) 역할 :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

2) 구성 :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

(1) 위원 : 김지호(총무), 김정수(공동대표), 여혜숙(상임대표), 정경관(정책위원장, ~4/30), 최안진(활동가)

3) 내용 : 매주 월요일 오전 혹은 오후, 1/3, 1/25, 2/6, 2/20, 2/27, 3/19, 3/26, 4/2, 4/16, 4/23, 4/30, 5/8(화), 5/14, 6/2, 6/18, 6/22(금), 7/2, 7/16, 7/23, 8/13, 8/21, 8/28, 9/5, 9/17, 9/24, 10/10, 10/15, 10/22, 10/29, 11/5, 11/13, 11/19, 11/26, 12/17, 12/24, 12/31

1-1-5. 평가

1) 총회

평화여성회가 창립15주년을 맞이하여 갈등해결센터를 부설화하는 것에 대해 3년 논의를 거쳐 결실을 맺었다.

2) 운영위원회

정례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운영위원들의 참여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3) 주간회의

주간위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진행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게 공유가 이루어졌고, 조직의 일정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분담하였다.

1-2. 법인·행정

1-2-1. 감사

1) 역할 : 본 회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2) 구성

(1) 사업감사 : 전선미 의원

(2) 회계감사 : 한국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3) 내용

(1) 사업감사 : 2013년 1월 : 2012년 사업년도 사업 일체

(2) 회계감사 : 2013년 1월 18일 : 2012년 사업년도 재정 일체

4) 결과: 감사보고서 참조

1-2-2. 법인사무

1) 목표

(1) 본 회 법인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이행한다.

(2) 여성평화운동의 안정적 추진과 실천,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2) 내용

(1) 법인등기

○ 2012년 등기사항 변동 없음.

(2) 사무행정

○ 인사업무 : 2012년 2월 13일 김여희 부설 갈등해결센터 활동가 인사

2012년 2월 20일 최민정 활동가 입사

2012년 4월 30일 정경관 정책위원장, 김예희 활동가 퇴직

2012년 6월 11일 명희 부설 갈등해결센터 활동가 입사

- 4대 보험 : 2월 가입(김선혜, 최민정, 김예희), 6월 가입(명희)

4월 탈퇴(정경관, 김예희)

- 2012년 7월부터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부담분에 대하여 국가에서 차등 지원해줌 (월 100만원 미만-50%, 월120만원미만-30% 지원)

- CMS 관리 : 매월 10일, 25일 CMS 이체 > 3일후 통장 입금

구로 세일센터 인건비 지원

- 기간 : 2012년 6월 11일 - 2012년 12월 10일 (6개월간)

- 금액 : 월 50만원 X 6월

- 지원대상자 : 명희 활동가

(3) 2012년도 기부금 영수증 관련

- 2012년 12월 31일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제출 신청

- 2013년 1월 7일 기부금 자료 제출

- 201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go.kr)을 통해 기부자에게 정보 제공됨.

※ 국세청 홈택스에 기부내역을 알릴입력함에 따라 개인별로 기부금영수증을 우편발송하지 않아도 됨 (2011년말 기부금내역 발송시 회원에게 공지하였음.)

(4) 세무업무 (반기신고 대상)

- 2012년 1월 10일 : 2011년 7월-12월분 원천세(기타 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012년 7월 10일 : 2012년 1월-6월분 원천세(기타 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013년 1월 10일 : 2012년 7월-12월분 원천세(기타 소득세) 신고(예정) 및 납부

- 2012년 1월 25일 : 2011년 7월-12월분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내역 신고

- 2012년 7월 25일 : 2012년 1월-6월분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내역 신고

- 2013년 1월 25일 : 2012년 7월-12월분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내역 신고

(5) 회계

- 송납 및 기금관리, 결산보고 등

1.3. 위원회

1.3.1. 정책위원회

1) 구성 및 운영

(1) 위원장 : 정경란

(2) 위원 : 김정수, 박현선, 안정애, 이혜숙, 조영희, 최민정, 최안진경

2) 사업목표

- (1) 여성·평화주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 논의
- (2) 평화·통일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 실현 방안 모색
- (3) UN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
- (4) 동북아여성평화회의 개최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한 동북아 여성 연대 강화

3) 회의

- (1) 제1차 : 6/13(수) 15:00~16:30 정책위원회 활동 방향과 차기 일정과 과제 결정
- (2) 제2차 : 7/18(수) 16:00~18:00 18대 대통령선거에 바라는 10대 여성평화통일 의제 선정
- (3) 제3차 : 8/22(수) 16:00~18:00 대선 대응 활동 및 일정논의, 10대 여성평화통일 대선 의제 검토
- (4) 제4차 : 9/12(수) 14:00~16:00 18대 대통령선거에 바라는 7대 여성평화통일 의제 검토, 여성평화통일 대선 의제 발표 계획안 검토
- (5) 제5차 : 10/05(금) 15:00~17:00 7대 여성평화통일 의제 검토, 여성평화통일 대선 의제 발표 계획안 구체화, 1325호 네트워크 기획안 검토
- (6) 제6차 : 11/12(월) 15:00~16:30 7대 여성평화·통일대선의제 대화마당 보고, 1325호 네트워크 논의
- (7) 제7차 : 12/17(월) 14:00~17:00 1325호 네트워크 논의, 정책위원회 2012년 사업평가, 2013년 사업계획논의

1.3.2. 국제협력위원회 (구성하지 않음)

1-3-3. 15주년기념 후원행사 특별위원회

1) 구성 및 운영

(1) 특별위원장 : 김성은

(2) 특별위원 : 김용옥, 이길민숙, 정현태, 심영희, 김숙연, 김엘리, 윤수경, 조영희, 김정수, 이혜숙, 박수언, 정정란

2) 특별위원회 회의

(1) 제 1차 : 4/20(금) 11:00~12:00 15주년 기념행사 날짜 및 장소 확정, 프로그램 논의

(2) 제 2차 : 6/4(월) 11:00~12:00 15주년 기념식 프로그램 확정 및 최종 점검

1-3-4. 평가

1) 정책위원회

- 겐더 100대 정책 평화통일분야 작업,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평화여성회의 입장 작성, 7대 여성평화통일대선의제 작성 등을 통해 여성 평화주의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 논의를 활성화하였다.
- 국내적으로 정책토론회 “평화, 통일, 외교정책에서 여성 참여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및 7대 여성평화통일대선의제 대화마당 개최와 국제적으로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개최, 무장갈등예방국제회의(GPPAC) 센터포킬포인트 뉴욕회의 및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UN CEDAW) 아태지역협의회 참석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포함해 여성 역량 강화와 성평등 촉진에 기여하였다.
- 동북아 여성평화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한 동북아 여성연대를 강화시켰으며, 미국대사관과 러시아 대사관 방문 등 드래I과 드래 II 협력 추구하여 국내적으로 동북아여성평화회의에 대한 홍보 및 평화여성회의의 위상을 강화시켰다.
- 정책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정책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안정화를 이루었다.

2) 15주년기념 후원행사 특별위원회

-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15주년기념 후원행사를 기획하고 차질 없이 진행 할 수 있었다.
-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 창립 15년 동안 걸쳐온 활동들을 되돌아보며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의가 만들어온 15가지 평화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검토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

14. 부설기구

14-1. 갈등해결센터

1) 구성 및 운영

(1) 소장: 김선혜

(2) 운영위원회: 김선혜, 김영진, 김정아, 김지호, 박인혜, 여혜숙, 이경순, 이덕경, 조영희

2) 사업목표

- 평화적인 갈등해결 확산을 위하여 교육·조정·실천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에 힘쓴다.

3) 회의

- (1) 제 1차 : 1/13(금) 17:30 2012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갈등해결센터 규정안 검토
- (2) 제 2차 : 1/27(금) 17:30 2012년 갈등해결센터 예산안 검토, 팀원들의 역할 점검 (업무분장)
- (3) 제 3차 : 2/8(수) 17:30 2012년 세부사업계획 논의,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 관련 센터 활동에 대한 논의, 평화교육 컨소시엄 참여에 관한 논의
- (4) 제 4차 : 3/16(금) 18:00 내부교육(도래조정 강사프레이닝) 점검, 대학생평화리더심훈련 및 청소년 평화리더심훈련 기획, 청소년교육 교안집 발간, 연산 사업 추진 점검
- (5) 제 5차 : 4/20(금) 18:00 도래조정자훈련가 양성프로그램 기획·운영팀 구성, 정실련과 도래조정자 훈련가 교육 공동주최, 갈등해결센터 조직성격 및 사업 방향 수립을 위한 실행계획 논의, 단국대 학생생활센터와 교류협정 체결 건, 후원 및 홍보 방안, 간사 채용의 건, 금천청소년수련관 도래조정수업 지원협력, 회복적정의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범인화 제안에 관한 의견
- (6) 제 6차 : 5/16(수) 19:30 도래조정 시범사업에 관한 건, 후원금 약정서에 관한 건
- (7) 긴급운영위원회 : 6/17(일) 19:00 '도래조정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활동기반 구축사업 용역 참여에 관한 건, 피주YMCA 청소년캠프

코디네이터 요청, 대학생 캠프 홍보

- (8) 제 7차 : 7/20(금) 19:00 상반기 활동보고 및 평가, 또래조정 시범사업 추진 현황 보고, (가칭)회복적정의 실천가대회 참가의 건, 하반기 교육 일정 논의
- (9) 제 8차 : 9/7(금) 18:00 교육활동보고, 또래조정시범사업 추진현황 보고, 활동계획에 대한 논의
- (10) 제 9차 : 10/5(금) 18:00 센터 브로셔 제작에 관한 건, 운영위원 MT에 관한 건, 범원화해권고위원 워크숍 진행에 관한 건
- (11) 제 10차 : 11/9(금) 19:00 운영위원 MT에 관한 건, 청소년교육 진행 방식에 관한 건,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 (12) 제 11차 운영위원회 및 MT : 12월 3일(월)-4일(화)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강사 활동에 관한 건, 제10기 강사프레이닝 후속여
관한 건, 2012년 사업보고 및 평가, 2013년 활동 계획
- (13) 제 12차 : 12/28(금) 17:00 2013년 갈등해결센터 10주년에 관한 건, 2013년
조직·사업·예산 계획, 또래조정지도사 자격증화하는 문제에 관
한 건, 회복적정의 조정자훈련교육팀 구성에 관한 건

1-4-2. 한국어성평화연구원 / 휴식

1-4-3. 평가

1) 갈등해결센터

- 팀체계가 없어지고 사무국 중심으로 운영되며, 조직관리에 대한 팀장의 부담은 없어졌지만, 교육 코디 업무 및 역할과 책임이 소장에게 집중되는 형태가 되었다.
- 또래조정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또래조정을 학생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다.
- 회원들의 교육 역량이 강화되었다.
- 상근인력 충원으로 사업수행력이 높아졌다.
- 교육 및 관례적으로 운영되었던 부분들을 메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

2. 평화·통일 사업

2-1. 한반도 위기 긴급 대응 평화행동

<2012 사업계획(안)>

1) 한반도 위기 긴급 대응 평화행동

북한 지도체제의 변화와 양대 선거, 풍복야의 경제 환경 등의 변화 속에서 감지 되는 한반도 평화의 위기에 대응하는 긴급활동을 조직하여 실천한다.

- (1) 한·미, 한·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 (2) 5.24 세계평화와 군축을 위한 여성의 날 평화행동
- (3) 대령장 군비 동결운동 - 4월17일 군사비 동결 세계행동의 날 공동행동

2-1-1. 세계군축행동의 날

1) 사전회의 (참석 : 최민정)

- (1) 1차 : 4/10 16:00 ~ 18:00 참여연대, 기본 방향, 프로그램 논의
- (2) 2차 : 4/13 10:00 ~ 12:00 참여연대, 세계군축의 날 퍼포먼스 구상

2) 제2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4월 17일 11:00 ~ 12:00, 국방부 앞 & 홍대 놀이터
- (2) 주제 : 우리 세금을 무기대신 복지예산 구입비를 살려주세요!
- (3) 연대 : 세계군축행동의 날 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33개 시민·평화단체)
- (4) 참석 : 여희숙(대표발언), 최민정(퍼포먼스), 김정수, 김지호
- (5) 내용 : 대표발언, 성명서낭독, 퍼포먼스, 강경연스

3) 평가

- 퍼포먼스 및 주제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라 좋았다.
- 세계적인 연대의 행동으로 의미가 있지만 대중화가 비효율적.
- 주요언론의 관심이 부족하여 미디어노출이 적었다.

2-1-2.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성명서 발표

- 1) 일시 : 2012년 5월 24일
- 2) 성명서 초안 작성 : 김정수

- 3) 연대단체 : 평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대전평화여성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34개 단체

2-1-3. 한·일 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7월 11일(수) 10:00, 환경재단 레이철 카슨홀
- 2) 공동주최 :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통일맞이
- 3) 참석 : 정경란(발표자), 김성은, 최민정
- 4) 내용
 - 좌장 : 정현곤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재담
 - 김종대 : 협정내용의 문제점, 군사적 측면
 - 이태호(참여연대) : 민주주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측면
 - 정육식(평화네트워크) : MD 관련
 - 정경란(평화여성회) : 여성, 과거청산
 - 박주민 변호사 : 법적 문제점, 보관책

2-1-4. 제3회 평화군속박람회

1) 평화군속박람회 준비위원회

(1) 기획회의(참석 : 최민정)

- 일시 및 장소 : 7/11,24 16:00~18:00, 8/24 14:00~17:00 참여연대

(2) 평가회의 (참석: 최민정)

- 일시 및 장소 : 10월 9일 15:00~18:00, 참여연대 5층 회의실

○ 내용:

-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나 다른 행사와 겹쳐 어려움이 있었음
- 부스참여도가 예전보다 적었고 부스간의 연결이 잘 되지 않았음
- 영상마당, 무대마당 등 좋았으나 유인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미지수임
- 풍선뱅크 등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아이템 배치는 적절했음
- 준비위 회의에 처음 참여한 사람은 따라가기 어려웠고 비효율적이었음
- 염서와 자료집 사이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브로셔가 필요함
- 평화운동에 얼마나 영향력이 끼쳤는지 미지수, 앞으로 고민해볼 문제임

2) 평화군속박람회 본 행사

(1) 전체프로그램

- 일시 : 9월 17일~23일 상시
- 내용 : 전시마당, 이야기마당, 캠페인마당, 영상마당, 공연마당 등

(2) 평화여성회 참여

- 이야기마당
 - 일시 및 장소 : 9월 20일(목) 19:00~21:00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제 : "여성들의 핵발전소 반대운동 Why & How"
 - 강의 : 김정수
 - 참여 : 5인 외 평어-이혜숙, 김지호, 최민정, 박종호 (총9명)
- 캠페인마당
 - 일시 및 장소 : 9월 22일~ 23일 10:00~21:00, 서울시청 광장
 - 참여 : 부스마당 (김정수, 김지호, 이혜숙, 최민정)
 - 프로그램 : 평화통일웃놀이, 7대 여성평화통일외제 우선순위 정하기, 국방비를 줄여 어디에 쓰고 싶은지 선택하는 코너

3) 평가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스운영이 잘되었다.
- 부스운영에 맞게 군속 등 알리고자 하는 바를 간단한 브로셔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 행사의 분위기가 무겁지 않아서 좋았으나 너무 젊은 층에 맞춘 분위기였다.
- 평화군속박람회 포스터가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적절하였다.
- 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한 것이 의미가 있다.

2-2. 남북여성협력사업(북한여성지원 사업)

<2012년 사업계획(안)>

2) 남북여성협력사업(북한여성지원사업)

남북여성이 함께 살기 위하여 남북여성연대 차원에서 북한여성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 남북여성 개발 협력 담론 및 방법 구상,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작업, 정책개발 워크숍 등 향후 사업을 위한 기반 만들기

2-2-1. 북한 어린이 지원을 위한 모금행사

1) 모금기간 : 2012년 8월 말 - 9월 말

2) 모금액 : 2,590,000원

3) 참여 현황 (총37명)

고성기, 김동민, 명희, 박경순, 박득순, 박명숙, 박재신, 이은영, 진형택,
한지연 10,000

김지호, 손은정, 엄은혜, 이상영, 홍승희, 정경란 20,000

김선혜, 김정아, 박인아, 최안진경, 최영숙 30,000

이권명희, 이택호, 한재연 50,000 이영희 70,000

김진희, 박수선, 박민숙, 서미숙, 안정애, 조계성, 조영희 100,000

김정애, 김정수, 김혜경, 여혜숙 200,000

김성은 500,000

4) 모금액 전달 : 2012년 10월 1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 전달

2-3.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이하여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북아의 평화형
성을 위한 여성평화적 관점의 통일, 외교, 안보분야 정책제시 활동

<2012년 사업계획(안)>

3)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이하여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북아의 평화형성을 위
한 여성평화적 관점의 통일, 외교, 안보분야 정책제시 활동

2-3-1. 살림집지여성행동 총선준비 평화통일분야 후보 인증 질문지엽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21일, 여성미래센터 소풍방

2) 참여 : 김정수, 정경란, 최민정

3) 내용 :

<p>1. 남북관계</p> <p>남북 정부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합의했 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정부 10년동안 추진했던 포용정책을 부정 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 기존의 합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귀하는 정부가 남북 간의 기존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1)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2) 이행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p> <p>3) 북한정부의 행동에 달렸다</p>

2. 복력문제

2-1.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하여 해결한다는 병행전략을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선 북핵문제 해결'을 지지하십니까?

- 1) 병행전략 지지 2) 선 북핵 문제 해결 지지 3) 잘 모르겠다 4) 기타(서술)

2-2. 남북관계의 악화화 5자회담 및 그 합의사항 이행이 중단된 상황이 길어지면서 북한의 핵능력의 강화라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귀하는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남북 대화 및 5자회담 재개
2) 핵문제 해결 전까지 남북지연 중단
3) 핵문제에 대한 유연 안보의 결의 이행 및 국제사회의 압박 강화
4) "인내의 인내"정책 추진

3. 평화안보통일 분야와 여성

평화안보통일 분야에서 정책결정자로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낮고 남북 협상이나 5자회담에서 여성을 찾아보기 힘들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평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귀하는 어떤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난민분야 의사결정 과정에 위중한 비율의 여성 참여를 보장할 제도 수립
2) 여성의 인권 강화와 능력 훈련
3) 남북통일에 대한 심층지적 훈련과 교육
4) 사회분위기 조성

4. 통일과 여성 및 청년

통일이라는 의제도 여성과 청년들의 관심영역에 관여되어야 남북관계개선과 남북 아성화를 이뤄나가는 데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본 년으로 미정화된 남북 여성과 청년들이 함께 통일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국회 차에서 제안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지 세 가지만 서술하십시오.

- 1)
2)
3)

2-3-2. 평화·통일·외교정책에서 여성 참여 확대 토론회

- 1) 일시 및 장소: 2012년 4월 26일 14:00 - 16:10, 여성미래센터 소풍당
2) 주제: 평화·통일·외교정책에서 여성 참여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3) 주최: 평화공동체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4) 참석 : 정경란(발표자), 김정수, 안정애, 여혜숙, 조영희, 최민정

5) 내용

- 사회 최소영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 발표

- 발표1 :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장)

“평화통일외교영역에서 여성 참여-국제적 논의와 국내적 실천방안”

- 발표2 :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실의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결의문의 의미”

- 토론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

2.3.3. 18대 대통령선거에 바라는 7대 여성평화통일 대선외제 작성

1) 일시 : 2012년 7월 18일(수) ~ 10월 25일(목)

2) 참여 : 정책위원회 - 정경란(위원장), 김정수, 여혜숙, 안정애, 조영희, 최민정

3) 내용

(1) 7대 여성평화통일 대선외제 목차

○ 전문

○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수립

○ 평화과정에서 여성 참여와 대표성 강화

○ 남북 여성교류의 법제화 및 인프라 구축

○ 북한 여성과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향후 개발협력에 성평등 관점 반영

○ SOFA개정과 여성인권 보호

○ 방위비 감축 및 여성복지 확대

○ 평화문화형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확대

4) 언론보도 : 여성신문 (11/30)

5) 의제전달

(1) 11/06 : 7대 여성평화·통일대선포럼 대화마당 개최 (7대 여성평화통일 대선외제 발표 및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캠프 관계자에게 전달)

(2) 11/08 :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캠프 통일평화분야담당자(최대석,

김기정, 이봉조)의 개인 메일로 '7대 여성평화통일 대선의제' 전달 :
회신 받음.

- (3) 11/14 :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캠프사무실에 '7대 여성평화통일
대선의제' 우편비송

2-3-4. 7대 여성평화·통일대선의제 대화마당

1) 일시 : 2012년 11월 06일 14:00-15:30

2)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3) 참석(가나다순): (총 17명)

김수진(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손미희(전국여성연대 대표), 안정애(평화여
성회 정책위원,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대표), 이윤희(여성정치세력민주연
대 활동가), 장수경(전국여성연대 정책위원장), 최수산나(한국YWCA) 외 4명/
평어-김성은(평화여성회 이사장), 김정수(평화여성회 대표), 김지호(평화여성회
총무), 이혜숙(평화여성회 대표), 정경란(평화여성회 정책위원장), 조영희(평화
여성회 정책위원), 최민정(평화여성회 활동가)

4) 내용

- 사회 : 이혜숙 (평화여성회 대표)
- 인사말 : 김성은 (평화여성회 이사장)
- 7대 여성평화통일외제 발표 : 정경란 (평화여성회 정책위원장)
- 초청자 &참석자 발언
- 전체토론
- '7대 여성평화통일 대선의제(안)' 전달식
 - * 전시: 7대 여성평화통일외제 우선순위 스티커투표
- 초청자 5명 (가나다순)
 - 감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이성은 (안철수 대통령후보캠프 정책기획실 평등간사)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최영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캠프 LIN 1325호 여성참여추진자문단)

5) 언론보도 : 여성신문(11/16), 기독교신문(11/18), 가교-통일뉴스(11/9)

2-3-5.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평화통일분야에 대한 제안 관련 로비 활동

1) 일시 및 내용

- (1) 8/24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차시안 검토를 위한 기본계획 TF팀·관계부처 합동워크숍 참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평화통일분야 토론회 (정경란)
- (1) 10/22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입장 작성 및 여연 전달 (초안작성 : 정경란)
- (2) 11/25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입장 여연 전달 (초안작성 : 정경란)
- (3) 11/26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발표 공청회 참석 (정경란)
- (4) 11/2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의견서 여성가족부 발송
- (5) 12/03 의견서 외교통상부 발송
- (6) 12/04 의견서 국방부, 통일부 발송

2-4. 2012 동북아여성평화회의

<2012년 사업계획(안)>

4) 2012 동북아여성평화회의

2-4-1. 준비과정

1) 동북아여성평화회의 4차 워크숍

- (1) 일시 : 2011년 1월 6일 4시
- (2) 장소 :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 (3) 주제 :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와 한국여성의 제안
- (4) 참가 : 정경란(발표), 김정수, 김태현, 박유희, 여혜숙, 윤경원, 정현백, 최안진경

2)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실행위원회 회의

- (1) 일시 : 2012년 2월 8일 16시
- (2) 장소 : 여성미래센터 5층 회의실
- (3) 참가자 : 김금옥, 김정수, 정경란, 정현백, 최소영, (지혁 생략)
- (4) 논의내용 : 행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 검토, 계획 점검, 역할 분담

2-4-2. 성명서 발표

- 1) 일시 : 2012년 1월 13일
- 2) 성명서 초안작성 : 정경란
- 3) 내용 : 22개단체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여성의 입장 “여성들은 핵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원합니다.” 발표 및 41개 대사관에 영문 성명서와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에 국문 성명서 팩스로 발송
- 4) 진행사항
 - (1) 1/25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신 접수
 - (2) 미국 대사관 성립대사에게 전달 확인 (조현택 전문위원 통해 확인)
- 3) 언론보도 : Women News Network(영문성명서)에 실림, donga.com, 연합뉴스에 나옴.

2-4-3. 2012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행사

- 1) 행사명 : 2012 동북아여성평화회의: 핵없는 세계와 동북아시아 여성의 삶
2012 Northeast Asian Women's Peace Conference:
Nuclear Free World and Women's Lives in Northeast Asia
- 2) 일시 : 2012년 3월 13(화) - 14일(수)
- 3) 주최 :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
- 4) 주관 : 평화통일뜨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5) 후원 : 한국여성재단, GIFAC
- 6) 행사일정
 - (1) 동북아여성평화회의 본 행사
 - 일시 : 2012년 3월 13일(화) 10:00-17:00
 - 장소 : 여성플라자 국제회의실
 - 내용 :
 - 개회식 (10:00~10:30)
 - 사회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개회사 : 정현택 추진위원장
 - 환영사 : 권태선 한겨레신문 편집인
 - 축사 : 남윤인순 민주통일당 최고위원
남부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동대표

조형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요시소카 테루에 GPPAC 동북아 코디네이터

- 제1부 기초발표 (10:30-12:00) - "책 없는 세계와 동북아시아 여성의 삶"
 - 사회: 최소영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 실비아 코팅을 독일연방의원, 독일녹색당 정책책임자 대변인
 - 지영선 학업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행동 공동대표
- 오찬 (12:00-13:30)
- 제2부 국가별 보고 (13:30-17:00)
 - 사회: 김정수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 기미코 히라타 (일본, Kiko Network 사무총장)
 - 쉐ن 화이관 (중국, 중국인민평화군속협의회 사무총장)
 - 엘리노어 트레인 (미국, 새로운방향을위한여성행동 창립회원)
 - 아나 유 블린브스카야나 (러시아, GE 니벨스코어 해양주립대학 교수)
 - 정경란(한국,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장)
- 환영만찬 (19:00~) 참석자 총 17명 서울시장 초청

(2) 전략회의 및 제안서 전달

- 일시 : 2012년 3월 14일(수)
-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풍방
- 내용 :
 - 10:00-12:00 전략회의-대사관과 국회 방문 설명, 제안서 채택
 - 13:00-14:00 조준호 통합진보당 당대표 방문, 국회
 - 14:50-15:30 러시아대사관 블고프 참사와 면담, 러시아대사관 정동
 - 16:00-17:00 미국대사관 Mark Tokola 부대사, 미국대사관 정화문
 - 8:30- 네트워크 만찬, 최인권경 평화여성회 운영위원 자택 20여명 참석

(3) 언론 보도

- 3월 10일 : 한겨레신문 사고(北古) 2면
- 3월 11일 : 통일뉴스 정경란정책위원장 인터뷰 기사
- 3월 14일 : 한겨레신문 독일 실비아 코팅을 녹색당 의원 인터뷰 기사
- 3월 16일 : 여성신문 미국 엘리노어 트레인 인터뷰 기사
- 3월 20일 : 기독교보 취재기사
- 3월 26일 : 크리스찬월드 모니터 취재기사
- 4월 06일 : 예장뉴스 취재기사

2-4-4. 평가워크숍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4월 18일 오후 4시,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 (2) 참석 : 평여-김정수, 여혜숙, 정현택, 최민정/어연-김금옥/민화협 여성위-안정희/교회사성연합-최소영
- (3) 내용 : 2012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평가
 - 전체적으로 공개 토론회, 전략회의, 제안문 채택, 의회 및 대사관 방문, 언론 홍보, 송별회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 주제는 시의적절하였지만, 평화여성회가 다음 주제였는지 이 주제를 계속 다룰 지,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 것인지 고려하여야 한다.
 - 제한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대표, 사무국의 팀워크가 좋았으며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참가국 대표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참가대표 사이에 의사소통과 회의의 진행이 잘 이루어져 6자회담 참가국에 드리는 제안문이 선택될 수 있었다.
 - 사전워크숍을 통해 주제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 일간지 언론사와 공동주최함으로써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더욱 알릴 수 있었으나, 다른 한편 기자 회견을 개최하지 않아 다른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 데 제한이 있었다.
 - 공개 토론회 참석자 수가 120-130명 정도로, 참석자들이 많았다.
 - 연대의 경우 여성단체의 참여는 이루어졌지만 시민단체의 참여가 없었다.
 - 일본, 중국, 미국 발표자가 사정에 의해 회의 참석을 못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참석자를 찾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평화물만드는 여성회가 그동안 쌓아온 국제연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 회의의 진행이 대체로 안정적이었으며 언론보도도 잘 이루어졌다.
 -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방향모임을 다음에 갖기로 하다.

2-4-5.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방향논의 도입

- 1) 일시 : 2012년 6월 5일 16:00-
- 2) 장소 :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 3) 참석 : 정현택, 김정수, 정경란, 김금옥, 여혜숙, 안정희, 최민정
- 4) 내용 :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향후 방향 모색
 - 조적적인 문제로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사무국이 있어야 하며 독자적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코디네이터가 국제연대와 실무를 모두 처리하는 방식은 한계가 많다.

-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추진위원회는 유지하고, 동북아여성평화회의의 추진위원회의 재정적 실무적 현실을 고려해 다음 동북아여성평화회의는 무장갈등예방국제회의의 동북아지역회의와 결합해서 하는 것을 무장갈등예방국제회의(GPPAC) 동북아네트워크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2-4-5. 한국여성재단 및 GGPAC 보고서 제출

- (1) 일시 : 2012년 5월 30일
- (2) 작성: 정경란, 김지호

2-5.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 촉구 활동

<2012년 사업계획(안)>

5)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 촉구 활동

2-5-1.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공개토론 대응 GPPAC 펜더 로컬포인트 뉴욕 방문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28일 ~ 11월1일, 미국 뉴욕시
- 2) 발표: 정경란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한국의 이행 및 남북한 여성협력")
- 3) 내용:
 - 공개토론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10월30일), 유엔연구기금 방문(11월1일) GPPAC 펜더 로컬포인트 활동방향(10월29일) 등용 논의
 -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한국의 이행 및 남북한 여성협력"을 발표
- 4) 언론보도 : 오마이뉴스-기고 (11/26)

2-5-2. Civil Society Recommendations to UN member States and UN Security Council in advance of the 2012 Open Debate 연명

- 1) 일시 : 2012년 11월 28일
- 2) 내용 : GPPAC의 요청에 따라 2012년 11월 30일 개최예정인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공개토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서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연명

2-5-3.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본정과 본쟁이후 여성인권에 대한 아태지역 협의의 참가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3월 26-28일, 방콕
- 2) 발표 : 정경관("한국사회에서 유연 안보리 이행현황과 여성단체의 요구")
- 3) 언론보도 : 여성신문에 기고 (4/6)

2-5-4. 1325호 네트워크 조직 활동

- 1) 일시 : 2012년 10월 31일
- 2) 참여여부확인단체 : 여성평화외교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여성정치연구소

2-6. 여성평화포럼 : 평화통일 부분을 논의하는 인적 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오피니언 그룹을 조직 & 운영함

<2012년 사업계획(안)>

- 6) 여성평화포럼 : 평화통일 부분을 논의하는 인적 기반이 취약한 현실에서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오피니언 그룹을 조직 & 운영함

2-6-1. 실행하지 못함.

2-7. 핵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반핵, 탈원전 활동

<2012년 사업계획(안)>

- 7) 핵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반핵, 탈원전 활동

2-7-1. 탈핵운동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탈핵여성모임 외

- 1)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발족식 및 대표자 회의
- 2) 핵없는 세상 공동행동 1인시위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3월 9일, 평화문광장 앞

(2) 참여 : 최안진경

3) 영국 평화활동가 앤지젤터(Angie Aelter) 강연회

(1) 주제 : 영국의 반핵운동과 제주에서의 경험

(2) 일시 : 2012년 3월 21일(수) 19:30-21:00, 연세대학교 공학관 A012호

(3) 참석 : 여해숙, 김지영, 최안진경, 김태현, 고상기

4) 핵없는 세상을 위한 여성모임

(1) 준비모임

○ 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27일, 여성미래센터 1층 카페숍

○ 참석 : 김정수

○ 내용 : 평화여성회, 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하자센터 등 참석하여 반핵여성모임의 필요성과 향후 활동 논의

(2) 첫 번째 대화 마당

○ 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27일 16:00-18:00, 명동 가톨릭회관

○ 참석 : 김정수, 정경란, 최민정, 박종호

○ 내용 : 여성은 왜 탈핵운동에 참여해야 하는가

- 생협활동가, 환경운동가, 탈핵교수모임, 여성운동단체 등 각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함께 토의

(3) 탈핵여성모임 회의 - 김정수, 여해숙, 정경란, 최민정 등 참석

○ 제 2차 : 3/21 16:00 하자센터, 탈핵여성운동을 위한 공부 방법 논의

○ 제 3차 : 4/13 14:00 하자센터, 에너지정의행동 김부녀 활동가 초청대화

○ 제 4차 : 5/11 14:00 하자센터, 연세대 조한해정 교수 초청 대화

○ 제 6차 : 7/06 14:00 하자센터, 김정수 독일탈핵기행 보고와 대화

5)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 창립기념 심포지움

(1) 일시 : 2012년 4월 23일 14:00-17:00

(2)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3) 참석 및 주제 : 김정수 "심자가와 피복자" (※일본어 자료로 번역 출판됨)

6) 제2차 탈핵 희망버스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4월 28일 ~ 29일, 발양

(2) 참석 : 김정수

- (3) 내용 : 고리 핵발전소 철계를 위한 인간띠잇기, 밀양 765KV 송전탑 적지화를 위한 정관주민 길기대회, 밀양 송전탑 철계투쟁 대회 등

7) 핵없는 사회를 원하는 공동행동의 날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다”

- (1) 일시 : 2012년 10월 20일(토)
 (2) 장소 : 서울 청계광장
 (3) 참석 : 여혜숙, 김정수

8) 3차 독일탈핵기행 참가

- (1) 기간 : 2012년 6월 23일~7월 1일
 (2) 참여 : 김정수
 (3) 일정
- 6/24 뮌헨 뉘른부르크성, “핵 없는 사회를 위한 한독세미나”
 - 6/25 뮌헨, 에너지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단지 견학, 뮌헨환경연구소 방문(민간단체), 이자르강 복원 현장 방문
 - 6/26 독일연방 방사능보호청 뮌헨 사무소 방문, 헤르만도르프 생태마을 방문
 - 6/27 오스트리아 부데 에너지 자립마을 방문
 - 6/28 오스트리아 귀싱 에너지 자립 마을 방문 (귀싱 모델 탐방)

2-7-2. “Declaration by Three Hundred Eleven Representatives for A Nuclear Free East Asia” (동아시아 탈 원전·자연 에너지 - 311인 선언)

- 1) 일시 : 2012년 3월 11일
 2) 활동
- (1) 3/11 피스보트의 요청에 따라 정경관 서명 참가
 - (2) 3/11 일본, 탈.원전행사 히미야공원에서 발표

2-8.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운동

: 체인과 늪이를 통한 ‘평화통일로 한 걸음 더 성큼!!’ 통일부 프로젝트

<2012년 사업계획(안)>

- 8)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운동

2-8-1. 평화통일 읍놀이

1) 읍판 제작

- (1) 기간 : 2012년 3월~4월
- (2) 참여 : 이태숙, 김지호, 최민정
- (3) 내용 : 도시선경, 읍 판 디자인 구성, 놀이선경, 읍 판 노선 설정

2) 홍보

- (1) 기간 : 2012년 4월 30일 ~ 5월 10일
- (2) 홍보처 : 본 회 홈페이지, 시민사회연대회의 공지 및 회원 메일링

3) 읍놀이세트 배포

- (1) 기간 : 2012년 4월 30일 ~ 11월 22일 (상시)
- (2) 구성 : 자체제작한 읍판 및 읍
- (3) 수량 : 1000개
- (4) 신청현황
 - 신청인 : 개인, 본 단체 및 타 사회단체 관계자, 복지시설관계자, 학교교사 등
 - 신청목적 : 친목도모 및 놀이용, 평화·통일교육용, 행사·홍보용
- (5) 읍판디자인 전달
타 단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전평화여성회)의 요청으로 읍판디자인을 전달 : 읍판을 큰 사이즈로 출력하여 각 단체 행사에 사용

4) 행사용 읍판제작

- (1) 기간 : 2012년 7월 말
- (2) 목적 : 타 단체의 행사용 읍판(큰 사이즈)요청으로 행사용에 맞는 큰 사이즈의 읍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여 자, 타 단체의 행사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읍판을 크게 출력
- (3) 활용 : 평화군축박람회(9/22-23, 본 단체 부스마당), 영등포마을축제(10/23, 영등포마을네트워크요청)

2-8-2. 2012 대학생 평화 리더십 캠프

1) 일시 : 2012년 6월 28일-30일

2) 장소 : 원불교 봉도청소년수련원

3) 참여 : 파주기행(30명), 대학생 캠프 (17명)

4) 내용: 파주기행 및 화해와 공존을 위한 협상·조정워크숍

일자	시간	강의명
28일(목)		일정 안내
	10:00 - 17:00	1강 DMZ 통일기행 (조 권성, 인사나눔기)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00	2강 평화감수성키우기
29일(금)	08:00 - 09:00	아침식사
	09:00 - 11:00	3강 갈등이해와 갈등분석
	11:00 - 12:00	4강 화해와 공존의 방법 배우기 1-1 대화(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 관찰하기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3:00	4강 화해와 공존의 방법 배우기 1-2 대화(의사소통)/듣기와 말하기, 관찰하기
	15:00 - 16:00	휴식
	16:00 - 18:00	5강 화해와 공존의 방법 배우기 2 Problem Solving, 의사결정 방법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00	6강 화해와 공존의 방법 배우기 3 조정이해, 원칙, 단계	
30일(토)	08:00 - 09:00	아침식사
	09:00 - 09:30	어제 프로그램 복습/참고
	09:30 - 11:30	7강: 협력적 문제해결의 방법
	11:30 - 12:00	평화통일 비전 세우기
	12:00 - 13:00	점심식사 후 떠남

2-8-3. 제10회 청소년 평화리더십캠프

- 1) 일시 : 2012년 7월 26일~28일
- 2) 장소 : 흥원연수원
- 3) 참여 : 청소년 19명
- 4) 내용 : 화해와 공존을 위한 협상·조정워크숍

일자	시간	강의명
7/26 (목)	11:30 - 12:30	식사 및 발령 예정
	12:30 - 13:00	집중시간
	13:00 - 15:30	1강: 마음열기 평화통일 감수성 키우기, 차이 인식
	15:30 - 15:50	음식
	15:50 - 17:30	2강: 갈등이해, 왜대조형이란?
	17:30 - 18:00	저녁식사
	19:00 - 21:00	3강: 갈등분석
7/27 (금)	07:30 - 08:30	아침식사
	09:30 - 12:00	4강: 화해와 공존의 방법 배우기 1 대화(의사소통)의 기와 말하기, 관찰하기
	12:00 - 13:00	집중시간
	13:00 - 15:30	평화 원어당
	15:30 - 16:00	음식
	16:00 - 18:00	5강: 화해와 공존의 방법 배우기 2 Problem Solving, 의사결정 방법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21:00	6강: 화해와 공존의 방법 배우기 3 조정 원칙, 단계 + 간단한 실습	
7/28 (토)	07:30 - 08:30	아침식사
	09:00 - 11:00	7강: 조정 실습
	11:00 - 12:00	평화통일리더 비전 세우기
	12:00 - 13:00	집중시간 후 해산

2-8-4. [세대공간 통일기행] 칠원기행

- 1) 일시 : 2012년 10월 7일 8:00-18:00
- 2) 장소 : 칠원 (백마고지전체지-한탄강-고석정-제2땅굴-평화전망대-월정리역, 두루미전시관-노동당사)
- 3) 참여 : 39명
- 4) 내용 : 기행(강사 : 이종하(한국제헌학습강사협회)) + 평화체험활동(도전골든벨)(진행 : 손희정)

2-8-5. [세대공간 통일기행] 파주기행

- 1) 일시 : 2012년 10월 27일 9:00-17:00
- 2) 장소 : 파주 (임진각-제3땅굴-도라산전망대-도라산역-남북출입사무소-반구정)
- 3) 참여 : 40명
- 4) 내용 : 기행(강사 : 이종하(한국제헌학습강사협회)) + 평화체험활동 (평화동일기원 러본 달기/도전골든벨)(진행 : 이주환)

2-8-6. 2012 통일부 민간통일운동활동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제출

- 1) 일시 : 2012년 12월 05일
- 2) 실무담당 : 김지호, 최민정

2-9. 평가 및 과제

1) 평화통일운동이

- 사업목적에 맞게 한반도지형모양의 울판을 제작하기 위해 도시선정, 높이 설정, 울판 재질 등에 심혈을 기울여 교육적·기능적·미적가치를 갖도록 제작하였다. 한반도 지도 모양의 울판 제작이라는 참신함과 상상력이 많은 문장이 커다란 호응을 보내주셨다.
- 4월 말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5월 중순에 마감일 될 만큼 '평화통일운동이'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높았다.
- '평화통일운동이'는 신청하신 분들에게 따라 왼쪽용, 높이용, 꼬구용, 교육용,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 '평화통일운동이'는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해야 진행되는 놀이로 신청자뿐만 아니라 놀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까지 평화통일의식을 고양시키는 파급효과가 컸다.
-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큰 사이즈의 울판을 추가 제작하여 자·타단체

사에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고, 큰 사이즈 옷관에 맞춰 옷팔을 대입인형으로 준비하여 아이들의 흥미와 참여를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

2) 평화리더십캠프

- 다년간 축적해온 갈등해결교육내용과 평화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퀴즈 등 놀이를 통한 교육내용을 추가하였다.
- 강의에 사용할 실습사례를 자연스럽게 평화통일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사례로 만들어 수업내용에 평화통일교육을 녹아들게 하려고 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었다.
- 대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일반인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DMZ전학(과주지역)을 다녀온 것은 학생들에게 남북의 특수한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 실생활에 직접 적용해볼 수 있는 평화로운 의사소통 방법과 갈등해결방법 등을 교육하여 교육의 활용성을 높였으며, 학생들의 리더십 향상에 기여하였다.
- 강의 진행에 맞춘 순서로 자료집을 수정 제작해야한다.
- 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 참가학생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3) 세대공감 통일기행

- 다양한 연령층의 북한·통일단체 실무자나 관계자기 아닌 일반인들로 참가자를 구성하여 기행의 교육적 효과를 높여 평화통일인식을 확장할 수 있었다.
- 통일감수성을 가진 역사·문화재현전문가를 가이드로 동행하여 백마고지전적지, 전방대 등에 방문하며 역사와 의미를 전달하였다.
- 평화체험활동을 준비하여 일면식이 없는 참가자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어울리면서 세대 간의 격차가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평가서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사업으로 평화통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는 평가를 주었다.

3. 정보·홍보 사업

3-1. 2011년 결산서 홈페이지 공지

- 1) 포스팅 일자 : 2월 6일

3-2. 홈페이지 메인 메뉴 변경

- 1) 일시: 3월 ~ 4월
- 2) 참여: 김지호, 최민정
- 3) 내용
 - '하는일'과 '사람들' 각각의 메뉴를 '하는일과 사람들'로 통합
 - 후원 안내문 새로 등록
 - 메인화면 정리 및 후원계좌 등록
 - 회원, 참여아당 신설 등록

3-3. 회원 메일링 주소록 정리: 오즈메일러 (5월)

3-4. 평화여성회 소개 및 방문 인터뷰

- 1)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주관 '아시아여성리더십 프로그램' 참가자 방문
 - (1) 일시 : 2012년 7월 13일 13:00 - 16:00
 - (2) 소개 : 김정수 (평화여성회 소개 ppt 자료로 소개) & 사무실 방문자와 질의 & 응답
- 2) 미국 여성평화연구회 방문
 - (1) 일시 : 2012년 7월 23일 오전 오후
 - (2) 방문 : 네브라스카대 Katherine Hunt, 조민아 교수 등
 - (3) 소개 : 김정수

3-5. 소식, 행사 메일링

- 1) 소식, 행사내용 수시 업데이트 및 회원들에게 메일 발송

3-6 홈페이지 레이아웃 변경 작업 (9월)

- 1) 일시: 2012년 7월 말~ 2012년 9월 21일
- 2) 작업: 오영주 (평화여성회 전 정보활동가 보완)
- 3) 내용: 홈페이지 서버 업체 변경에 따라 레이아웃 전체 변경 및 자료 보완

3-7. 15주년기념 15가지평화 리플렛 작업

1) 일정

- (1) 6/11 15주년 기념 리플렛 기획회의
- (2) 6/12~13 리플렛 전직문의, 구성 및 편집, 내용구성
- (3) 6/15 리플렛 초안 전달 & 인쇄작업의뢰

2) '창립 15주년이 된 평화여성회가 만들어온 15가지 평화' 정리

- (1) 기간 : 5월 ~ 6월
- (2) 내용

- ① 북한여성과 어린이 돕기
- ② 남북여성교류에서의 리더십 발휘
- ③ 여성생화·통일정치 제안활동
- ④ 전쟁반대 평화운동 전개
- ⑤ 군사주의에 저항하는 운동 전개
- ⑥ UN안보리결의 1325호 홍보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활동
- ⑦ 동북아여성평화회의 개최
- ⑧ 평화교육 확산을 위한 노력
- ⑨ 갈등해결 전문가 양성과 훈련 프로그램 확산
- ⑩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평화커뮤니티 만들기
- ⑪ 일상의 평화감수성과 평화문화 확산 노력
- ⑫ 국내 여성단체로의 평화운동 확산, 국제 평화운동과의 연대
- ⑬ 남북여성과 함께 하는 사회통합연습 <전달대-무궁화 보임>
- ⑭ <한국여성평화운동사>(2005), <여성과 평화> (1-5호) 발간
- ⑮ <여성미러센터> 임주(2010년)

3-8. 소식지 '올리브 Olive 1호' 발행

1) 소식지 준비위원회 구성

- (1) 위원: 김정수, 김지호, 여혜숙, 최민정, 홍승희

2) 회의

- (1) 제 1차 : 9/5 소식지 독자구성, 역할분담 논의 (김지호, 김정수, 여혜숙, 최민정, 홍승희)
- (2) 제 2차 : 11/15일 소식지 독자 구체화, 일정 논의, 소식지 이름 선정 (김정수, 최민정)

3) 소식지 이름 공모

- (1) 기간 : 10월 - 11월
- (2) 선정이름 : 올리브olive
- (3) 의미: 비둘기가 묻고 있는 일이 올리브 잎, 올리브는 평화를 상징, 또한 올리브유는 등유로 사용되어 빛을 의미하기도 함.

4) 소식지 작성 및 편집

- (1) 기간 : 11/19-11/30
- (2) 참여: 김정수(감수), 최민정(편집)

5) 소식지 '올리브 Olive 1호' 발행

- (1) 일사: 2012년 12월 01일
- (2) 내용
 - 시사위키 : 여왕의 시대 여성들은 행복했을까 -홍승희
 - 여성평화운동
 - 대북 인도적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김성은
 -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과 여성 -정경민
 - 독일발행기행 보고 -김정수
 - 기저층여성인권연대출발과 앞으로의 활동 -안김정애
 - 강경마을, 그들의 싸움이 아닌 우리의 싸움 -최민정
 - 갈등해결과 평화
 - 교실의 평화지킴이, 또래조정자 -김선혜
 - 갈등을 대화로, 폭력을 평화적으로 -이주원
 - 강사트레이닝 참가기 -김진희
 - 참여와 협력으로, 회의진행자 훈련 -갈등해결센터
 - 영화를 통한 평화위키
 - <에린 브로코비치>를 보고 -박종호
 - <브이 포 벤데타> -이양명
 - <그들만 사랑>과 생명평화의 소중함 -신승철
 - 화권의 글
 - 청소년리더십캠프에 다녀와서 -박수민
 - 세대공감 통일기행 소감문모음 -이은진, 최지수, 권영준, 서연걸
 - 평화대행진을 마무리하고 -박경용
 - 작은 평화의 소리 -권침옥

- 평화여성회 발자국

- 평화여성회가 뿌린 평화의 씨앗들
- 갈등조정을 통해 뿌린 평화의 씨앗들
- 연대를 통해 뿌린 평화의 씨앗들
- 평화의 씨앗을 키워주신 분들

- 자료 : 7대 여성평화통일 대선의제 -정책위원회

(3) 배포 기간 및 대상자 : -12월, 전 회원 및 기고자

3.9 평가

- 레이스북 개설, 소식지 발행, 리플렛 발행 등을 통해 본 회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홈페이지개선을 통해 본 회의 이미지를 참신하게 바꾸고 소식과 자료를 보기 편하도록 하였다.

4. 회원 사업

4.1. 회원가입현황 (2012년)

- 1) 1월 : 양승광(일반원)
- 2) 2월 : 오종열 (일반원), 권정옥 (심판원)
- 3) 5월 : 강영식(일반원), 김옥자(일반원)
- 4) 6월 : 한은혜(일반원), 천진숙(일반원), 이은영(일반원), 유은주(일반원)
- 5) 9월 : 이영희(일반원), 허예기(일반원)
- 6) 10월 : 김양순(일반원)
- 7) 11월 : 엄금옥(일반원), 이은진(일반원), 이미자(일반원), 전상희(오천원), 채지영(일반원, 김현숙(일반원)
- 8) 12월 : 유이분(일반원), 김정수(일반원), 김명륜(일반원), 명희(일반원), 김권석(오천원)

4.2. 평화 펠트모임

- 1) 일시 : 2/8, 2/22, 4/10, 4/24
- 2) 지도 : 조덕경 선생님
- 3) 참석 : 김지호, 여혜숙 최민정, 김정희

4) 완성작품 : 겹재 및 소품

4.3. 평화 문화모임

1) 국악콘서트

- (1) 일시 및 장소 : 2/16 대학로카페
- (2) 참석 : 김지호, 조영희, 박종호, 최안진경

2) 반전영화 “아르마딜로” 시사회

- (1) 일시 및 장소 : 3/27, 씨네코드 선재
- (2) 참석 : 김여희, 김은희, 김정수, 김지호, 여혜숙

3) 회원영화 함께 보기 “내 어머니의 모든 것”

- (1) 일시 및 장소 : 4/24, 여성비레센티 1층 소동방
- (2) 참석 : 회원 약10여명

4) 회원영화 함께 보기 “그을린 사랑”

- (1) 일시 및 장소 : 8/22, 영등포산업선교회
- (2) 참석 : 회원 등 약 20여명
- (3) 영화평 작성 : 신승림 (2012년 소식지 기고)

5) 회원영화 함께 보기 “보이 포 벤데타”

- (1) 일시 및 장소 : 11/8, 영등포산업선교회
- (2) 참석 : 회원 등 약 10여명
- (3) 영화평 작성 : 이양명 (2012년 소식지 기고)

4.4. 매월 CMS 납부회원에 감사문자 발송

5. 재정 사업

5-1. 함양 꽃감 판매

5-1-1. 2011년말~2012년 초 : 재정 순수익 1,730,000원

5-1-2. 2012년말~2013년 초

1) 생산지 답사 방문

- (1) 일자 : 2012년 12월 5일(수)
- (2) 방문자 : 김정수, 김지호
- (3) 내용 : 실물상대확인 및 금액 확정

2) 판매기간 : 2012년 12월 17일~2013년 1월 31일

5-2. 15주년 기념 후원행사

1) 구성

- (1) 특별위원회 : 김성은, 김윤옥, 이김현숙, 정현배, 신영희, 김숙일, 김엘리, 윤수경, 조영희, 김정수, 여혜숙, 박수선, 정경란 (13명)
- (2) 준비위원회 : 박유희·조영희(이사), 김정수·여혜숙(대표), 김선혜, 김영희, 김지호, 정경란, 최덕정, 최안진경 (10명)

2) 준비과정

- (1) 4/5 평화여성회 15주년기념행사 1차 준비위원회
- (2) 4/20 15주년 특별위원회 1차 회의
- (3) 4/30 10주년 준비위원회 2차 회의
- (4) 6/4 15주년 특별위원회 2차회의

3) 홍보물 제작

- (1) 초청장: 700매 제작
- (2) 리플렛: "평화여성회가 만든 15가지 평화" 1000매 제작

4) 후원행사 내용

- (1) 제목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15주년 기념 후원행사"우리, 평화를 노래하자"
- (2) 일시 : 2012년 6월 19일(목), 오후 6:00 - 8:00

(3) 장소 : 플라너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2층))

(4) 내용

- 사회 : 김현희 (전 사무국장)
- 인사말 : 김성은 이사장 (1분)
- 격려사 : 권미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평화여성회 친구들 축하의 말 - 영상물 상영 (제작 : 최안진경)
- 참여자 소개 : 테이블별로 모두
-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만든 15가지 평화 소개 : 여혜숙 대표
 - 하이쿠정, 황순영 당신을 기억하며
 - 평화여성회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 감사인사
- 15주년 기념 떡케익 커팅식 : 특별위원
- 공연 : 한정숙 이사, 임명신, 이주홍
- 대표 마무리 인사와 운영위원들의 공연
 - : 김정수, 여혜숙, 김영진, 김선희, 김지호, 명희, 최안진경, 정경란, 최민정

5) 결산현황

수입	금액	지출	금액
후원금	8,900,000	초청장극락	537,000
매사회	1,263,000	리플렛제작	615,000
		회의비	146,500
		식비(100인분)	1,650,000
		떡케익	85,000
		헌수비	55,000
		소모품등	48,900
수입 합계	10,163,000	지출 합계	3,137,400
		순수익	7,025,600

5-3. 평가

1) 15주년기념 후원행사

- 장소(서울스퀘어)의 접근성과 음식의 맛이 좋았다.
- 평화여성회가 창립 15년 동안 활동해온 내용을 돌아보며 '15가지 평화'로 정리한 것도 큰 성과이며, 이를 15주년기념 후원행사에서 발표하므로 의

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 특별위를 구성하여 사전에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 참여도를 높이고 행사를 책임져 있게 준비할 수 있었다.
- 프로그램이 다양한 점과 행사 마무리로 실무자들이 공연을 한 점이 좋았다.
- 구성원들이 잘 참여하고 와서 분위기가 밝았다.
-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가 있어 일이 분담된 점이 좋았다.
- 초청장과 티켓을 따로 하지 않아 후원금을 모금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 후원금을 많이 걷지 못하였다.
- 다음 후원행사에 관한 의견으로 장소변경, 식사시간과 공연시간 분리, 초대장과 티켓 따로 제작, 도시락 대접 등이 나왔다.

6. 부설 갈등해결센터 사업

6-1 학교 평화커뮤니티 사업

6-1-1 학교별 평화커뮤니티 사업

1) 교사, 학부모 대상 갈등해결 교육

- (1) 3/16 임곡중학교 학부모 연수 : 김선혜
- (2) 4/23 포천교육지원청, 학부모대상 학교폭력예방과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접근 : 박수선
- (3) 5/26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 대상학교폭력예방교육 : 김선혜
- (4) 6/24, 7/22 춘천 YMCA가족캠프, 의사소통 역할극 : 박인혜
- (5) 6/27 덕은초등학교 학부모교육 : 김영진
- (6) 6/27, 7/10고령고등학교 학부모교육 : 박수선
- (7) 7/2 금촌고등학교 교사대상, 학생생활지도와 소통 : 박수선
- (8) 7/19 홍성공업고등학교 교사연수, 갈등과 갈등해결 : 김선혜
- (9) 9/7 공릉청소년정보문화센터 학부모 교육 : 김선혜
- (10) 9/10 연천교육지원청 학부모교육 : 박수선
- (11) 9/13 가산중학교 학부모대상 부모자녀대화법 : 이덕경
- (12) 9/17 인천 신송초 교사연수 '도래조정 소개' : 김영진
- (13) 9/26 파주 두일중학교 학부모교육 : 박수선
- (14) 인천시 교육청 도래조정자 지도자 직무연수

- 일시 : 2012년 10월 8-10일, 15-17일, 29-31일 (각 15시간 3회)
 - 참가자 : 인천시교육청 관내 초등, 고등 전문상담교사 및 상담사 102명
 - 강사 : 김선혜, 박수선, 박인혜, 이덕경, 여혜숙
- (15) 10/17 경기고양교육지원청, 학부모교육 '학교폭력 예방과 학부모 역할'
: 김선혜
- (16) 10/18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하남시민자치대학 특강 '학교폭력예방과 학부모 역할' : 김선혜
- (17) 10/19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화연수 '갈등해결프로그램' : 김선혜
- (18) 10/23~11/20 (2시간 5회)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 학교폭력 전문 상담원교육 심화과정 '조정 훈련' : 김선혜, 박수선
- (19) 10/25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 '소통으로 행복을 만드는 학부모 연수'
: 박수선
- (20) 11/6-27 (90분 주 1회)
강명초등학교, 교사교육 '학생사이 갈등조절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선혜
- (21) 11/6 벽석초등학교 학부모 교육 '학교폭력 예방과 학부모 역할' : 김선혜
- (22) 11/7 원주초등학교 교사교육 '학교폭력 예방과 교사의 역할' : 김선혜
- (23) 11/16~30 여주교육지원청 포함 8개교,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교육 '의사소통, 갈등해결' : 김선혜, 김영진, 박인혜
- (24) 12/5 고양 행신초등학교 학부모 교육 '학교폭력 예방과 학부모 역할'
: 김선혜
- (25) 12/5 파주 울곡중학교 학부모 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 이덕경
- (26) 12/12 봉명여자정보고등학교 교사교육, '교실에서 갈등다루기' : 김선혜
- (27) 12/12 부천교육지원청 학부모 교육, '학교폭력 예방과 학부모 역할'
: 김선혜
- (28) 12/17 서울여자대학교 바롬생활관 입소 학생 대상 '지구공동체와 평화감수성-평화로 가는길' : 김선혜

2) 청소년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 (1) 2/6-8 교문중학교 (평화네트워크) : 김영진, 김정아
- (2) 2/15 (16명) 2교시 대곡초등학교 : 김영진
- (3) 3/16 일곡중학교 : 김선혜
- (4) 3/17 (120분, 30명) 영림초등학교 임원 교육 : 박재신, 이덕경
- (5) 3/23 (80분, 100명) 신곡초등학교 임원교육, 리더십과 도래조정 100명

: 이덕경, 박재신, 이현숙

- (6) 3/23 (60명) 성원중학교, 평화리더십향상과 민주적의사결정 : 이덕경
- (7) 4/2,9,16 (7명) 성북청소년자활지원단, 분노조절과 의사소통 : 이덕경
- (8) 4/17 (150명) 춘천시청소년수련관, 춘천시 학생임원교육 : 박인혜
- (9) 4/18,25, 5/2, 9/23 연복중학교 : 김정아
- (10) 5/7,14,21 (5명) 성북청소년자활지원단, 분노조절과 의사소통 : 이덕경
- (11) 5/26 (14명), 6/23 (9명)

시흥평생학습센터 청소년대상 분노다루기, 의사소통 : 이덕경, 김선혜

- (12) 6/6~7/15 (10명) 이원YMCA 갈등해결연구민들기 : 박인혜
- (13) 6~10월 (15회기) 문교초 갈등해결과 평화수업 : 김정아
- (14) 7/5 (999명) 일산 백양중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 이덕경(방송수업)
- (15) 7/30 (10회, 3명) 하계중학교 학교부적응학생 정서지원프로그램 : 박인혜
- (16) 8/22 지산중 학교폭력예방교육 : 김영진(방송수업)
- (17) 9/4,11,18,24 (40분씩 4회)하안북초 6학년 갈등해결과 평화 : 김영진, 김정아
- (18) 9/6,20 (40분씩 4회)하안북초 5학년 갈등해결과 평화 : 김영진, 이덕경
- (19) 9/6,11,18 (100분씩 3회, 13명) 정심초 자존감 향상 : 김영진
- (20) 9/8 영일초 임원교육 : 이덕경, 박재신
- (21) 9/10 (80분, 100명) 신북초 임원교육, 리더십과 또래조정
: 김영진, 김정아, 여혜숙, 이은영
- (22) 9/11,21 (12명) 노원 위덕 대안학교 나우학교, 공감과 정형 교육 : 박인혜
- (23) 9~10월 (40분씩 6회) 정심초 갈등해결과 평화 : 박재신, 김정아
- (24) 9/17,21,24,28 구름산초 갈등해결과 평화 : 이덕경, 김영진, 박재신
- (25) 10/19, 11/1,15,22,29, 12/6 (각100분 6회, 15명) 한서고 갈등해결과 평화
: 이덕경
- (26) 10/11,22,25,29, 11/1 (각90분 5회, 10명) 녹천중 갈등해결과 평화 : 김영진
- (27) 11/26,28,29,30 공통중 3학년 갈등해결과 평화
: 김영진, 김정아, 유은주, 이덕경, 이현숙
- (28) 12/6,7,13,14 (각 80분씩 2회) 문성초 5학년 학교폭력예방교육
: 이덕경, 김정아
- (29) 12/10 (80분 100명) 남성초 5학년 비폭력대화 : 김영진
- (30) 12/11 (80분) 송정초 5학년 학교폭력예방교육 : 이덕경
- (31) 12/12 (각 80분) 문성초 1~2학년 갈등해결과 평화 : 여혜숙
- (32) 12/12 (120분 250명) 용명초 6학년 갈등해결과 평화 : 김영진
- (33) 12/13 (각 80분) 문성초 3~4학년 갈등해결과 평화 : 김영진

- (34) 12/13 (80분) 전농초 6학년 학교폭력예방교육(방송) : 이덕경
- (35) 12/14 (80분) 문성초 6학년 갈등해결과 평화 : 김영진
- (36) 12/15 (80분) 의왕 부곡초 4~6학년 자원봉사자 갈등해결과 평화 : 이덕경
- (37) 12/17 (각 80분) 중계중 1~2학년 학교폭력예방교육(방송) : 이덕경
- (38) 12/18 (120분 22명) 서울국제고 학생회임원 갈등해결과 평화1 : 김영진
- (39) 12/20 (120분 22명) 서울국제고 학생회 임원 갈등해결과 평화2 : 이덕경
- (40) 12/20 (각 90분 9개반) 임곡중 1학년 갈등해결과 평화
: 김영진, 이덕경, 이현숙
- (41) 12/21 (120분) 신영초 4~6학년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 김영진
- (42) 12/21 (각 100분) 파명고 1~2학년 학교폭력예방교육(방송) : 이덕경
- (43) 12/21 (45분) 단대부중 1학년 비폭력대화 자기표현(방송) : 이덕경
- (44) 12/24 (100분) 화곡보건경명고등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방송) : 이덕경
- (45) 12/26 (100분) 청원여고 1학년 비폭력평화교육 : 이덕경

6-1-2. 도래조정자 훈련 및 도래조정반 운영

- (1) 3/12,13,14,15,16,19,20 (각 15시간 1,2,3학년, 35명) 관악중
: 이덕경, 김영진, 박인혜
○ 4/12, 5/14, 6/11, 7/19, 10/16, 12/10 (각70분 6회 10명) 관악중 추수지도
: 이덕경
- (2) 3~9월 (각 3시간씩 7회) 연곡중 : 김정아
- (3) 4/4,18,23, 5/2,9,23/30, 6/13,20,27 (17명) 신목초 : 이덕경
- (4) 4/12, 5/10, 9/13,27 11/15 (2교시의 5회, 16명) 임곡중 : 김영진
- (5) 5/29, 6/11,12, 7/19 (각135분 4회, 25명) 도촌중 : 김영진, 박재신, 김정아
- (6) 5/23, 6/13,20, 7/4,11, 8/29, 9/5,12,26, 10/10,17,31, 11/7,14,28 (각40분 15회, 11명) 백산초 : 김영진
- (7) 5/29, 6/5,12,21,7/3,7,19 (18명) 동광초 : 이덕경
- (8) 7/12~14 (20시간씩) 원주공고, 춘천농공고 : 이덕경, 김영진, 여혜숙
- (9) 7/16~18 (20시간씩) 강릉중, 북호중 : 이덕경, 김영진, 박두일, 박인혜
- (10) 7/16,17 11/24, 12/17 (각240분 4회 30명) 용인 서원중 : 김영진, 김정아
- (11) 7/20 (3시간, 21명) 양주 주원초등학교 도래조정 심화교육 : 이덕경
- (12) 7/20, 8/6,7,14,21, 9/28 (56학년, 22명) 신송초 : 김영진, 이은영
- (13) 8/8~10 (6시간씩 3회, 19명) 과주 교하 청소년문화의집 : 김영진, 김정아
- (14) 8/13~17, 12/22 (27시간 16명) 송원중 : 김정아, 박재신
- (15) 8/16 (6시간) 기흥중 : 김영진

- (16) 8/17-18 (1,2학년 12명) 성일고 : 김영진, 이덕경
- (17) 8/22 (3시간, 15명) 죽전고 : 이덕경
- (18) 8/25-27 진부고등학교 : 이덕경, 박인혜
- (19) 8/27-29 (20시간 20명) 이리공고 : 김정아, 김세환
- (20) 8/31, 9/1, 11/10 (1,2학년, 17명) 우림중 : 김영진, 이덕경
- (21) 9/8,15,22, 10/6,13,20,27, 11/10,17,24, 12/1,8 (각80분 12회, 15명)
 구로남초등학교 : 이덕경
- (22) 9/13-12/27 (30시간) 장안중 : 김정아, 여혜숙
- (23) 9/27,10/4,11,25,30,11/8,22,29, 12/6 (각90분 8회) 강명초등학교 : 이덕경
- (24) 9/7,8,14,15 (5학년, 20명) 부안동초 : 이덕경, 김영진
- (25) 9/11-25, 10/9, 16, 31, 11/1 (각1시간 15회기) 동생초 : 이덕경
- (26) 9/15 (8시간) 대구 청여단 또래조정훈련 : 여혜숙, 문경아
- (27) 10/5 (9시-14시) 원주공고 또래조정반 추수지도 : 이덕경
- (28) 10/5 (14시-15시) 원주공고 권교생 또래조정소개교육 : 이덕경 (방송)
- (29) 11/5,19 12/10 (4시간씩 3회, 24명) 안남고 또래조정 추수지도 : 김영진
- (30) 11/27 (110분) 선송고 : 박인혜
- (31) 12/12 (80분) 옥운초 3-6학년 임원대상 또래조정교육 : 이덕경

6-1-3. 대학생평화리더십캠프

- (1) 기간 및 장소 : 2012년 6월 28일(목) ~ 6월 30일(토), 우이동 봉도수련원
- (2) 참가자 : 17명
- (3) 강사 : 김정아, 김지훈, 박인혜, 이경순, 이덕경

6-1-4. 청소년평화리더십캠프

- (1) 기간 및 장소 : 2012년 7월 26일(목) ~ 7월 28일(토), 파주 흥원수련원
- (2) 참가자 : 19명
- (3) 강사 : 김영진, 김정아, 박재신, 이덕경

6-1-5. 평화교육, 회복적 학생지도 등 정칙화 활동

1) 정칙제안서 제출

- (1) 일시 : 2012년 1월 30일
- (2) 주최 :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를 포함한 평화교육/갈등해결 활동 단체 9개
- (3) 내용 :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평화 활동 단체의 정칙 제안서

2) 토론회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1) 일시 : 2012년 5월 21일(월) 10:00 ~ 17:10

(2)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

(3) 참석자 : 박수선 (주제발표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6-1-6. 회복적 사범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1) ○○학교 대화모임 의뢰 진행 (박수선)

6-2. 지역평화커뮤니티 사업

6-2-1. 갈등해결과 평화 교육을 위한 강사드레이닝

1) 또래조정자 훈련 및 양성을 위한 강사 훈련

(1) 기간 : 5/11~12, 6/1~2일 (31시간)

(2) 장소 : 기독교사회교육원 이재홀, 여성프라자 NCC(일원마당)

(3) 강사 : 김선혜, 김영진, 김재근(수원북중), 박수선, 박인혜, 이덕경

(4) 참가자 : 27명 참석 (18명 수료)

2) 또래조정자 훈련(경실련 공동주최)

(1) 기간 : 5/18-19, 24-25 (31시간)

(2)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전경화장

(3) 강사 : 김선혜, 김영진, 박수선, 박인혜, 이강진(갈등해소센터), 이덕경

(4) 수료생 : 14명

3) 제10기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드레이닝

(1) 기간 : 2012년 10월 12일(삼)-13일(토), 10월 22일~11월 21일(월/수), 12월 1,8일(토)

(2) 장소 :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3) 강사 : 김선혜, 김영진, 박상희, 박수선, 이혜숙, 이덕경

(4) 참가자 : 13명

6-2-2. 진행전문가 훈련

1) 서대문구 회의진행자 훈련

(1) 기간 : 2012년 6월 4일~7월 18일(기초 동인과정 5회/ 심화 2회, 총 21시간)

(2) 장소 : 서대문구 회의 사회의실 / 기독교사회교육원 이재홀

- (3) 강사 : 김선혜, 박수선, 박인혜, 박재신, 이경순
- (4) 참가자 : 서대문구 주민 등 44명

6-2-3. 회복적 정의 활동

1) 제5기 회복적 정의 조정자 훈련 워크숍 진행

- (1) 기간 : 2012년 2월 23일(목) ~ 24일(금) (15시간)
- (2) 장소 : 대방동 여성프라자
- (3) 강사 : 김선혜, 박수선, 박인혜, 이덕경, 이경순
- (4) 참가자 : 18명
- (5) 후속모임 : 3/31(토), 4/21(토) 2회 개최

2) 화해권고 사례연구모임

- (1) 기간 : 2012년 4월 25일, 7월 6일, 9월 12일, 12월 14일
- (2) 내용 : 화해권고 사건별 집단 슈퍼미션, 법원 행정상의 예외사항 공유, 제도화 방안모색, 사례 공부

6-2-4. 지역사회 평화문화 확산 및 지원 활동

1) 안산 YMCA 강사드래이닝

- (1) 기간 : 2012년 3월 19일 - 5월 23일 (기초, 심화 포함 54시간)
- (2) 장소 : 안산 YMCA
- (3) 강사 : 김선혜, 김영진, 박수선, 박인혜, 이덕경

2) 대전평화여성회 평화교육강사 양성과정

- (1) 기간 : 2012년 4월 3일 ~ 4월 28일 (31시간)
- (2) 장소 : 여성장애인연대 교육장
- (3) 강사 : 김선혜, 박수선, 박인혜, 여혜숙

3) 평명교육연대, 평화지킴이양성과장 갈등분석

- (1) 기간 : 2012년 4월 17일
- (2) 강사 : 박수선

4) 흥동지역 멘토양성과정

- (1) 일시 : 4/20, 27, 5/2, 10, 16 (5회)
- (2) 강사 : 박수선

5) 도시마을만들기 활동이해 교육

(1) 일시 : 2012년 5월 16일

(2) 강사 : 김선혜

6) 전주YWCA 조정전문가양성과정

(1) 일시 : 2012년 5월 18, 25일

(2) 강사 : 박수선

7) 과주 YMCA 갈등해결과 조정전문가 양성과정 기초

(1) 기간 : 2012년 5월 31 ~ 6월 15일(15시간)

(2) 장소 : 고하 청소년 문화의집

(3) 강사 : 김선혜, 박수선

(4) 참가자 : 과주 교외지역 교사 등 청소년 관련 활동자 26명

8) 또래조정훈련가 양성과정 (울산지역아동센터)

(1) 기간 : 2012년 6월 15 ~ 16일(15시간)

(2) 장소 : 울산 방과후 아카데미

(3) 강사 : 김선혜, 김영진

(4) 참가자 : 울산지역 아동센터 교사, 센터생 14명

9) 전주YWCA 조정전문가양성과정

(1) 일시 : 2012년 7월 13, 20일

(2) 강사 : 박수선

10) 서울 YMCA ADR 과정 조정실습

(1) 일시 : 2012년 8월 24일

(2) 강사 : 이정순

11) 여성민우회 생협 간부 교육

(1) 일시 : 2012년 8월 29일

(2) 강사 : 김선혜

12) 경기지역 활동가 워크숍 '산동예방과 해결을 위한 소통'

(1) 일시 : 2012년 10월 09일

(2) 강사 : 박수선

13) 경기남부 두레생협 조합원 교육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1) 일시 : 2012년 10/12,19,26일

(2) 강사 : 박인혜, 이덕경

14) 안산YMCA 그루터기 동아리 교육

(1) 기간 : 2012년 10/22,24, 11/5,12,19 (2시간 5회)

(2) 참석자 : 그루터기 동아리 회원 10명

(3) 주제 : 도래조정,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시연실습

(4) 강사 : 박수선

15) 과주YMCA, 갈등해결과 조정 심화프로그램

(1) 기간 : 2012년 11월 22,23,24일 (13시간)

(2) 주제 : 조정기전 연습 및 실습, 조정 서야 넓히기

(3) 강사 : 김선혜, 박수선

16) 기타

(1) 2/15,21,24 (25명)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 김선혜, 여혜숙

(2) 4/3 소년세관장 세미나, 회복적사법과 피해권고 : 박수선

(3) 5/23 경북지방공무원교육원 갈등관리커뮤니케이션 : 김선혜

(4) 5/26, 6/23 시흥시 평생학습센터, 청소년리더십 : 이덕경, 김선혜

(5) 5/29 시대문구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 : 김선혜

(6) 7/2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갈등조정교육 : 김선혜, 여혜숙

(7) 7/17 한국행정연구원, 갈등관리 커뮤니케이션 : 김선혜

(8) 8/24~25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 민주적의사결정과 갈등해결 : 김선혜

(9) 9/13 인천시교육청 도래조정 소개 교육 : 김선혜

(10) 9/14~15 대구 청매단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훈련 : 문경아, 박수선, 여혜숙

(11) 11/21 노원구 원동로합학교 심화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 김선혜

(11) 11/24 경실련 도래조정자 훈련교육 심화과정, 조정실습 : 김선혜

(12) 12/11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 '의사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 : 김선혜

- (13) 12/21 서울시 갈등관리역량강화 교육, '협상과 갈등관리커뮤니케이션'
: 김선혜

6-3. 연구·정책

6-3-1.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해결 경험 워크숍

- 1) 일시 : 2012년 12월 7일 오후 6시 30분
- 2) 장소 :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3) 강사 : 박수진, 이정순

6-3-2. 조례조정시행사업 조례조정 활동 관련 자료개발 및 보급

- 1) 교사용 지도서 및 학생용 워크북 발간
 - (1) 일시 : 2012년 7월 - 2013년 1월
 - (2) 참여 : 김선혜, 박수진, 김영진, 이덕경, 박인혜, 김정수, 명희
 - (3) 내용 : 조례조정과 관련 교사용 지도서, 학생용 워크북

6-4. 연대 사업

6-4-1. 평화교육네트워크

- 1) 회의 : 매월 개최 (3/2, 4/13, 5/4, 6/5, 7/5, 10/9)
- 2) 참석단체 : 평화여성의 갈등해결센터, 한국NVC센터, 비폭력 평화물결, 광명교육연대, KOPI, 개척자들, 푸른
- 3) 내용 : 평화교육 시연, 서울시내 1개 학교 공동 수업 추진 중 (동작교육지원청 담당)
- 4) 참석자 : 김선혜, 김영진

6-4-2. 회복적 정의 네트워크

- 1) 회의 : 매월 혹은 격월로 개최 (4/4, 5/9, 7/2, 9/14, 11/15)
- 2) 참석단체 : 한국NVC센터, 비폭력 평화물결, 광명교육연대, KOPI, 기독교 세진회, 한국기독교교정복지선교회, 하대선, 좋은교사모임, 성공회 평화통일선교위원회
- 3) 내용 : 각 단체별 활동 현황 공유, 하반기 회복적 정의 실천가 대회 개최
- 4) 참석 : 김선혜

6-4-3. 업무협약 체결

- 1) 충남사회복지기업네트워크(이시강 전성화)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 2) 5/1 단국대학교 대학생활상담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

6-4-4. 기타

- 1) 서대문 여성리더 삼삼오오 정례회의 참석 : 김선혜
- 2) 회복적정의 활동가대회
(1) 일시 : 9/21-22
(2) 장소 : 우이동 봉도 수련원
(3) 참가자 : 김선혜, 박수선, 이덕경, 박희진, 여혜숙, 조영희
- 3) 제8회 한국법률가대회, 사회통합과 법의 역할, '회복적 정의'세션
(1) 일시 : 10/23 15:40-18:00
(2) 장소 : 갈레스 호텔
(3) 참석 : 김선혜 토론
- 4) 자기 정부 국책사업 공동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국책사업국민토론회위원회를 중심으로
(1) 일시: 11/1(목) 오전 10-12시
(2) 주최: 김성연
(3) 참석자: 박수선 토론
- 5) 제 13차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연례 학술대회, 제 3분과 폭력 극복, 평화교육과 세계시민성 교육
(1) 일시 : 11/10(토)
(2) 장소 : 경인교육대학교 만양건교소
(3) 사례발표 : 김선혜 (포대조정을 통한 학교평화만들기)
- 6) '아동·청소년 성폭행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
(1) 일시 : 12/18 13:00-17:00
(2)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참석 : 김선혜 (토론)

6-5. 회원 활동

6-5-1. 내부 교육

1) 내부교육(포대조정 강사 트레이닝) 진행

- 1) 기간 : 2012년 3월 24일(토) 오후 3시~8시, 3월 25일(일) 10:00~17:00
- 2) 장소 : 한살림 중서지부 사무실
- 3) 강사 : 박인혜, 이덕경

6-5-2. 포대조정 운영을 위한 집단회의

- 1) 일시 : 2012년 4월 14일(토) 오후 5시~8시
- 2) 장소 :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 3) 참가자 : 김선혜, 김영진, 김정아, 박재산, 이덕경

6-6. 대외활동

6-6-1. 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지역 범민 화해권고위원 활동

- 1) 화해권고위원: 김선혜, 김영진, 김희경, 문경아, 박상희, 박수선, 박인혜, 박재산, 박희진, 여혜숙, 이정순, 이덕경, 이항진, 조영희

6-6-2.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 활동

- 1) 서울시 주거재활센터 갈등조정관: 박수선
- 2) 동작구 갈등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이정순
- 3) 은평구 재건축·재개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김선혜

6-7. 홍보활동

6-7-1. 갈등해결센터 페이스북 계정 개설

- 1) 일시 : 2012년 2월 2일
- 2) 주소 : www.facebook.com/psstoc.org

6-7-2. 방송인터뷰

- 1) 2/6 MBN 뉴스 "차별공심이 아니라 회복적 심리의 학교폭력 해원" : 김선혜
- 2) 6/1 KBS 제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오장군입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부모 역할” : 김선혜

6-7-3. 홈페이지 관리

1) 내용 : 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나 회의 등의 일정 업로드

6-7-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시민교육박람회 참가

1) 일시 및 장소 : 9/11-13, 서울여성플라자 1층

2) 수상 : 장려상

6-8. 도래조정 시범사업

- 도래조정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활동기반 구축사업-

6-8-1. 사업개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도래조정 시범학교 운영을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와 경실련 갈등해소센터가 함께 수행함. 사업 내용은 교사 및 학생 교육, 매뉴얼 개발, 코치 연수와 회의 개최, 권역별 캠프 개최 등 도래조정 사업의 기반 구축을 내용으로 함

6-8-2. 도래조정 시범사업별 추진 일정

1) 도래조정 시범학교 관계자 활동 워크숍

(1) 일시 : 2012년 7월 3일

(2) 장소 : 플라자 호텔

(3) 대상 : 시범학교 관계자

2) 도래조정훈련대뉴얼 개발

(1) 일시 : 2012년 7월 ~ 2013년 1월

(2) 참여 : 김선혜, 박수선, 김영진, 이덕경, 박인혜, 김성수, 명희

(3) 구성 : 교사용 지도서, 학생용 워크북 2종

3) 도래조정 온라인 활동 지원

(1) 기간 : 2012년 7월 ~ 2013년 1월

(2) 주소 : <http://cafe.daum.net/schoolpermediation>

(3) 가입 수: 477명

4) 도래조정 시범학교 교사 직무연수 “도래조정 서포터즈 훈련”

- (1) 7/23~25 기초 1기, 59명 수료
- (2) 8/8~10 기초 2기, 70명 수료
- (3) 8/22~24 심화과정, 73명 수료

5) 도래조정 코치 연수 및 회의 개최

- (1) 제 1차 : 7/1 하이서울유스호스텔, 36명 참석
- (2) 제 2차 : 8/11 대전 장하호텔, 38명 참석
- (3) 제 3차 : 9/15 대전 장하호텔, 14명 참석
- (4) 제 4차 : 권역별 연합캠프준비회의
- (5) 제 5차 : 11/18 대전 장하호텔, 25명 참석

6) 도래조정자 훈련 코치/코치 연수

7) 갈등해결연차 담당 교육 : 강원 4개교, 서울 3개교, 인천 1개교, 전북 4개교

8) 도래조정자 연합 캠프

	일시	캠프 기간
15개 시도	서울/인천/강원	11.28(수)~30(금)
	대구/경북/충청	11.11(금)~13(일)
7개 권역	광주/전남/전북	11.28(수)~30(금)
	부산/경남	11.28(수)~30(금)
지역	대전	11.28(수)~30(금)
	제주	11.18(수)~20(금)
	총합	11.28(수)~11.30(금) : 11,140명(9~17시)

6-8-3. 도래조정 시범사업 실행팀 회의

- 1) 제 1차 : 6/22(금) 10:00 용역 기관 선정시 필요사항 논의
- 2) 제 2차 : 6/26(화) 16:30 전체 사업 설계
- 3) 제 3차 : 7/6(금) 16:00 교육계획 및 사업 추진 일정 협의
- 4) 제 4차 : 7/10(화) 14:00 시범사업 추진현황 점검
- 5) 제 5차 : 8/2(목) 14:00 시범사업 운영 현황 점검
- 6) 제 6차 : 9/3(일) 11:00 시범학교 운영 현황 점검
- 7) 제 7차 : 11/8(목) 14:00 시범사업 운영 현황 점검

6-8-4. 토레조정 시범사업 교재 매뉴얼팀 회의

- 1) 제 1차 : 7/21(토) 15:30 교재 전체 구성 논의
- 2) 제 2차 : 8/2(목) 10:00 활동주제별 내용 검토
- 3) 제 3차 : 8/15(수) 14:00 활동주제별 내용 검토
- 4) 교재 자문회의 : 8/25(토) 17:00 김학욱, 김영제, 유정은, 매뉴얼팀
- 5) 제 4차 : 9/3(일) 13:00 매뉴얼 전체구성, 교재 자문 후 논의키로 함
- 6) 교재 자문회의 : 9/15(토) 11:00 장미라, 박성희, 변영욱, 최영민, 김선혜
- 7) 제 5차 : 9/16(일) 16:00 자문의견 반영후 교재 재구성 논의
- 8) 제 6차 : 10/3(수) 13:00 교재 재구성 및 내용 보완, 워크북 구성 논의
- 9) 교재 자문 : 9/11~20 교사 자문
(고영희, 김선경, 김동현, 박재근, 이영미, 임성규, 장경애)
- 10) 제 7차 : 10/21(일) 15:30 워크북 구성 검토
- 11) 교재 자문 : 12/26~30 교사 자문 (박필너, 조금주, 홍말숙)

6-9. 평가

1) 학교·지역 평화커뮤니티

- 시범사업 이후 학생교육뿐만 아니라 교사교육, 학부모교육도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남남해결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 작년엔 교육했던 학교에서 다시 교육의뢰가 들어온 경우가 여러 건 있었고, 이는 센터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 사업영역이 대외적으로 확장되었다.
- 토레조정을 학생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다.

2) 토레조정 교육

- 우리 단체의 토레조정교육이 선도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교육 내용과 매뉴얼이 정교하고 우수하다. 우리 단체 프로그램의 고유화, 차별화(브랜딩) 할 필요가 있다.
- 학교 현실이 토레조정만 운영보다는 교육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현실적으로 토레조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3) 연구분야

- 시범사업으로 토레조정매뉴얼을 발간한 것은 그간 활동을 정리하고 자료

화한 의미가 있다.

- 또래조정을 제외한 다른 연구 활동이 미약했다. 정책화활동에 주력할 인적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4) 범원 RI활동

- 회복적정의 확대에 센터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수도권지역을 리드하였다.
- 화해권고위원들간의 개별적 활동은 많지만 모임을 통한 공유는 미흡했다. 개인적 정보 교환과 경위 교류 외에도 활동의 조직적 수렴이 필요하다.
- 회복적정의 확산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활동 매뉴얼 연구, 양질의 경향 등이 필요하다.

5) 홈페이지

- 자료가 적고 새 소식이 눈에 띄게 올라오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는 느낌이 든다.
-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다양하게 업데이트되고 활성화되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7. 연대 및 협력사업

7-1. 국내 상설연대

7-1-1 한국여성단체연합

1) 제26차 총회 및 정책토론회: 2012년 1월 9일(월)~10일(화), 서울여성플라자 1층

(1) 대의권 : 여혜숙(당연직), 김경수, 김선희

(2) 총회준비위, 예결위원회 참석 : 여혜숙(여연 통일평화위원장)

2) 이사회 (참석: 여혜숙)

(1) 제 2차

○ 일시 및 장소 : 5/10 (목) 11:00~13: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안건 : 여성단체연합의 연대방향에 대하여, 4.11총선 평가 외

(2) 제 3차

○ 일시 및 장소 : 8/30(목) - 31(금), 진남 광장 '토부' (참석: 여혜숙, 최연정)

○ 정책포의 : 차기정부 성평등정책 방향과 추진기구 개편방안 마련 워크숍, 여성연합 2012 대선 대응 전략 수립 워크숍

(3) 제 4차

○ 일시 및 장소 : 11/15 (목) 14:00~17:00 여성미래센터 3층 소동방

○ 안건: 성평등정책 추진기구 개편 관련 논의의 건, 9월~11월 사업계획 심의의 건, 2013년 제27차 정기총회 준비의 건, 2012년 정기이사회 평가 및 2013년도 이사회 운영방안 논의의 건, 불안해소프로젝트 건

(4) 2013년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 및 장소: 12/27(목) 11:00~18:00 여성미래센터 4층 평화방

○ 안건: 2012년 사업기조(사업방향,조직방향) 평가(안) 검토, 2012년 사업평가(안)검토, 신규회원과 회원단체 정비의 건, 2013년 3.8여성대회 논의의 건, 2013년도 사업기조 및 사업계획(안)에 대한 논의의 건, 2012-2013 예-결산(안) 심의의 건, 제27차 정기총회 결산

3) 정책위원회 (참석: 여혜숙)

(1) 임시정책위원회

○ 일시 및 장소: 5월 10일(목) 10:00~11: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안건 : 여연의 연대방향에 대한 회원단체의 의견 수렴 회

(2) 제 3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10월 24일(수) 9:00-11:00 여성미래센터 5층 회의실
- 안건 : 차기정부 성평등정책 추진기구 개편방안 후속논의, 여성연합 대선 사업 진행 상황 공유 및 논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검토의견, 2013년도 여성관련 예산안 대응

4) 사무국장 연석회의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5월 30일(목) ~ 6월 1일(금), 제주 절물휴양당
- (2) 참석 : 김지호
- (3) 내용 : 2012 여성운동 아카데미
 - 여성당대표 시대, 여성정치인의 리더십
 - 컨퍼런스 등 담론 확산을 위하여
 - 고급 언론의 독설과 표현의 자유, 세슈얼리티

5) 제3회 3.8 여성대회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3월 10일(토) 11:00-16:00, 시청광장
- (2) 참석 : 김성은 이사장 외 14명 참가
- (3) 활동 : 평화여성회 부스 설치

6) 총선 대응 활동

- (1) 2012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 대표자회의
 - 일시 : 2012년 2월 29일(수) 11:00-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1층 소회의실
 - 참석 : 여혜숙
 - 안건 : 경과보고, 조직구성(안)확정, 사업계획(안)확정, 발족기자회견 프로그람 점검
- (2) 2012 총·대선 대비 컨퍼런스 리뉴얼 사업 워크숍
 - 제 4차 : 1/19(목) 14:00-,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제 5차 : 2/16(목) 15:00-,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참석 : 정경란
- (3) 4.11 총선대응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기획위원회+지방정치위원회 연석회의
 - 일시 및 장소 : 2/2(목) 13:30-15:30,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참석 : 여혜숙

- 안건 : 회원단체 상황공유, 4.11 총선 관련 시민사회 흐름 공유, 여성연합 4.11 총선대응 전략 논의
- (4) 총선대응 권대정책 입장문서 마련 및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2년 3월 8일(목) 10:00~13:00, 여의도 이룸센터
 - 총선대응 권대정책 입장문서 평화통일분야작성 : 정경란
 - 참석 : 여혜숙, 정경란, 최안진경, 최민정
- (5) 2012 여성 투표행동 '퍼플파티' 선거캠페인 퍼포먼스 참여
 - 일시 및 장소 : 2012년 3월 28일(수) 12:00~12:30, 세종문화회관 저단
 - 참석 : 김정수, 김지호, 여혜숙, 최민정
- (6) 권대정책 리뉴얼사업 (2011~2012 지속사업- 정경란 참석)
 - 제4차 워크숍 : 1/19(목) 오후 2시,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제5차 워크숍 : 2/16(목) 오후 3시,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제6차 워크숍 : 2/22(목) 오후 3시,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7) 4.11총선 여성공천 결과 분석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2년 5월 10일(목) 14:00~17:00, 국회도서관 사회의실
 - 참석 : 여혜숙, 최민정
- 7) 새누리당 김형태 성추행의원 제명 촉구 관련 행동
 - (1) 4/18 기자회견 (김지호, 여혜숙)
 - (2) 5/9 12:00 김형태 의원직 사퇴요구 1인 시위 (국회정문 앞-김지호, 최민정)
 - (3) 5/30 김형태 제명촉구 기자회견 (새누리당사 앞-여혜숙, 최민정)
 - (4) 8/16 12:00 김형태 제명촉구 1인 시위 (국회정문 앞-최민정, 정차람)
- 8) '실명등 국회 실현을 위한 의원-여성단체 정책네트워크' 준비간담회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5월 7일(월) 14:00~16:00, 여성미래센터 소동방
 - (2) 참석 : 정경란(발표), 여혜숙, 김정수
- 9) 대선 대응 활동
 - (1) 2012 대선전략 마련을 위한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2012년 7월 18일(수) 14:00~17:30, 여성미래센터 소동방
 - 참석 : 김정수, 최민정
 - 내용 : 대선대응방향, 여성에게 권력수립, 여권 후보 정책대응, 여성연합 대응팀구성

(2) 불안해소프로젝트

- 실무자 회의 (참석: 최민정)
 - 제 1차 : 8/23 13:00~15:00 대선대응 방향 논의
 - 제 2차 : 9/19 10:00~12:30 불안해소프로젝트 '여성유권자 1000인의 불안정위' 구체화
 - 제 3차 : 9/19 16:00~18:00 불안해소프로젝트 2차 계획 논의
- 불안해소프로젝트 '여성유권자 1000인의 불안정위'
 - 취지 : 늘 해왔던 대안 중심의 요구 대신, 2012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가장 공감하는 정서를 갖고 여성의 문제를 부각, 2012대선, 여성유권자의 키워드 "불안", 이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
 - 참여 : 김지호, 여해숙, 최민정
 - 창회원권 : 22명
- 2012 대선 불안해소 프로젝트 "여성유권자, 대한민국의 불안을 말하다" 소책자 발행, 회원들에게 배포 (12월)

(3) 박근혜 대선후보 대응활동

- 박근혜 후보 연구를 위한 비공개 내부간담회
 - 배경 :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박근혜 내외가 선정됨. '한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명명의 의미를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어떻게 파악하는지 논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9/5 1차 모임, 11/5 2차 모임

(4) 김여진 & 강금실 <생명의 정치> 북파티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17일 12:00~13:30, 정동 카페 산 대미야노
- 초청자 : 강금실, 김여진, 권인숙
- 참석 : 최민정
- 내용 : 브런치 북파티 (여성, 여성성, 젠더란 무엇인가/ 수평적네트워크란 무엇인가/ 군사주의와 유권정권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7-1-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 신년회례회

- (1) 일시 : 2012년 1월 4일(수) 14:00~15:30

(2)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3) 참석 : 여해숙

2) 시민평화포럼

(1) 총회

○ 일시 : 2012년 2월 8일 12:00

○ 내용 :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에 정경란 정책위원장 선임

(2) 6·15공동선언 기념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2년 6월 12일(화) 13:30, 김대중도서관

○ 참석 : 김정수, 정경란

(3) 평화통일 대선의제 준비-평화통일교육분야

○ 일시 및 장소 : 2012년 6월 21일(목) 15:00~17:00, 세교연구소

○ 참석 : 김정수(말제), 여해숙, 정경란, 최민정

3) 2012교육개혁 100인 위원회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5월 30일(수) 18:30~21:00, 카톨릭청년회관 5층강당,

(2) 참석 : 여해숙

(3) 안건 : 대선 10대 교육공약 선정

4) 500인 원탁토론회 '시민, 대선을 논하다'

(1) 퍼실리테이터 교육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30일(수) 14:00~18:00, 홍사단 3층 강당

○ 참석 : 명희, 최민정

(2) 본 행사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13일(화) 16:00~22:00, 그랜드컨벤션센터

○ 참석 : 최민정(퍼실리테이터), 김지호, 명희, 여해숙

7-1-3. 민족회해협력법국민협의회

1) 대의원총회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15일(수) 14:00~15:30, 백범기념관

(2) 참석 : 여해숙, 김지호

2) 집행위원회

(1) 1/16(월) 17:00~18:30 민회회의이실

- (2) 2/7(화) 15:00~22:00 행주산성, 사업정 책토론회
- (3) 6/18(일) 12:30~14:00 민화협회회의실,
회의위원회 방문행사, 통일문화축제 등 논의
- (4) 10/25(목) 12:00~13:30 민화협회회의실, 2012년 잔여 사업 논의
- (5) 12/20(목) 17:00~18:00 민화협회회의실,
2013년도 주요 추진 과제(안) 검토의 건

3) 여성위원회 회의 (위원장 : 여혜숙)

- (1) 제1차 : 4/4(수) 10:30~2:00 소속단체 활동공유와 상반기 사업계획
- (2) 제2차 : 9/7(금) 10:30~13:00 소속단체 활동공유와 여성통일포럼 논의

4) 여성평화 통일포럼

- (1) 일시 : 2012년 5월 9일(수) 14:00~16:00.
-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3) 주제 : 공동형 ID가 만난 북한 사람들- 북한 주민의 삶, 사회 그리고 통일
- (4) 참석 : 여혜숙(사회), 최민정

5) 여성통일포럼

- (1) 일시 : 2012년 10월 17일(수)-18(목)
- (2) 장소 : 과주·연천·일원기행
- (3)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 진행 : 여혜숙
- (4) 참석 : 김지호, 여혜숙

6) 제18대 대통령 후보 통일·외교정책 책임자 초청토론회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7일(수) 14:00~17:00, 태영 T-아트리움
- (2) 각계의견 발표 및 토론 : 여혜숙
- (3) 참석 : 여혜숙, 최민정

7) 2012 통일교육포럼

- (1) 일시 : 2012년 11월 15일(목) 10:30~13:00
- (2) 장소 : 뉴욕제호텔 15층 두메라룸
- (3) 지정토론 : 김정수
- (4) 참석 : 김정수, 최민정

8) 남북교류간담회

(1) 일시 : 2012년 11월 20일 10:30~13:00

(2) 참석 : 정경란

7-1-4.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및 여성분부

1)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 : 여혜숙, 공동집행위원장 : 정경란)

(1) 총회

(2) 운영위원회 (참석 : 여혜숙)

○ 임시운영위원회 : 4/10(화) 15:00 민화협사무실,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 개최의 건

○ 운영위원회 간담회 : 12/21(금) 13:00~14:00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5기 1차년도 총회 일정 및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논의

(3) 상임운영위원회 (참석 : 정경란)

○ 3/21(수) 16:00 민화협, 9차 상임운영위

○ 3/27(화) 16:00 민화협, 10차 상임운영위

○ 4/10(화) 16:00, 11차 상임운영위

○ 5/16(수) 14:30 민화협, 상임운영위 간담회

○ 7/25(수) 14:00 민화협, 12차 상임운영위

○ 9/21(금) 11:00 민화협, 13차 상임운영위

(4) 운영위원회 (참석 : 정경란)

○ 4/10(화) 15:00 민화협, 5차 운영위원회

○ 12/21(금) 15:00 민화협, 운영위원회 간담회

(5) 집행위원회 (참석 : 정경란)

○ 8/2(목) 15:00 민주노총, 5차 집행위원회

○ 9/4(화) 13:0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 워크숍

(6) 공동집행위원장단회의 (참석 : 정경란)

○ 5/10(목) 10:00 민화협, 공동집행위원장단회의

○ 8/24(금) 15:00 민화협, 공동집행위원장단회의

○ 9/12(수) 11:00 민화협, 공동집행위원장단회의

○ 10/9(화) 10:00 민화협, 공동집행위원장단회의

○ 10/16(화) 14:00 민화협, 공동집행위원장단회의

○ 12/20(목) 13:00 민화협, 공동집행위원장단회의

(7) 6.15 북측위원회와 회의

- 일시 및 장소 : 2/9~10, 중국 선양
- 참석 : 정경란

(8) 5.24조치 2년,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국제 평화회의

- 일시 및 장소 : 5/24(목) 오전 10시 국회 본청 귀빈석당
- 참석 : 여혜숙, 정경란

(9) 6-15공동선언 12주년 기념식 및 사극회의

- 일시 및 장소 : 6/15(금) 11:00~12:00 조계사 불교학제회의장
- 참석 : 여혜숙, 정경란

(10) 광복 67주년, 한일군사협정 지지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통일범국민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2년 8월 12일(일) 11:00, 서울광장
- 참석 : 여혜숙(결의문 낭독), 정경란

(11) 10.4선언 발표 5주년 기념식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4일(목) 11:00,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참석 : 여혜숙, 정경란

2) 여성분부 (공동대표 : 여혜숙, 공동집행위원장 : 정경란)

(1) 1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12년 1월 13일 11:00,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 참가 : 여혜숙, 정경란

(2) 2차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23일 11:00,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 참가 : 여혜숙, 정경란

(3) 총회

- 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28일 12:00, 여성미래센터 소풍방
- 참가 : 여혜숙, 정경란

7-1-5. 한국장신대문제대책협의회

1) 총회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14일(화) 15:00~17:30, 정대할 사무실
- (2) 참석 : 여혜숙

2) 1014회 수요시위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3월 21일(수) 12:00~13:00, 일본대사관 앞
- (2) 참석 : 이권명희(사회), 정경란(성명서 낭독), 최민정(성명서 작성) 김은희, 김정수, 김지호, 양승광, 여혜숙, 최안진경 (총9명)

3) 광복67주년 기념 수요시위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8월 15일(수) 12:00~13:00, 일본대사관 앞
- (2) 참석 : 김성은, 김정수, 김지호, 여혜숙, 정경란, 최민정 (총5명)

4) 제1045차 장대협 수요시위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10월 24일 12:00~12:40, 일본대사관 앞
- (2) 참석 : 이권명희(사회), 최민정(성명서작성 및 낭독), 여혜숙, 김지호, 정차림 (총5명)

7-1-6.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 정경란)

1) 총회

- (1) 일시 : 2012년 2월 8일 12:00
- (2) 내용: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에 정경란 정채위원장 선임

2) 6·15공동선언 기념토론회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6월 12일(화) 13:30, 김대중도서관
- (2) 참석: 김정수, 정경란

3) 평화통일 대신의제 준비-평화통일교육분야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6월 21일(목) 15:00~17:00, 세교연구소
- (2) 참석: 김정수(말제), 여혜숙, 정경란, 최민정

7-1-7. 2012 동북아여성평화회의 (2-8 참조)

7-1-8. 이우정 평화장학위원회

1) 회의 (참석 : 여혜숙)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5월4일(금) 10:30~11:30, 프레스센터 카페베네
- (2) 안건 : 2012년 이우정평화장학금 수여자 선정 (동명숙)

2) 이우정평화장학금 시상식 및 10주기 기념예배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5월 30일(수) 18:00-20:30, 기독교회관 2층
- (2) 참석 : 김정수, 여혜숙, 윤수경, 정경란, 정현택, 최안진경

3) 이우정평전 출판기념회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12월 13일(목) 16:00~17:13, 기독교회관 2층
- (2) 참석 : 김성은, 윤수경, 정현택, 김정수, 여혜숙, 최안진경

7-2. 국내 사안별 연대

7-2-1 인도적 대북지원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 (참석 : 김정수)

1) 운영위원회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매일 1-2회, 평화3000 사무실
- (2) 내용 : 각 단체의 지원현황, 남북관계 정세에 대한 공유, 12월 대선을 맞이하여 각 당의 대선후보에게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책제안을 전달하는 활동

7-2-2 핵안보 정상회의 대항행동

1) 제1차 대표자회의

- (1) 일시 : 2102년 2월15일(수) 10:00-11:00
- (2)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사무실
- (2) 사회 : 여혜숙
- (3) 안건 : 경과보고, 안건: 김영희제논의, 분담금 납부 결의

7-2-3. 탈핵운동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탈핵여성모임 회 (2-7 참조)

7-2-4.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회의

1) 제 4차 대표자회의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1월 31일(화) 10:00-11:00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2) 참석 : 여혜숙
- (3) 안건 : 활동보고와 향후계획 공유

2) 연석회의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3월 7일(수) 9:30-11:00

(2)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기자회견장

(3) 참석 : 여혜숙

3) 강정 촛불집회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3월 8일(목) 19:00-20:30, 청계광장

(2) 참석 : 여혜숙 (발언)

4) 구럼비발과 반대 3/30일자 한겨레신문광고 참여

(1) 신문광고참여지 명단(23명)

김민화(5만), 고성기, 김신혜, 김영진, 김정아, 김지호, 김정수, 김현희, 남미영, 박희진, 심희경, 손은정, 양난희, 이정순, 이권영희, 이덕경, 이진희, 이상영, 이상호, 이혜숙, 정경란, 조영희, 한상근, 최안진경

5) 제10차 제주도 해군기지 갈등해결을 위한 연석회의, 김중의 날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3월 31일(토), 제주 갈매마을

(2) 평화선언문 낭독 : 여혜숙

6) 강정마을 평화대행진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7월 30일(월)-8월 5일(토), 제주도

(2) 전체참여 : 이은영 회원 가족(4명), 부분참여 : 여혜숙, 조영희

7) 생명 평화대행진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11월 3일(토) 18:00, 서울시청광장

(2) 참석 : 여혜숙, 최민경

7-3. 기타 연대사업

1) 여성가족부 신년 여성정책 간담회

(1) 일시 : 2012년 2월 10일(금) 11:00-13:30

(2) 장소 :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

(3) 참석 : 여혜숙

2) 한국YWCA '우리학교는 평화Y파이 ZONE' 자문위원회 (참석 : 여혜숙)

(1) 제1차 : 5/10(목) 16:30-18:30, 한국YWCA 회의실

(2) 제2차 : 11/20(화) 10:00-12:00, 한국YWCA 회의실

3) 민주통합당 정책연구원 청년프로그램 기획 간담회

- (1) 일시 : 2012년 5월11일(금) 10:00-12:00
- (2) 장소 : 민주통합당 당사 연구원 회의실
- (2) 참석 : 여혜숙

4) SAFE 회의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4월 20일 19:00~22:00 평화박물관 교육장
- (2) 참석 : 여혜숙, 최민정
- (3) 내용 : - Living along the fence line 영화 본 후 감상 나누기
- "안정애, 푸에르토리코에 가다" 국제회의 참관 발표회
- SAFE 회의
: 푸에르토리코 회의 내용과 SAFE 활동 방향 논의

5) 서울시 원전1개 줄이기 시민위원회 위촉식 & 회의

- (1) 일시 : 2012년 4월 25일
- (2) 참석 : 김정수

6) 서울시 공리지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여혜숙)

- (1) 일시 : 1/6(금) 15:00, 4/13(금) 11:00, 9/28(금) 11:00

7) 언론희망캠프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5월19일, 여의도
- (2) 참석 : 여혜숙, 최민정

8) 2012 강정마을 생명평화마을활동가대회

- (1) 일시 및 장소 : 5/30-6/2, 제주도 강정마을
- (2) 참석 : 최민정, 김지호(6/2)
- (3) 내용 : 전세 전망 및 분야별 활동전략 모색

9) GPPAC 성명서 발표

- (1) 일시 : 2012년 7월 5일
- (2) 제목 : 무장감동에방국제네트워크 동북아시아 지역운영위원회 참가를희망
의 성명서
- (3) 연대 : 참여연대, 평화통일드림여성회

- 10) 남북 무역증진 방안을 위한 비상 반전평화 대책회의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5월 4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2) 참석 : 정경관
 (3) 내용 : 남북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 차원에서 공동대응을 모색

11) V-day 대한민국여성축제

- (1) 일시 및 장소 : 2012년 10월 10일(수) 17:00~20:00, 서울광장
 (2) 주최 : 대한민국 여성축제 조직위원회
 (3) 주관 : (사)문화세상 이프드피아
 (4) 단세소개 및 발언, 시민발언 'V를 말하다' : 최민정
 (5) 참석 : 김지호, 최민정
 (6) 프로그램 : 시민참여 코스를 플레이, 'V'를말하다, 체험부스, 공연

12) 정전 60주년 공동행동 모색전략회의

- (1) 일시 : 2012년 11월28일(수) 오전 10시 30분
 (2) 장소 : 참여연대 3층중회의실
 (3) 참석 : 미국친우봉사회, 전쟁반대필리핀행동, 피스보드 활동가등 해외활동가, 국내 평화단체 활동가, 평어-정경관, 최민정
 (4) 내용 : 각 단위/단체별 진행 중인 사업 공유, 정전60주년 공동행동 모색

13) 통일부 남북여성교류 발전방안 연구

- (1) 참가 : 정경관
 (2) 내용 :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남북여성교류의 발전방안을 남북여성교류 현황, 성과와 한계, 발전방향과 발전단계별 방안을 연구함

7-4 국외 연대

7-4-1 GPPAC 연대 활동

1) GPPAC 동북아시아 설명서 발표

- (1) 일시 : 2012년 7월 8일
 (2) 내용 : 평화롭고안드러여성회 활동가 참가 불리한 한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는 설명서 발표. 2012년 7월 6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무장갈등예방유위한국제네트워크(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동북아시아 지역운영위

원회(GPPAC 동북아운영위)가 한국정부가 평화활동가 정경란(평화를 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장)의 북한주민검속 신고를 수리 거부함에 따라 동북아지역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것에 대한 성명을 발표함.

2)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공개토론 대응 GPPAC 젠더 포컬포인트 뉴욕방문 (2-5 참조)

3) Civil Society Recommendations to UN member States and UN Security Council in advance of the 2012 Open Debate 연명 (2-5 참조)

7-4-2.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분쟁과 분쟁이후 여성인권여 대한 아태지역 협의의 참가 (2-5 참조)

7-4-3. 'Declaration by Three Hundred Eleven Representatives for A Nuclear Free East Asia' (2-7 참조)

2012년 결산보고

임원 인선안

임원 인선안

공동대표 1인, 이사2인, 감사 2인,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1인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I. 경과

1) 2013. 1. 7(월), 제17차(제18차) 정기총회 제3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2012년 말도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 하는 이사 및 감사 현황을 정리하고 이들을 선출하기 위한 인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근거: 본회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2항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구성: 이사 2인 -조영희(위원장), 박유희, 운영위원-최안진경, 김영진, 김선혜, 추천하는 2인-이권영희, 이덕경

2) 제1차 인선위원회

- 일시: 2013. 1. 7.(월) 17:00
- 참석: 조영희(위원장), 박유희(이사) 김선혜, 김영진, 이덕경
- 논의결과:
 - (1) 공동대표 1인 추가: 정경란
 - (2) 사임: 진은주 이사, 윤수경 이사, 권현미 사업감사
 - (3) 임기 만료: 한국영 회계감사
 - (4) 이사추천: 권점옥, 이나영, 윤경원, 정경란(공동대표 당연직)
사업감사: 락뽀 쪽에 알아보기로

3) 제2차 인선위원회

- 일시: 2013. 1. 18(금) 15:00
- 참석: 조영희(위원장), 김선혜, 김영진, 이권영희, 이덕경
- 논의결과:
 - (1) 이사추천 확정: 권점옥, 이나영
 - (2) 사업감사: 레알씨 변호사, 회계감사: 윤수경

2. 인선(안)

구분	2012년 현재	임 기	비 고	인선(안) (필요 후보)
이사회	김성훈(이사장)	2012~2014(3년)	해당없음	
	김신태	2012~2014(3년)	해당없음	
	김정수	2011~2013(3년)	해당없음	
	김지영	2012~2014(3년)	해당없음	
	박유희	2012~2014(3년)	해당없음	
	이혜숙	2011~2013(3년)	해당없음	
	윤수정	2011~2013(3년)	사임	
	이근호	2011~2013(3년)	해당없음	
	권은수	2012~2014(3년)	사임	
	정경란	2012~2014(3년)	해당없음	
	정현백	2011~2013(3년)	해당없음	
	조영희	2011~2013(3년)	해당없음	
	한정숙	2012~2014(3년)	해당없음	
최순옥	2012~2014(3년)	해당없음	권정옥 이나영 정경란(차연락)	
공공대표	이혜숙	2011~2013(3년)	해당없음	
	김정수	2011~2013(3년)	해당없음	
관 사	최재하씨 한국원	2013~2015(3년)	신임	정경란
	이영근씨 진선기	2010~2012(3년)	임기만료	윤수정
무임 당률해고센터	소장 김선애	2012~2014(3년)		백상희
장 로 위 원 회	위원장 정경란	2012~2013(3년)	임원	정경란
국제합의위원회				공석
무임 전국여성 성화연구원		2013~2015(3년)	신임	김정수

2013년 사업계획안

I. 2013년 사업방향안

II. 2013년 사업계획안



I. 2013년 사업기조와 방향(안)

2013년 평화통일만드는여성회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60년과 동아시아 정치적 지도력의 교체 등 국내외적으로 변화된 정치외교적 상황과 조건 속에서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여성들의 평화형성 역할을 강화하여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올해는 남북한을 비롯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각국 정치적 리더십 교체가 완성된 전환의 시기다. 이러한 정치적 리더십의 교체와 전환이 평화와 안정으로 가기 보다는 최근 몇 년 동안 심화된 영토분쟁, 역사논쟁, 패권경쟁으로 인해 각국의 이해가 서로 엇갈리고 충돌할 가능성으로 인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도전이 예상된다.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6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60년 동안 부침을 거듭한 불안정한 남북관계와 경제적 위기의 심화로 인해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도 점차 약화되고 평화 보다는 안보를 선택하는 보수적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분단 60년 동안 남남관계는 더욱 심화되고 사회평화 역시 학교폭력을 비롯하여 평화적 갈등해결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는 극심한 파탄을 경험하였고,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시민사회는 정세적 한계에 부딪혀 좌절을 경험하였다.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는 60년이나 지속되는 정권 상대를 이겨내 풍식시키고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013년 평화여성회는 60년 정전체제가 여성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여성들이 평화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통일사회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외교·안보 영역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이 분단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로서 평화를 염원하지만 동시에 통일의식과 보수적 안보관을 가진 현실에서 여성 대중과 함께 소통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장키는 대중적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60년의 정권 체제와 역대 정부의 내북정책·통일정책이 여성에게 전정한 평화와 안보, 행복과 안전을 가져다 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들이 바라는 평화통일 미래에 대한 정책적 비전과 담론을 제시한다. 둘째, 여성 대중과 세대를 넘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평화통일 사업을 개발하고 진행하고자 한다. 셋째,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평화와 젠더 관점이 반영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여성시민사회의 역량개발, 민관협력의 파트너십 구축, 저비즈니스의 모델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 '통일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와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연안보리선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을 채택한 점이 비취볼 때 더욱 시의 적절하다. 넷째, 우리 사회와 학교에서 비폭력 평화문화를 형성하고 지역 사회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화적 기반 조성과 평화 커뮤니티를 확산하기 위해 토대조성과 회복적 정의 등 다양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자료 제작과 보급, 지역사회카의 연대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올해도 10년을 맞은 갈등해결센터의 시간의 활동을 되돌아 보고 더욱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평화여성회는 최근 수년간 조직 발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온 결과 2012년 총회에서 갈등해결센터가 부설기구로 전환되었고, 또 2013년에는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활동을 재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올해는 내부적으로 평화여성회 전체 조직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동시에 정권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을 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침으로써 여성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

II. 2013년 사업계획(안)

1. 조직사업

1-1. 회의

1-1-1. 총회

- 1) 역할 :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구성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3) 내용 : 2013년 사업계획 수립, 공동대표 및 임원 선출 등

1-1-2. 이사회

- 1) 역할 :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재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

1-1-3. 운영위원회

- 1) 역할 :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각 센터 및 위원회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부설기구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1-1-4. 사무국회의

- 1) 역할 :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 2) 구성 :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1-2. 위원회

1-2-1. 정책위원회

- 1) 역할 :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여성평화·통일운동의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조정한다.
- 2) 구성
 - (1) 위원장: 정경란
 - (2) 위 원: 김성은, 김정수, 박현선, 안정애, 여희숙, 조영희, 최민정
- 3) 사업
 - (1) 정전 60주년 대응을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정책 관련 대응: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안보개념 정립 모색 및 연대활동 모색
 - (2)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영역 정책분석 & 평가: 정책평가(토론)회 등
 - (3)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와 파트너십 구축
 - 한국여성재단에 제출한 역량강화 프로젝트 진행
 - 1325호 여성네트워킹 조직
 - 소책자 발간
 - (4) 정례회의 및 세미나: 정책동향 점검 및 정책위에 필요한 사안 세미나 등

1-2-2. 국제협력위원회 : 2013년에는 구성하지 않음

1-3. 부설기관

1-3-1. 갈등해결센터

- 1) 역할 :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를 적용하는 실천 활동을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2) 구성

(1) 소장: 김선혜

(2) 운영위원회: 김선혜, 김영진, 김정아, 김지호, 박인혜, 박재산, 이경순, 이덕경, 조영희

1-3-2.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 역할: 여성평화주의 관점에서 본회의 활동에 대한 이론적 지원, 견제와 평화에 대한 연구, 여성평화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정리 등을 통해 여성들의 평화·통일운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1) 원장:

(2) 연구위원: 안경애, 조영희, 한정숙

2. 평화·통일 사업

2-1.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활동

동아시아의 경제 환경 등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조직하고 실천한다.

- 1) 군사비 감축 활동: 군사비 동결 세계행동의 날 공동행동, 5.24 세계평화와 군축을 위한 여성의 날 평화행동
- 2) 정전협정 60주년 대응 활동
- 3)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운동 개발 및 실천
- 4)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평화적 관점의 통일, 외교, 안보분야 정책분석 활동

2-2.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활동

- 1)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네트워크 구성
- 2) 워크숍, 공개토론회
- 3) 1325호 국가행동계획 채택한 필리핀 조사 방문
- 4)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 5) 소책자 발간

2-3. 남북여성협력사업

남북여성이 함께 살기 위하여 남북여성연대 차원에서 북한여성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

1) 북한여성과 함께 미역국 먹기 등 (가칭)

여성 관련하여 꾸준히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척하여 모아진 후원금을 6개월에 한 번씩 모아서 후원. 자기 생일이나 가족 생일에 후원하도록 홍보하고 평화여성회에서는 후원금 보낸 사람에게 생일카드 보내드리기

2-4. 책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반책, 탈원전 활동

3. 정보·홍보 사업

- 1) 홈페이지 관리, SNS 평화활동 등
- 2) 소식지 발행
- 3) 정기 메일을 통해 분 회 소식을 전달

4. 회원 사업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모임을 진행한다.

- 1) 회원마당
- 2) 영화모임

5. 재정 사업

- 1) 꽃감판대 등

6.부설기구 사업

6-1. 갈등해결센터

평화적인 갈등해결 확산을 위하여 교육·조정·설원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갈등해결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접근과 대중화에 힘쓴다.

1) 학교평화커뮤니티 사업

- (1) 학교별 평화커뮤니티 사업: 평화교육, 모래조형, 가해자-피해자 대화모임을 학교별로 코디네이터가 추진(연간)
- (2) 청소년 평화리더십 캠프
- (3) 평화교육, 회복적 학생지도 등 정책화 활동(연간)

2) 지역평화커뮤니티 사업

- (1)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을 위한 강사트레이닝
- (2) 진행전문가 훈련
- (3) 조정전문가 훈련
- (4) 회복적 정의
 - 회복적 정의 조정전문가 훈련 : 2013년 2월 22,23일, 3월 8,9일
 - 화해권고 사례연구모임
- (5) 지역사회 평화문화 확산 및 지원활동

3) 연구-정책

- (1) 회복적 정의의 현장 적용 현황과 방향
- (2) 갈등해결교육의 현황과 방향
- (3) 사회갈등 영역: 갈등관련 위원회 조례 조사 활동

4) 연대사업

- (1) 회복적 정의 시민사회네트워크
- (2) 평화교육네트워크
- (3) 사안별 연대 추진

5) 회원활동

- (1) 학습 소모임
 - 제10기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 후속모임
 - 학습 모임 운영
- (2) 회원 만남의 날
- (3) 회원 소식 나눔의 정리화

6) 홍보활동

(1) 홈페이지 관리 및 언론을 이용한 일상적 사업 홍보

7) 공동해결센터 10주년 기념 사업

6-2.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 연구위원회 회의 (필요시)

2) 출판

(1) <한국여성평화운동사> 개정판과 <여성평화> 발행을 위한 준비

3) 프로그램

(1) 학술토론회(안)

○ “경전철정 60년, 여성·평화·안보에 대해 질문하다”

○ <여성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2) 여성평화포럼 : 여성과 평화·안보·군사주의에 대한 담론형성의 장 마련

4) 기타 :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7. 연대 및 협력사업

7-1. 국내 상설연대

1) 한국여성단체연합 : 총회, 이사회, 통일평화위원회(임원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조직·교육위원회, 사무국장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대의원총회, 수요시위 연 2회 주관 및 참석

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집행위원회

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표자회의, 시민평화포럼

7-2. 국내 사안별 연대

- 1)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
- 2) 핵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 3) 제주도 해군기지건설반대 전국대책위원회

7-3. 국제연대

- 1) GPPAC
- 2) Women Peacemaker Program

7-4. 협력사업

- 1) 대전평화여성회

2013년 예산안

2013년 예산안

1.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13년 예산안 회계기간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출납예산계획							
수입부				지출부			
관	항	목	예산	관	항	목	예산
일반 회계	보통회계	보통회계	2,212,000	일반회계	보통회계	보통회계	1,822,000
		회수금	1,000,000			회수금	2,000,000
		기타수입	1,212,000			기타수입	2,000,000
		기타수입	1,212,000			기타수입	2,000,000
		기타수입	1,212,000			기타수입	2,000,000
		기타수입	1,212,000			기타수입	2,000,000
		기타수입	1,212,000			기타수입	2,000,000
		기타수입	1,212,000			기타수입	2,000,000
		기타수입	1,212,000			기타수입	2,000,000
		기타수입	1,212,000			기타수입	2,000,000
		기타수입	1,212,000			기타수입	2,000,000
		기타수입	1,212,000			기타수입	2,000,000
		기타수입	1,212,000			기타수입	2,000,000
		기타수입	1,212,000			기타수입	2,000,000
		소계	31,130,000			소계	31,130,000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13,000,000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13,000,000
		특별회계	13,000,000			특별회계	13,000,000
		소계	13,000,000			소계	13,000,000
총계	164,130,000	총계	164,130,000				

2. 부설 갈등해결센터

부설갈등해결센터 2013년 예산안								
회계기간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출발 예산 보고								
수입부				지출부				
과목	항목	단위	예산	과목	항목	단위	예산	
일반 회계	사무실행	사무실행	인건비	1,000,000	일반회계	사무실행	인건비	1,000,000
			사무실행	1,000,000			사무실행	1,000,000
			사무실행	1,000,000			사무실행	1,000,000
			사무실행	1,000,000			사무실행	1,000,000
			사무실행	1,000,000			사무실행	1,000,000
			사무실행	1,000,000			사무실행	1,000,000
			사무실행	1,000,000			사무실행	1,000,000
			사무실행	1,000,000			사무실행	1,000,000
			사무실행	1,000,000			사무실행	1,000,000
			사무실행	1,000,000			사무실행	1,000,000
소계			54,170,000	소계			54,170,000	
특별 회계				특별 회계				
소계				소계				
총계			54,170,000	총계			54,170,000	

3. 부설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19년 예산(안)							
회계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총괄결산보고							
수입부				지출부			
관	항	목	예산	관	항	목	예산
일반 회계	건조·물	일반회계	000,000	일반 회계	인건비	인건비	477,000
		보수·유지	000,000			차고비	1,000,000
		기타	1,000,000			기타인건비	1,000,000
	소계	2,450,000	건조·물				
특별 회계			특별 회계				
	소계	-		소계			
총 계			2,450,000	총 계			2,450,000

부 록

- 평화여성회 정관
- 평화여성회 조직현황
- 2012년 성명서

【 부록 】 평화여성회 정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본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 관점과 평화주의 관점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한다.

1. 평화·통일사업
2. 평화교육
3. 통일교육
4. 평화·통일연구
5. 국내외 연대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후원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③ 회원의 가입절차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

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총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후임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2.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징계)

1.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된 제명,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3. 회권을 제명 등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회원의 제명 등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총회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2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 권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정회원칙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하는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4.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
 5.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공동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13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 메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 임원의 선출 및 분임임
- ②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 ③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⑤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 ⑥ 기타 주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결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본회(법인)의 합병 및 분할, 임원의 해임,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총회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한다.

2.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공동대표 3인 내의 (상임대표포함)
2. 이사 15인 이내 (공동대표 포함)
3.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의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3.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약간의 고분을 둘 수 있다.
4. 그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5. 선임된 임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직한)

1.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이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이가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그 중 1인은 상임대표가 되고, 총회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 휴고 또는 결위시 이사회에서 공동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리하고, 법안 등 기부동본회 대표가 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①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①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한다.

③ 필요한 경우 후원이사를 둘 수 있고, 이사회 운영에 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임시 이사회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이사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25조(개회 및 불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결회하고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때
2. 증권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 발의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감사)

- ①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두고, 연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의회의 소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

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설기구

제30조(부설기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31조(부설기구의 장)

1. 부설기구의 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로써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부설기구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부설기구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부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재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을 태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재정수입)

1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보급, 기타 감수입으로 한다.

2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3 본회의 연간 기부금 도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의 수립)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처)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

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40조(구성 등)

1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각간 명의 실무자를 둘 수 있고 사무처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2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41조(정관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법인재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지회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본회 해산시 관여 재산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 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1997. 3. 28 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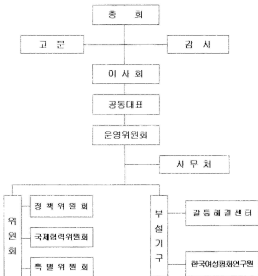
2002. 1. 25 4차 개정

2003. 1. 28 5차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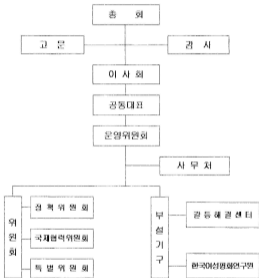
2004. 1. 9 6차 개정

2010. 1. 20 7차 개정

【 부 록 】 평화여성회 조직 현황



【 부 록 】 평화여성회 조직 현황



【 부록 】 2012 성명서 목록

날 짜	제 목
120113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여성의 입장
120113	South Korean Women's Statement on the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120131	2012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하고 세계평화의 섬 제주, 살아 숨쉬는 바위 구렁비를 되찾자
12020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발족선언문
120208	2012년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위한 사회합의 제안문
120208	2012年、和解と平和の南北関係のための社会合意に関する提案書
120311	동아시아 탈 원전 자연 에너지 311인 선언문
120311	東アジア原自然エネルギー 311 人宣言
120311	Declaration by Three Hundred Eleven Representatives for A Nuclear Free East Asia
120321	제 1014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20403	민간인 불법사살,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진실을 밝혀야 한다.
120417	우리의 세금을 무기 대신에 복지예
120418	새누리당은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의 지원직을 박탈하라!
120504	남북 군사충돌을 반대하는 긴급 성명
120507	우금민 제주도지사에게 드리는 호소문
120524	"3.24 평화의 약속을 위한 새누리당의 난" & "3.24 초저 2년" 성명서
120621	한반도 및 동북아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한·미·일 패상훈련 등 공격적 군사훈련 중단하라! 무장갈등에영국제네트워킹 동북아시아 지역운영위원회 참가 불허 할의 성명서
120705	武力紛争予防のためのクオ・ハル・ハ・ト・ナ・ン・フ東北アジア地域連日組とがこにによる抗議声明
120726	2102년의 선명, 평화! - 정전 59주년에 즈음한 7.27 평화선언
120812	광복 67주년을 맞아 해내외 온거리에 드리는 공동호소문
121004	10.4선언 5주년을 맞아 온 거리에 드리는 6.15민족공동위원의회 공동호소문
121024	제104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성명서
121119	<기자회견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여성의 입장

"여성은 핵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원합니다."

우리는 핵무기와 핵발전소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핵은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의 고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7만여명이 원폭 투하로 방사능에 세축되었습니다. 그중 조선인이 7만명이었습니다. 인간과 건물을 녹이고 보기를 오염시켰던 원자탄의 비뚤구름의 공포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만개 이상의 핵무기가 아직도 지구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전과를 보며 크나큰 위기감을 갖습니다. 방사능의 원형 피해, 환경오염, 음식물 오염 등 인간과 자연에 미치는 가공할 파괴력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러나 쓰리마일 핵발전소와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신뢰가 이미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발전소를 짓고 있는 인간 의 어리석음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2년 3월 26일-27일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가 성취된 예정입니다. 우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개최가 타당인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 한국사회의 원안문제인 북한핵문제, 원자력 안전문제를 넘어 다루기 없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에 우리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본-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북핵문제 해결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2012년 1월 16일-17일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준비과정으로 인도에서 개최 예정인 교섭대표회의를 앞두고 한국 여성들은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세계 27개국 정상급의 1차 국제간담 대표단, 특히 핵무기 보유국과 주요한 핵발전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이 회의의 결실이 "핵없는 세계"로 가는 길에 희망을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한 한국여성이 입장을 밝힙니다.

1. 핵안보는 핵무기 폐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10년 워싱턴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을 안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핵문제에 근본 원인인 핵무기나 핵발전소의 축소나 폐기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핵보유국들은 자신의 핵무기 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비핵국가들에게 비확산, 핵안보에 대한 규제를 부과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비회원국이면서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이들 국가와 대조적으로 NPT 회원국인 이란과 NPT 탈퇴국인 북한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는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의 차별, 핵무기 실제 보유국 내에서의 차별 등 국제사회의 이중 잣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모든 핵무기 보유국-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고, 핵무기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입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핵안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수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가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고,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인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은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를 후쿠시마 이후 폐기에 치한 원자력 발전의 재기(부흥)을 위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핵발전소 정책을 재검토하고 중단하는 흐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원자력 안전 신뢰'의 붕괴를 인정하고 핵발전소 수출 중단, 신규 발전소 건설재해 방지화 등 핵발전소 정책 폐기를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3. 정부는 핵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여성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핵없는 세계는 각국 정부와 여성을 포함한 각국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때만 가능합니다. 한국정부는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준비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원자력 산업계나 원자력에 주요적인 학제와 단체가 아닌 경우 협력하는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핵없는 세계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핵문제를 포함한 평화이슈에 여당 및 시민사회와 협의하는 체제를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평화과정에 여성의 참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시흥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가진 것을 희망합니다. 북핵문제는 동아시아에 만연된 냉전체제에서 비롯됩니다. 이 문제 해결은 한반도에의 평화체제 수립과 북미관계 정상화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정착이 불가능합니다.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하여 5강회담 참가 국가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상과 대화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핵무기의 근절과 함께 세계화는 있어야 맞도 된 시기에서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불편을 생산하면서 핵태이를 방지한다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자기모순을 극복하고 핵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물질 생산 중지를 비롯하여 재생에너지 등 환경정책의 승진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핵없는 세계를 가까운 미래로 만들기 위해 핵의 안전과 연대하며 정부와도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입니다.

2012년 1월 13일

동북아시아평화회의 추진위원회, 한국어성년재단, 경기도성년재단, 광주 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대구 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평화여성회, 민주화해협력발전사업위원회 여성위원회, 여성정치세력당수당대,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연연대, 전남여성회, 평화재단(노·여성회, 보성여성회, 문교문화여성인연회, 한국어성년동자회, 한국어성년주회, 한국어성년연구소, 한국어성년재단연합, 한국어성년작업위원회, 한·이주여성인연센터 (총 22개 단체)

South Korean Women's Statement on the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We want a nuclear-free peaceful world."

We South Korean women believe nuclear weapons and power reactors are a matter of life or death. They threaten our lives, the lives of our families and all living creatures.

We Korean women remember the tragic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Japan in 1945 when some 700,000 people, including 70,000 Koreans, were exposed to atomic radiation. The horror of mushroom clouds, which melted people and buildings and contaminated soil, still haunts today because more than 20,000 nuclear weapons exist on our planet.

We Korean women feel an enormous sense of crisis as we witness the aftermath of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in March 2011. We are shocked once again at the destructive power of radiation seen in the loss of human live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ontamination of food. We are even more shocked at the foolishness of those who continued to build nuclear reactors even after the danger of nuclear power generation was demonstrated at Three Mile Island and Chernobyl.

The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will be held from March 25-27, 2012. We South Korean women question the rationale behind this Summit.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nd the safety of nuclear power generation, two of the most urgent issues in South Korean society, are not part of the Summit's agenda. We believe that it is more important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eek resolution on these issues than to host the Nuclear Security Summit at this time.

We South Korean women want to announce our stance before the Shriya meeting is held from January 16-17, 2012 in India to prepare for the coming Summit. This Summit will convene 17 heads of state (including those from nuclear states and nuclear power generating nations) and four leade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 South Korean women call these participants to give us hope by supporting

our stance toward a nuclear-free world.

1. Nuclear security must start with the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At the 2010 Washington Nuclear Security Summit, leaders focused on the security of nuclear materials, but did not discuss the reduction or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or reactors, which should be the core issues of any nuclear talks. Consequently, participating 5 nuclear-weapon states (NWS) were criticized for imposing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security regulations on non-NWS, while NWS themselves did not carry out their responsibility of eliminating nuclear weapons. Although non-NPT nuclear weapon states (Israel, India and Pakistan) participated in the 2010 Summit, Iran (a member of the NPT) and North Korea (suspended from the NPT) were not invited. The world witnessed the doubl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ring the 2010 Summit, where discrimination was seen between NWS and non-NWS and even within the nuclear weapon countries.

We, South Korean women call all nuclear weapon countries including the US, Russia, the UK, China, France, Israel, India, Pakistan and North Korea to eliminate their nuclear weapons and to show consistency in principle and position on these weapons at the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We believe this is the only way that nuclear security is possible.

2. Nuclear power generators must be phased out and their export must be suspend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the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will promote nuclear energy safety and its peaceful use, and that the Nuclear Industry Summit, preceding the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will provide a place to formulate measures for safe use of nuclear power. However, we believe that the government sees the Summit as an opportunity to establish nuclear power as the next generation's power source, despite the risks demonstrated by the Fukushima disaster.

The Summit steering committee press understood that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reconsidering

their nuclear power generation policy after the Fukushima disaster. The Summit participants must accept the collapse of the nuclear safety myth, agree the policy to abolish nuclear reactors, suspend nuclear reactor exports and eliminate plans for new reactor construction.

3. To build a nuclear-free world, governments must cooperate with the women and civil society.

A nuclear-free world is possible only when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walk in step with their citizens, including wom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it will consult its people in preparation for the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So far, however, the government has cooperated only with those from industry, academia and social organizations which support nuclear energ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listen to the voices of all those in society who are interested in a nuclear-free world. We call the government to build a mechanism for cooperation with the women and civil society on peace-related issues, including nuclear issues, as called for by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

Furthermore, in preparation for the Summit, we cal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ake a more thoughtful approach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s, which stem from the Cold War regime still prevailing in Northeast Asia. Resolution of these issues is closely tied to the establishment of a peaceful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malization of US-North Korean relations. It is impossible to realiz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without solv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s. Proactive negotiations by the six-party nations, including the US, are needed to solve these issues. We Korean women believe that it is crucial to hold the six-party talks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achieve peaceful coexistence of all living things, we must stop producing nuclear materials and begin using renewable energy. By doing so, we can realize a nuclear-free world and resolve the contradiction of the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which claims to seek solutions to nuclear terror even as

nuclear materials continue to be produced. We Korean women, in solidarity with women around the world, call for new forms of cooperation with governments in order to realize a nuclear-free world in the near future.

January 13, 2012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Northeast Asian Women's Peace Conferenc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Women Making Peace, The Women's Committee of the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Kyrgyz Women's Association United, Korea Church Women United, Korea Differently Abled Women United, Jeju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Daegu Women's Association, Daegu Kyungbuk's Women's Association United, Korea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Pohang Women's Association, Korea Women Workers Association, Daejeon Women's Association for Peace, Korea Women's Political Solidarity, Korean Association of Women Theologians, Gwangju Jeonnam Women's Association United,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Women for Women Minjung, Jeju Women's Association, Korea Women's Studies Institute, Cheonan Women's Association, Korean Womenlink (Total 22 women's organizations)

2012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하고 세계평화의 섬 제주, 살아 숨쉬는 바위 구름비를 되찾자

지난 1월 27일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제정한 지 만 7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에(는) 평화가 없다. 갈등과 분열, 비움과 공포를 끌러오는 불길한 군사기지 건설의 징후가 육지경찰의 철통같은 봉쇄 속에 제주도민의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는 세계 7대 섬길의 명칭을 잃어버린 대가를 치르고 구매했다. 그러나 정작 여느 수완 좋은 이벤트 회사가 제공한 일시적 허명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소중한 평화의 자연유산은 도리어 포크레인과 콘크리트에 파괴당하고 침식당하고 있다.

강령마을에서 진행되는 해군기지 공사는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주민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 따위는 군사작전 하듯 주민을 기만한 해군측의 변칙과 말발에 의해 그 시작부터 도둑질 당했다. 부실한 환경영향 평가조차도 기지건설 승인을 승인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은 육지경찰에서 동원되어 관리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모조리 잡아들였다. 그 결과 반대주민 대부분을 범법자로 만들었다. 심지어 문화재청조차도 제주도 최고의 문화유산이 발견된 공작무지 내에서 부분공사가 가능하다는 식의 위법적이고 미질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해군의 변칙적인 기지공사에 일조했다.

해군은 당초 한지 해군함정의 기항지일 뿐이라고 주민을 설득하려했다. 그 외에는 영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15만톤급 크루즈 2척이 운행하게 되니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겼다. 미 태평양 함대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미군과 함께 입항하는 절조자 식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는 불길한 사망병당도 뒤따랐다. 하지만 이 모든 레어맞추기식 해병조차도 거짓과 왜곡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급기야 해군이 강행하고 있는 항만시설에는 아예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이 접안하기 힘들다는 분석결과가 밝혀졌다. 이로써 민간관광미항은 허구이며, 해군기지공사 설치보통 사례가 필지의 항공모함 정비에 가능한 군항건설에 맞추어져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방위 조사과정에서 해군은 실시절차가 자신들이 정한 군항의 용도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마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로 2011년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산의 90%에 이르는 금액을 삭감하고 총리실이 주관하는 검증위

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이렇듯 모든 권력이 명백하게 드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정당화해온 해군의 주민설명논리와 완벽한 해군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공식적 강행하고 있다. 2012년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예산이 남았으니 그것 사용하면 된다; 식이다. 총선에서 일희의 보상을 받기 전에, 중앙정부의 견제권과도 드러나지 전에, 부패의 광명 마을 구멍이 해안을 최북불가능하게 예부수어 놓아야 하겠다; 판상이다. 아직 후퇴하는 군대가 비웃을 뜻밖뜻이 제주도민을 상대로 5년(을) 삼요하는 공식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년엔 제주도정촌 해군의 공식장병을 병거하는 중대원 불문순 적적하고 있다. 도정은 제대로 된 검증의 재검토보다; 해군으로부터 크루스 할 관세권을 양보받고 조부 조전 항로를 부분 변경하는 행적의 미원설적인 다원쪽에 현안하고 있다. 유년엔 도정은 여러 근거를 참칭한 해군의 대립면의 모든 대립설적지력의 노익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고, 이에 심취하는 주민, 원동가, 심지어 종교인들을 거국삼아도 삼아(는)는 특색정환의 불원 이남용에도 눈감고 있다.

이에 우리는 평화로 사랑하고 설비를 강행하는 강행유년, 제주도민, 그리고 모든 국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설의를 밝힌다.

첫째, 일제강점기 해군에 대한 원죄를 검증기 적정제 없이 일반공식화 추생공작을 역외하고 모든 해군기지건설 공식; 추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1년 이항예산, 2012년 불어예산의 어떤 부분도 공식에 지출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제주도정촌 7월에 해안에 대한 해군의 관측수원 대립면의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 해군의 구멍이 해안을 최북불가능하게 예부수어(는) 불문순 양명, 관세관탈출에 주민기 민으로 참칭된 해군 기지 건설을 공식적외과 하(는)는 말조해(는); 안된다.

셋째, 총리실과 정부는 공식적으로 무명론 명백으로 해군기지 건설 관 기장은 검증대로 그 미원설적 대해 국민 개성(는)해야 한다. 관세관탈출(는) 원죄적으로 인정하고 불행한 관세으로 불어(는) 것을 노(는)기 국민은 관세 중단(는)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아직 절당기 제주에 삼아(는) 모든 불행(는)은 불행(는)을 제주해(는)기지 건설(는)하(는) 원공에서 해(는)입(는)하거나 국민 개성(는)을 관세(는)로(는) 해(는)안(는) 서(는)양(는)으로(는) 불(는)행(는)하(는)고(는) 있다. 국민과 도(는)민(는)은 이에 원(는)을 받고 있다. 이(는)가(는)하여(는) 불(는)행(는)하(는)고(는) 해(는)안(는) 원(는)을 그(는) 악(는)을(는) 불(는)행(는)하(는)고(는) 있다.

히 수용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다섯째, 경찰의 검찰은 제주 여론까지 풍사강행에 강화로운 방식으로 의롭게 참여해오고 있는 모든 주민, 활동가, 종교인, 정치인에 대한 구공과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경찰주인들과 함께 해운의 불법감사 강행은 유분으로 막을 것이다. 이를 위해 분량이 2백 소원 감금 생활 주어진 언락에의 조지하여 제주해운까지 적지하를 위해 사후나 주민 활동가들의 투쟁에 승장할 것이다.

우리는 유는 정치인 3명 18인(10)을 제 7차 감정감공방문의 5년 제 4차 평화비행기도 감하고 감정어공까지 감정주인, 모인,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시민,활동가, 사제들과 더불어 (가장) 제주 여론까지 적지하, 평화 사후, 범국선비회'를 실학시킬 것이다.

우리는 다지오는 공천을 받아 제주해운까지 적지하와 평화의 일 제주 만들기 평화비행기도 감하고 감정어공까지 적지하, 전국 감정어공 모인과 제주도민의 원력이 선언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러하여 여야 공천과 제주도내 모인 주민 모두가 해운까지 적지하하고 제주를 감정어공을 적지하의 일으로, 다음 것을 사후, 모인 일에서 감정어공을 감정어공과 감는 감정어공 적지하공을 받아나갈 것이다.

제주까지 적지하!

산타히 주민!

적지하 평화의 일 제주!

2012. 1. 31.

제주해운까지 적지하 취지를 위한 간주내적회의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함께 핵과 인간이 공존할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사고 이후 1년이 다되었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 지역은 출입이 통제되고 높은 방사선이 발견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말하고 있는 핵연료 제거 및 폐로 시간만 40년, 비용만 15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그 시간 안에 후쿠시마 핵사고가 모두 정리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가운데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세계 각국의 흐름은 매우 뜨겁다.

핵사고가 일어난 일본의 경우, 54기의 핵발전소 중 단지 3기만 가동 중에 있으며, 머나먼 올해 4월이 되면 모두 가동을 멈출 예정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점검과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재가동 반대여파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결과이다. 또한은 현재 운영중인 핵발전소 3기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고, 불공에서는 국제 협력 기금 건설 계획을 중단할 것을 발표하였다. 유럽의 경우, 추상적인 탈핵선언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탈핵사나리오 발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독일 정부가 2022년 핵발전 비중 0%를 발표한 이후 벨기에, 스위스 등이 정부차원의 탈핵사나리오를 발표했고, 이탈리아는 국민투표를 통해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적 결정을 확인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핵사고를 대하는 태도는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다. 현재 31호 수증기 핵발전 비중을 2030년 50%로 늘리기 위한 계획은 후쿠시마 핵사고와 상관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삼척과 영예를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선정,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핵산업을 조선, IT 산업사 함께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사후유해연료 처리의와 우리를 농축 문제를 포괄하는 원미원자력발전 건설, 종합적인 핵연구 단지를 만들기 위한 원자력허더서터 계획 등 핵발전을 적극하고 육성시키기 위한 계획이 하나씩 발표되고 있다. 후쿠시마의 교훈을 수용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면대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정부의 모습에 최진용총장 “세계 최대의 핵추진 국가(The world's most pro-nuclear country)”라 할 정도이니 이 얼마나 안타까

흔 일인가

책 읽는 세상을 나아가야 하는 길요성에 대해선 더 이상 길이 없을 것이다.

이제 길은 분명히 정해졌다. 그 길을 누구와 함께 어떻게 갈 것인가가 남았을 뿐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1년, 중원과 대원 등 주요 정치 인물이 몰려 있는 2012년 우리는 그 길을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라고 한다. 지난 1년간 하인원 것처럼 책 읽는 세상을 향한 국민적 관심과 위양은 충분히 두터웠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열망을 모아 실질적으로 책 읽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본격적으로 떠나고자 한다. 책 읽는 안전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세대를 살고 있는 영성적인 모든 이들의 숙제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세는 요원해 보일 수 있는 '책 읽는' 세상을 원천로 만들고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자.

2012.12.1

책 읽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자원리원경인대, 경주핵안전인대, 상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다음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당(준),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사랑연대, 대학생일원합회, 동아시아미원천천자인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남해권주교연대, 두리평원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성회남원한연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쪽출산시민행동, 반핵의사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당, 사회참여연대, 참지핵발전소(핵난지)유치역지회위원회, 광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저널, 시민평화포럼, 아이삼시울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문, 에너지정의행동, 에코스타, 에코생협, 여성민주회생협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영성핵발전소안전실화포럼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역지회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럼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생협, 김대일유머하는민주노동당연구소, 김보진당, 자일스책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원도리한울연대, 원주교장포럼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남)남: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YMCA 전국연맹,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책 읽는 세상,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우리사람들, 환경과미래연구소, 환경과생명은지키: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012년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위한 사회합의 제안문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입니다. 이는 남북 사이의 합의이자 제도화된 우리 사회의 합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남북관계를 운영하는 세 개의 축은 화해, 평화, 공동번영입니다. 남북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루며,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래 가장 나쁜 상태에 있지만 이런 제일수목 화해, 평화와 공동번영의 원칙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특히 2012년은 남북 모두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서로를 자극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진행하여, 쌓여 있는 불신과 오해를 하나의 줄이나가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초석을 놓는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 연석회의는 ‘2012년 화해와 평화의 남북관계를 위한 사회 합의’를 아래의 실현과제를 중심으로 제안 드리하고자 합니다.

1. 민간교류 지속과 인도주의 실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남북관계의 핵심입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남북관계에서는 그 어떤 원칙보다도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우선, 민간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을 해온 종교,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조치도 점차 확대하여 남북 사이의 신뢰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고해나가야 합니다.

2. 이산가족 상봉은 분단 피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남북관계를 운영하는 정부 부처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조건과 관계없이, 앞장선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실행해야 하며, 이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3.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합니다. 관광 재개의 핵심문제인 사고 재발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에게 한 말에 대해 이미 통일부가 북 당국의 확인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2011.10.21 통일부장관 기자회견회). 따라서 가장 큰 장애가 해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가 관광 재개를 여러했던 실질적 이유인 현금 거래의

문제도 UN의 기금이 부합하는 양일거대로 관명이 났습니다. 이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이산가족 상봉문제도 풀어야합니다. 평양 유희권을 유지한 것을 계기로 금강-철악 연계 국제관광을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4. 5.24조치는 불안한 사고 조사 결과 취해진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불포족적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지금에 와서는 필요성과 합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해: 경제와 사회 분야 교류를 가로막고 우리 기업들의 그동안 자긍심을 '일 땀의 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5.24조치를 넘어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짜나가는 것이 마땅하며, 국회는 이 행정조치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이 조치의 폐지를 결의해야 할 것입니다.

5. 8.15남측위원회 104선언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를 보강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자칫: 커지면, 그것이 비록 민간행사일지라도 남북합의의 가장 큰 의미를 상징하는 8.15공동선언의 이해여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행사: 통일과실에서 진행되는 남과 북 사이의 각종 교류를 서로 이해하고 보일때나가는 매우 유의미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8.15남측공동행사는 2009년은 글썽으로 중단되었습니다. 2012년 유격: 이 행사가 재연된다면, 남과 북은 합의 이행과 따른 개인 교류에서 벗어나 교류과정과, 범영의 남북관계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들이 사회적 합의의 위해 우리는 이산가족 단체, 장애인단체 비롯한 관련 단체, 인:도부 대처지원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밀담, 풍로제, 그리고 정부 간 교류:적화의 대화 자리를 남: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모아 남북관계에 관한 '국회와 국민의 소통관계' 행정에 다짐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절연되면, 정치상황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남북관계 운영에 보다 보편적인 원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2012년 2월 8일

2012년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4차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박나영(6.15남측위원회 명예대표) 김성규(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장민호(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민준(6.15남측위원회 대표) 김사용(6.15남측본부 대표) 권나기(통일상황 대표) 권오원(합성수주협회 명예회장) 김경준(북교과문화연대 공동대표) 김명호(북사) 김관준(선부, 대한성공회) 김근익(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대선(교부, 한문교) 김동환(교수, 6.15학술본부 공동대표) 김삼연(북문교주주주회장) 김삼: (6.15제주본부 공동대표) 김진수 (민주사회

김희환(연호사모형 회장) 김성부(목사) 김수남(우리연속편명대동일추진회의 공동의장) 김예
 영(교수, 6.15학술본부 공동대표) 김재우(물보어성개발원 원장) 김영민(6.15경남본부 대
 표) 김영준(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용우(6.15대선본부 대표) 김용태(전 민예총
 회장) 김용수(민주사주평화동일총연합회 회장) 김재환(민주총교협의회 사무총장) 김철길
 (6.15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김종수(본부) 김장원(평화동일총연합어사단장) 공동대표) 김
 진(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문실(교수, 6.15학술본부 상임대표) 김해수(성균관 사문
 총장) 남부권(한국 YMCA 전(전)장 직무총장) 노수희(초국동일범민추진협남구본부 서울
 연립 회장) 노영우(6.15총학생부 대표) 유종만(총사단연속동일총본부 상임대표) 박 진
 (수업, 조계종) 박 권(스님, 원대종) 박근원(평화동일총연합어사단) 상임대표) (순남)박
 제평(화어성인협회 회장) 박남수(총교) 박지선(6.15서울본부 대표) 박진(총사단연속동
 일총본부 상임대표) 박정우(한국여성노동조합연립 회장) 박정우(6.15대구경북본부 대표)
 박승원(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종기(민중민주연사(제평사)유모단체연대의 상임대표) 박용
 승(6.15전북본부 공동대표) 박용환(6.15전북본부 대표) 박윤삼(한국민주노동조합연립회
 회장) 박 대(스님, 조계종) 박 권(스님) 박노준) 손기희(한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임상철
 (통합전교모임 대표) 임태원(전교모) 여해수(평화동일총연합어성회 상임대표) 영 신(스님, 조
 계종) 오종택(한국전보연대 상임교섭) 유식연(통합전교모임 대표) 유진석(6.15경기본부 상임
 대표) 유소하(6.15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 윤규하(6.15평민추진연대 대표) 유재환(한국정신연
 대 공동대표) 이강철(한국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강철(6.15인천본부 상임대표) 이강택
 (한국연교노동조합 위원장) 이근배(초국동일범민추진협 남구본부 회장) 이근배(민주화협
 연립국민협의회 조직위원) 이석희(목사, 불어연대 공동대표) 이승환(사단평화동일 총
 동대표, 민주화협연립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이흥우(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길
 화(평화동일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길(6.15경상본부 대표) 이길재(국회의원, 농민연
 교님 대표) 이광성(민주화협연립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이재민(교수, 6.15학술본부 공동
 대표) 이관능(한국국민연립 의장) 이재미(목사) 임영희(우리연속추진어사단본부 공동대
 표) 임봉원(6.15대구본부 대표) 임봉기(한국기자노동조합 회장) 임창호(6.15울산본부 대
 표) 임정준(민주화협연립국민협의회 이장위원장) 임현영(민족통대연구소 소장) 장지승
 (전(전)국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장동연(사위연립회 상임회장) 장성태(교수, 위물교) 장용규
 (21세기 한국대학연합회 회장) 정부식(6.15경인어성본부 상임대표, 대동성교성의회 회장)
 정옥자(평화동일추진연대) 상임대표) 정인성(교수, 한국총교연립총회의 남구지역위원장) 정지윤(연
 합노동 의회위원,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정철승(경기도 교회연합) 정기우(목사) 정한(성실군
 구 부회장) 정현배(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우(민주화협연립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조순
 덕(민주노총실업가속추진동맹의회 대표) 최 홍(스님) 최명모(연호사, 우리미래학사연구소본부
 이사장) 최 훈(스님) 최민영(평화협국연회 대표) 최기영(6.15대구경북본부 상임교섭) 연봉남(한국전보연대) 황승우(한국전보연대 공동대표) 황재욱(본부) 최 권(스님) 최정희(실
 부) 황태연(한국전보연립회 회장) 황민수(6.15경북본부 상임대표) 최성필사(스님, 김가종)

<2012年、和解と平和の南北係のための社会意にする提案書>

南北係は、ひとりの係ではなく、統一を志向するプロセスにおいて普遍的に形成される特殊な係、です。この認識は南北間の合意であり、表向きにおける顕在化された合意でもありません。

この南北係を合意していくための物は、和解、平和、共同です。向と北は政治軍事的な交渉を断念し、民間的和解を成し遂げ、軍事的な緊張と衝突を降いて平和を実現すべきであり、無条件な交渉能力を起すことで民族同胞の利益と益を成すべきです。

現在の南北係は2000年8月15日の南北民間交渉以降、34の物はあるものの、こうした物なからこそ和解と平和、共同の物間の調せなければなりません。2012年は南北方にとって往に重要な一年となるでしょう。互いに利益しないよう努力しながら助けになることを行い合ひ、抱き合う。たおしと誠意を一つづつ抱いていく中でより良い未来のための礎を築く一年と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うしたことから、本日この地場において「2012年、和解と平和の南北係のための合意」を下記の課題を中心に提案しようと思います。

1. 民間交渉の人道主義のは、いかなる状況でも決して止めてはならない、南北係の核心です。同じ民族として南北係における他のいかなる原則よりも大切にすべきものが、まさにこの原則です。政府はまず、民間交渉と北人道支援活動を行ってきた宗、市民の活動を積極的に保護すべきです。早く早くは政府レベルでも人的的な北支援措置を大断にすべき、南北間の肩を担うべきであり、民間における我が国の負担も高め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2. 離散家族の問題は自分の地方を最も直接的に表す事柄であり、南北係を政府部断の最大の存在理由はここにあります。離散家族の再は特に左右されることなく、また、一定のことで必ず行されるべきものであり、それこそが政府の責務です。

3. 金剛山先は再開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光開の核心問題である事故原因防止策としては、これ「部長キムジョンイラ委(部長キムジョンウ)」に決った言葉について北の局に承認を要請しました(2011.10.23)決「部長官記者会見」つまり、最大の努力を尽くし得る状況にあるのです。

また、政府が光開を止める直的の理由となっている現金開の物向も、他の事は合意す

る商業的取引であると判が下されました。もはや金剛山を売却し、灌漑家族の内閣問題も解決すべき時なのです。中野オリーブと名議政をとりかには金剛山も中野の国をいって完全を推進し、の活性化にも与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4. 5.24借置は不安定な裁判が結果とされた裁判レベルの合理的な北北関係です。ですがこの借置は、今や作す先 ているだけでなく、おとつれ分野の交換を助け、特に北は苦痛のみをもたらす「法の上の法」、すなわち憲法のことになっています。

したがって、旅行から2年がたつこの時点で5.24借置を解消する北北関係の新たな仕組みをつくるのが必要であり、且この行政措置の制度内市民は現法が、南北関係の気のためにもこの借置の解除を決議すべきです。

5. 6.15北北宣言は10.4宣言を記念して行われる南北共同行事を促進すべきです。これらの行事は、にそれか民間行事に過ぎないとしても、南北の意の中で最も北北を占める6.15北北宣言の履行如何を象徴的に示すところに戸外があります。また、こうした行事は、統一のプロセスで生ずる南と北の間の不安定をいかに抑止し調整していく、非常に意味のある市民参加の行事です。

ですが6.15北北共同行事は、2008年を最後に中止されました。過去2年の今年、この行事が行われるなら、南と北は合意の履行責任を国と政府からし、和野と平和、半の南北係へとむための目的な話を始められるでしょう。

こうした提案の目的合意を形成するため、私たちは灌漑家族、日原道などの連自治、人道的な北北支援をはじめとしたNGO系者と政、宗界、そして政府関係者との話の場をつくりたい所存です。

また、これらを粘りさせ、南北関係にする 市民の疎通部、を形づくっていきます。こうした努力が承ることで、政治界から相対的に立した南北係を運するのための、より普遍的な場が形成されるものと私たちは信じます。

2012年2月8日

2012平和と協力のための南北係を復元するための各界連席識者一列

동아시아 발원권 자연에너지 네트워크 311인 선언문

지난 3월 11일 대지진은 동아시아에서 최근 최대물결사화를 일으킨 일본 원전을 갈라엎었습니다.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원전 3호(1,2)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난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은 발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재도입될 사고의 이어 후쿠시마 대재앙은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자로 안전문화는 완전히 붕괴되었으며, 이제 세계 원자력발전 역사는 후쿠시마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세계 1위 경제 강국인 일본을 시작으로 스웨덴, 이탈리아가 빈번한 정전을 경험한 데 이어 체코수력, 캐나다, 한국에서도 빈번 조기 병발을 경험했습니다. 영국과 스웨덴, 한국도 원전의 안전성 재검토를 선회하여, 원전 정책에 대한 지엄한 논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새 장은 국가들이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는 이유입니다. 후쿠시마 이후 에너지 계획 과제가 있으며 국가 운영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로 4백여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은 후쿠시마 대재앙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원자력 수송용인 일본의 4기는 운이 좋고 있으며 편지력으로 정전만 문제가 없게 원자력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구상에 건설중인 원전 75기는 중국, 러시아, 한국, 인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주말 11기 원자로 건설중일 7기 원자로 있고, 중국은 지난주말 11기 원자로 건설중일 27기 원자로 있습니다. 후쿠시마 재앙 이전까지 일본은 10기 원자로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공전의 탈원전 정책은 심각한 과제가 되는데 되돌려 쓰이며, 일본 정부 또한 국민 대다수에 발원권 여론에도 불구하고 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재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글의 주제를 한국은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반대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입니다.

발사선에는 새장이 없습니다. 특히 원자력 4기 원전 사고도 순차 정전안과 원전 사태만 원자로 발사선에 포함해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후쿠시마 20km에 거대한 댐입니다. 동아시아에서 핵의 원기는 서로 얽혀 있는 연이 순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생화학 발달의 모리도 바꾸는 일은 원전발전 식민사회의 기억될 수 없는 일부로 떠올랐습니다.

원자력은 전쟁력 · 전쟁력 · 전쟁력입니다. 원자로 없이는 인류는 오래도록 살아왔습니다. 이런 특징을 지닌 원전 에너지는 원자력이 아니라 핵발전은 원자력을 통해 운영 사회가 지속가능합니다.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원은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원자력

해를 배틀어왔습니다. 해 · 바람 · 물이 해당입니다. 탈원전은 에너지 포기라 아니라 자연 에너지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재생가능한 에너지 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산업은 해마다 30%씩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 해 에너지 생산 증가량의 절반은 자연에너지에서 얻은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원전지대인 한국인이 원전에서 밀려나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시민연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핵확장의 실질적 해결도 이를 통해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핵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술과 정책을 다룰수가 동아시아는 집단이 아니라 평화와, 우리가 아니라 생명이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탈원전자연에너지 사회를 위한 100인 선언과 더불어 이를 실현할 기구로 동아시아 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를 함께 출범시킵니다.

동아시아 탈원전자연에너지 네트워크는 3.11대참양을 계기로 참가자 311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100명씩, 나머지 111명은 중국과 그 밖에 나라 사람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오늘 한국에서 먼저 100인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은 한일 시민연대의 새 역사를 열어가게 될 뿐 아니라, 311 대참양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자연에너지 시대를 창조해가려는 거룩한 지혜의 첫 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원자력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이 관동에 시민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동아시아 탈원전자연에너지 네트워크 선언자 311명

東アジア原自然エネルギー 311 人宣言

今年3月11日、大自然は日本人の津波によって東アジアでは初の近代物質社会を開いた日本を直しました。日本の東北地方の福島原発の爆により、安全な原子力という根のない世界的な神話は崩れました。この大震災は豊かさや消費に基ついた文明にする深い反省を、アジアを越えて人類史的に求めています。

依然として原子力への執着から抜け出せていない、韓中日本

ドイツを始め、ヨーロッパの植民地的約束や宣言は、チェルノブイリや今回の福島原子力発電所事故から始まっています。ドイツは、老朽化した原発7基の閉鎖と2022年までの原発を廃止しました。

原発保有密度が世界で2番目に高いベルギーも原発を放棄することにしました。スイスも原発の設計耐寿命を超え次第、完全閉鎖する原発政策を確定しました。

最も直接的な事である韓中日本は驚いたことに依然として原子力への執着から抜け出せていません。に、14基の原発を持つ中では311大震災の後にも27基の原発中の東海岸に追加的に建てています。日本は民の80%が原発を支持しているという世論にもあらず、50%を原子力にるといふ電力政策を公式的に棄していません。韓は21基の原発を2024年まで34基に増し、また、200兆ウォンをかけて原発産業を人するという計を持っています。これは4大河川の土木工事費用の10倍であり、朝鮮半島の東側を争う原子力化する地獄的な妄想です。

環境汚染や生態、気候において日中韓には境がありません。韓はの原発以外にも中の東海岸や日本の西海岸の原子力発電所にまれています。日本の九州島製の原発は東京よりも韓の方に近いのです。東アジアにおいて、核の危機は互いに絡み合ったまま、循環しています。これを平和と生命の輪にえることは日中韓の市民社の送らえない運命的な任務として浮かび上がりました。

日中韓が原発を廃止するために、東アジアの市民社の道を

史からんできたように、核は反平和であり、反生命で、また、反市民的で、核と原子力なしにも人類は長く生きてきており、核放棄後もこの文明社会はいくらでも持てきます。大自然は人類が生き力や知を初めから必要をだけ公平にえてくれました。太陽風水がその美しい答えです。核放棄はエネルギーの放棄ではなく、自然エネルギーへの道を意味します。長

い同、幻想たとして無視されてきた風力エネルギーや太陽エネルギーは半半に保障の程度で扱われています

世界で最も危なげな地である日中の紛争を収束するためには、東アジアの市民社会の連が切です。北朝鮮を含む朝鮮半島の非核化の負的な解決もここで初めてできます。種の絶滅にする情知を共有し、自然エネルギー政策を知り分かち合うことによって、東アジアにおいて次ではなく平和が、破ではなく生命が中心に位置づけられ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我々はこの宣言とともにこれを現する道みとして、東アジア版自然エネルギーネットワークを足させます

韓中日本他311人による、東アジア版自然エネルギーネットワーク

東アジア版自然エネルギーネットワークは、311人賛同を調にするという意味から311人で構成されます。韓、日本それぞれ100人ずつ、その111人は中やその他の人が加算するだけです。この宣言は日韓市民連の新たな史を切り開くだけでなく、311人歴史を平和や生命の自然エネルギー時代へと進んでいく道な知り合いになるを言います。定を使用している市民の皆さんでも家と自然エネルギーへの視をめさすこの史的なネットワークに加して、東アジアの偉大な記憶を築きましょう

Declaration by Three Hundred Eleven Representatives for A Nuclear Free East Asia

Last March 11, Mother Nature's unforgiving tidal waves devastated the Japanese shores, dealing a heavy blow to East Asia's preeminent consumerist society. The resulting explosion at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n Northeast Japan destroyed all illusions of how safe nuclear energy is around the world. This catastrophe demands that Asia and the rest of humanity reexamine the merits of a civilization that is built upon abundance and consumption.

Declarations for denuclearization from European nations stem from nuclear plant accidents like Chernobyl and Fukushima. Germany declared that it would immediately shut down its seven antiquated nuclear reactors and completely phase out its nuclear program by 2022. Belgium, a country with the second highest nuclear plant density in the world, pledged to close its reactors. Switzerland also confirmed its nuclear power free policy by deciding to decommission its nuclear power plants as soon as they reach the end of their lifetimes.

Meanwhile, South Korea, China and Japan, the most relevant nations, still cannot break away from their obsessions with nuclear power. Despite the 3.11 catastrophe, China is building 27 new nuclear power plants on the East coast in addition to its preexisting 14 plant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not officially discarded its policy of supplying 50% of the nation's electricity with atomic energy, even though 80% of the population support denucleariz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plans to increase the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from 21 to 31 by 2024 and expand its nuclear power plant industry with an additional investment of 200 trillion won, a budget that is ten times that of the Four Rivers Restoration Project. This is a devastating idea that will effectively nuclearize the entire Eastern side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 China and Japan have no boundaries between them when it comes to environmental pollution, ecology and climate change. In addition to its own nuclear plants, South Korea is surrounded by atomic power plants on China's east and Japan's west coasts. The nuclear power plants of Kyushu and Shinano in Japan are closer to Korea than they are to Tokyo. The intertwined nature of East Asia's nuclear perils has created a foreboding path of crisis. It is the mission of the Korean-Chinese-Japanese civil societies to transform this path into a network that guarantees peace and life.

As history has taught us, nuclear material is synonymous with anti-peace, anti-life and anti-civil. Humanity has long lived without nuclear or atomic power, and human civilization is fully capable of continuing to do so even after denuclearization. Nature has always been impartial in providing humankind with sufficient power and wisdom for survival. The sun, wind, and water are examples of nature's beautiful solutions. Nuclear power free does not mean giving up energy, but transitioning to natural energy. Wind power and solar energy, ridiculed in the past as fantasy, are growing by 30% annually.

However to achieve a nuclear power free Korea, China and Japan (the world's most dangerous nuclear zone) will not be possible without a coalition of East Asian civil societies. It is also the key to substantial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North Korea. The more we share information on the dangers of nuclear power and spread technology and wisdom regarding natural energy, the more East Asia will become the center of peace, not conflict; of life, not destruction. Today, along with this declaration, we are launching the Network for A Nuclear Free East Asia, which aims at accomplishing this goal.

To remember the catastrophe of 3.11, the Network for A Nuclear free East Asia will consist of 311 members from Korea, Japan, China and other countries. The one hundred Korean representatives are announcing their declaration to commemorate this decisive starting point, citizens in Asia, but will also usher in wisdom and a sacred transformation of the 3.11 catastrophe into an era of peace

and life. Accomplishing this aim of a peaceful Asia, requires international support from citizens all over the world. We urge all citizens, in East Asia and around the world who depend on electricity to become part of this historic declaration to transition to nuclear power free, natural energy, and thereby solidify this brilliant moment in East Asia's narrative.

March 11, 2012

311 Declares for A Nuclear Free East Asia

제 1014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모든 방법이 되찾아주세요! 주짓한 분이 오고 있다. 그러나 수요시위를 해온 지 20년. 오늘로 1011회를 시위를 하는 지금, 기을 한파의 매서움을 느낀다. 올해 3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두 분이 일본 정부로부터 '미안하다'는 진실 뿐 한 편이라도 근대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이제 생존하시는 피해 할머니들이 61명에 지나지 않는다. '못다 권 쫓'들이 차가는 봄에 매서운 여름을 느끼며 다시 한 번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1년 12월에 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한 데 이어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 회안 중에서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며 일본정부가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러한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질타의 목소리를 모아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전략적 외교노선을 취해야 한다.

일본의 후지부라 장관은 3.1절 기념식에서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한 관계는 때때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지만 미래지향적 사고 하에 관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국적 견지에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미 해결이 끝난 청구권 문제와 별도로 그동안 아시아여성기금 등을 통해 지원책을 강구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가 아시아여성기금이 "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권법으로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가 빠질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안부'문제 해결에 대해 또다시 기금을 언급하며 국가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는 반성의 여지가 없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일본정부가 말하는 미래지향적 사고란 무엇인가? 미래지향적 태도를 과거를 덮고 있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잘못 행한 책임을 묻 후에만 한-일의 미래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일본정부는 왜 모르는가. 일본정부는 바로잡지 못한 역사가 되풀이 되는 잘못을 재재되지 않고 자신들의 과오를 책임 있게 임하여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 실현에 있어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여성인권회복과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화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1.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1.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국제법에 따라 배상하라!
1. 한국 정부는 역사를 바로잡고 할머니들의 명예와 안전을 되찾는 일에 적극 앞장서라!

2012년 3월 21일

제 1014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결기 수요서위 참가자 일동

민간인 불법사찰,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부에서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은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권국민노동조합 KIS본부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관련 문건 2권619건을 입수하여 현 정부에서 작성한 181건의 문건 중 86건이 민간사찰과 관련된 것이라고 폭로했다. 여기에는 사립학교 이사장, 산부인과 의사, 서울대병원 노조 등의 민간인 사찰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비위 집결을 이유로 만들어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여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처음 폭로된 2010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은 “어쨌든 사람들의 권력 남용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당시 이명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민간인 사찰을 없앴으며, 김종이 전 KB한마음 대표는 공기업 자회사 임원으로 요인해 후발적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종이 씨 사건과 남경필 의원 부부 권 고가지만이 민간사찰이라고 수사하고 나머지는 내사종결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 핵심 관계자 모두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그제 의혹으로 불허미랄 뻔 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최근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의 폭로를 통해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장 전 주무관은 청와대가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폭로했고, 불법사찰 및 은폐 사실이 대통령을 지칭하는 ‘N’ 등 뒷선에 보고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민간사찰 사건의 불타기를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된 김종이 전 KB한마음 대표 배리 의혹 문건을 여당 의원이 폭로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고, 2010년 수사 당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할 정황도 나왔다.

이런 사건은 단순한 직권남용 사건이 아니다.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사찰결과를 인멸하고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검찰, 여당 의원 등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총체적인 권력형 배리 사건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난 4년,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언론과 시민사회, 국민의 입을 막고 기본권을 탄압해온 지난 4년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국민이 피로 맹위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공권력이 나서 짓밟은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은폐는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국기를 문란케 한 중대범죄행위이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입을 연어야 한다. 한국과 워터게이트 사건,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는 부속한 사건에 대해 국경 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는 물론 직접 이 사건의 진상을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야 한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불법도청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여기에 백악관이 위문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시금 백악관이 개입했으며, 이를 김수환과 노승 대통령이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다가 결국 그 모든 사실이 날날이 밝혀지면서 대통령직까지 물러나야 했다.

작금의 민간사찰 사건도 이와 흡사하다. 이제까지 드러난 정황과 증언들을 종합하면 민간 사찰의 시수와 같은 모두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이 바로 ‘물물’이라는 의혹을 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을 보고받았는지, 사찰을 지시했는지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검찰수사가 끝난 뒤 입장을 밝혀냈다는 것은 검찰을 방해할까 사태를 모면해보겠다는 꼼수모범에 들리지 않는다. 재수리당과 박근혜 선대위임장이 여론에 밀려 작위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특검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입을 열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원인공포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하여 비상식국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이제까지 벌어진 민간인 사찰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 사찰 대상이 된 사찰 들은 누구이고 모두 몇 건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찰로 입수한 정보를 당사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민간인 사찰 담당조직을 당장 해체해야 한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청와대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불법사찰을 지시한 바 있는지, 사실과 내역을 보고받은 바 있는지, 증거인멸 시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야 한다.

셋째, 검찰은 특검이 가동되기 전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광 권 주무관에게 측근을 통해 돈을 전달해 사건 은폐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만큼 구속수사하고, 권희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찰 보고라인에 있던 임사들, 2010년 당시 검찰 수사 지휘라인과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넷째, 수사대상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다섯째, 각급수사와 함께 총선 직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개최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야 한다.

여섯째, 재수리당과 박근혜 전대위원장은 직접 도입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보다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김기영당대표는 민간사찰 및 증거문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원형까지 알려준 것 외에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입지는 않은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현정권 특검 도입 주장이 불타거나 재간담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정조사 수용 등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들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내용을 충실해 보도해야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뒤흔드는 사건이다. 앞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일 때마다 벌칠 일어나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우리 국민의 자존 의식을 다주하게 될 것이며,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21세기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재현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2년 4월 3일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비상사국회의 참가자 일동

장경희(다중이재민 상임이사), 장남하(시이스연맹 위원장), 장남호(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한신대), 장내희(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권 의장, 중앙대), 장신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연성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연구소장), 장천희(대천여인회 공동대표), 장영구(평화와통일운동연구소장), 김대환(송죽마을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고승학(건설사회를위한지카리사회 대표), 고영훈(건설사회를위한지카리사회), 고건환(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권 의장, 서울대), 강금술(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회장), 구미성(대천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권기탁(건설사회를위한지카리사회), 권나기(불일성장 대표), 권대환(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식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권영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김경영(경남여성회 회장),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광진(건설사회를위한지카리사회), 김리익(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 위원장), 김 원(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기현(부천YMCA 사무총장), 김기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남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남익(화물연대 본부장), 김도현(새사회연대 공동대표), 김두현(평화통일대주 시민연대), 김명선(건설사회를위한지카리사회), 김명순(민주민주연사회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공동의장), 김병세(선상사회를위한지카리사회), 김성진(2012명명평화기독교행동 상임대표), 김시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권 의원, 정종희대), 김성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성수(한국무명성기구), 김성훈(환경정의 이사장, 전 농림부 장관), 김재균(민주회계위원회한국교수협의회 전 회장, 사육대), 김승식(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송산대), 김호준(신대일노동대학 대표), 김영환(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영호(대구정책개발연구원 대), 김영순(대구어업회 대표), 김영하(광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영홍(한국연수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원복(광주교육문화재단한국학부모회 전 회장), 김윤진(신강사회를위한지배자사회), 김윤자(민주화살피관한국교수협의회 전 회장, 원신대), 김은희(여성정치네트워크연대 대표), 김은수(민주자유당통합중앙위원회 대표), 김희능(건설사회살피관학회 이사회), 김인봉(연합포럼 대표), 김인숙(한국여성민주회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대연(실공회 일부), 김영환(한국사회배우회협회 전 위원장), 김중만(서울동맹연대 대표), 김중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상근연호사), 김주연(기독교어머니 대표), 김주영(울산어업회 회장), 김준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연동위원회 위원장), 김종남(한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지훈(아산시민모임 사무국장), 김진희(새마을총연합회한국지역별총회 공동대표), 김철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태일(여수시민회 사무처장), 김태진(민주연동운동협의회 전 회장, 농어사육연천수호부영위원회 전 위원장), 김현일(전국교수노동조합 전 위원장, 연세대), 김현옥(광교총학생회한국학부모회 전 회장), 김혜연(대가물무늬나래 생화학의장), 김희준(여성사회교육원 원장),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문병화(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문병화(경기지역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문은준(명파대 교수), 명홍준(공공연연대), 문정민(대인물매각지시인연대 사무국장), 명정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민달호(대서 중부지역살피관총회 공동대표), 민광호(전남노동모임 대표), 박기용(민주화살피관한국교수협의회 전 회장, 살명대), 박경일(한국지역총연합회협의회 이사장, 대경초)와 석영민(공동대표), 박금자(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박근우(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 공동대표), 박영희(연세대 전 교장), 박이리(건설사회를위한지배자사회), 박동길(한국여성민주회 공동대표), 박성진(민주노동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박성환(민주화살피관한국교수협의회 전 회장, 실공교대), 박지훈(한국전보연대 공동대표), 박수조(사무공무원연맹 위원장), 박영희(미래포럼 이사장), 박유희(살피관정치개발운동 위원회), 박윤복(환경정의 사무처장), 박유실(민주연석시민연합 이사장), 박원숙(한국여성노동회 총연회), 박정리(민주노동자연구회) 이사장, 박준우(한겨레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박종기(민주시민운동사회성자수도기년단체연대회의 공동의장), 박현기(한양대 명예교수), 방홍순(전북전보연대 대표), 배종명(학교근직전공단체이전 상임대표), 배은진(전국민주화운동총학생협의회 대표), 백기원(동일문제연구소 소장), 백낙일(참여연대 교문, 서울대 명예교수), 백이순(한국실용직업단소 소장), 백성기(민주노동 전국건설직업노동조합총연합회 위원장), 백승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백성남(민주리모임 대표), 백원국(대구경북전보연대 대표), 범민(전북노동교수회 전 대표), 이근모(전국학생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공작대), 석연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국장), 석영진(민주화살피관한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충남대), 사회살(소셜가, 철원포)방송위원회 전 상임위원), 성재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손기화(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손호진(민주회계위원회한국교수협의회 전 회장, 서강대), 송남현(한국여성정치권과 사무처장), 송상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송상익(녹색교동총합 사무처장), 송재봉(공작 관여자시민연대 사무국장), 송희연(지리과학), 신수경(새사회연대 공동대표), 신대업(민주연석시민연합 상임대표), 신하림(정보경제연맹 위원장), 신동일(전 조선자유연석수호부행위원회 위원장), 최성보(충남안 교육운동본부 대표), 최교섭(전 국민민연맹 회장), 안병옥(기후변화연구소 소장), 안병옥(건설사회를위한협회 전 위원장, 서울대), 양라수(일본 오사카 정법대학), 양승순(녹색연맹 부장), 양원진(경기지역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임태훈(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사무차장), 이혜숙(평화롭고인도는여성회 대표), 연영국(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영형철(환경연합 사무총장), 오성수(연계하는교육시민모
 임 회장), 오세철(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회장), 오세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
 위원회 위원장), 오종환(한국전보연대 교문), 우희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회장, 서울대),
 원영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유성환(광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유영환(부산여
 성단체연합 대표), 유지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호태(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회장, 충북
 대), 윤기현(노년연합 사무차장), 윤기현(민주인생평화분임위원회 공동대표), 윤정우(포항여성회 회
 장), 윤준하(6월민주노조법 대표), 윤대박(사천대학교별도노동조합 부회장), 윤현자(교육문화공간 창 대
 표), 윤희숙(한국잡지연대 대표), 이상진(광안정보연대 공동대표), 이상진(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경옥(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정희(경남진보연합 대표), 이상익(간교노동연대총연합 회장), 이상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근재(초대물임업민족연합 남극본부 회장), 이도훈(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회장, 현양대), 이만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자분위위), 이명순(농어지자
 연주소우부평위원회 위원장), 이기숙(민주노총 민주영연맹 위원장), 이무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이상우(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이상진(화학실용연맹 위원장), 이상태(민주사회를위
 한변호사모임 각기사회권리 위원장),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
 장), 이선철(건강사회를위한직업사회), 이선철(참여연대 교문), 이선우(부산민중연대 대표), 이소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수인(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이수희(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 위원장), 이치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영민(노동연대 교문), 이영기(민주사회를위
 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영미(전국철도노동조합 본부장), 이영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위원장), 이윤배(세운재단), 이원태(분화연대 사무차장), 이원중(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이재경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원희(환경실용노동조합연대), 이경순(대기업노동조합을
 알리 대표), 이정희(여성정치포럼 대표), 이종구(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회장, 서울대), 이준태
 (여성연맹 위원장), 이준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이종수(새사회연대 전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차장), 이현(환경운동연대 대표), 이혜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상근연호사, 이종
 기)장기정보연대 대표, 임경민(기독교북부지역평화발전위원회 대표), 임동진(건강사회를위한치과
 의사회), 임성호(울산진보연대 대표), 임수연(전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임옥삼(화가), 임재
 경(해석/역로 연인구), 임종태(참여연대 김책사문학위원회 위원장)전 대표, 현진대, 임진택(법률), 임
 현영(민주노동연대교수 회장), 장창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국분회위원회 위원장), 장병기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장기훈(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장시기(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
 회 전 회장, 동국대), 장은숙(보통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장인호(건강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원민(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회장, 참여연대 교문), 장인욱(김치신문 대표), 진성현(건강사
 회를위한치과의사회), 진우희(대기업인권을 공동대), 진양호(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진종준
 (민주노총의구원전국사재단 대표), 정경년(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집행위원장), 정대희(상지대 교수),
 정동우(시원평의회 회장), 정영호(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정문숙(한국여성노동조합 대표), 정상
 역(원불교사회정책연구소 공동대표), 정상호(연인구), 정길호(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정이순(민
 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정용길(한국대학연합 회장), 정재현(가톨릭노동위원회 전 회장), 정
 재봉(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정종성(한성평화여성노동조합 창년단장), 정은숙(한국여성회 집행
 위원장), 정순영(기독교사회연구소 연대회의), 정태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정혜숙(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 위원장), 정희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 정현택(참여연대 공동대표, 실

관내)대, 조경숙(인문학시민사회단체연대 사무국장), 조은문(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회장, 카톨릭대), 조은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유복(마장전 참여사차시민연대 사무처장), 조화순(여성지도자개발원 이사장), 조희연(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회장, 성공회대), 주성복(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회장, 건국대), 주종환(민주화학술훈헌연감 대표, 참여연대 고문), 주원정(한국여성민주회 사무처장), 전상수(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채민석(인정사회를위한지카의사회), 최남훈(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정화(참여연대 공동대표), 최갑수(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회장, 서울대), 최단자(새대상을여는민주여성노동단체 공동대표), 최사복(영화계향군인회 대표), 최영도(참여연대 고문, 변호사), 최영애(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최영준(다함께), 최영태(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회장, 전남대), 최은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최유(실천불교승가회 대표), 하준태(KYC 사무처장), 한국영(한국어주어성인연설팀어 대표), 한상민(성국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한상원(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성수 후원회장), 한승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회장), 한종목(한국선교연대 공동대표), 황세웅(정부), 홍진표(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황성이(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 회장, 서울대), 황선(안녕영화비상사국농성장 단장), 황현삼(시민주권 대표), 황정아(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인영(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99국회김영프로젝트), 김 혁(99국회김영프로젝트), 이원영(99국회김영프로젝트), 박성락(전북민주동우회 부회장), 최 원(사회혁명회), 김주(불교연권위원회의 위원장), 윤영환(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고문), 백은광(언미디어백과사전), 이강화(삼성IT기술), 한관옥(사회혁명회 사무처장), 송재영, 류기전, 김교영, 박희상, 김해집, 변숙현, 한태용, 송재환(이상 통일중앙), 어희완(민주연론시민연합 활동사무처장), 김남희(한국전쟁 유족회), 이기자(총우어머어할 선인공동대표), 양재일(연문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김병태(새남회당연대 공동대표, 최병수(통일출판비하하는사관장), 박순희(민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지도위원), 주정현(새남회당연대 사무총장), 권오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향심수원회 명예회장), 원경(원정택연구소 대표), 이경주(시민연대 상적이동하는세상), 김경오(6월민주항쟁제승사업회 고문), 윤재학(인터넷 김영 '흰은 꽃')김재환(나눔문화 사회행동팀장), 이창준(의료연대 서울지부), 권기환(의료연대 서울지부) 이상 308명

우리의 세금을 무기 대신에 복지에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멋진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긴축재정에 나서고 있는 각국 정부들이 국방비 지출을 여전히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전세계 군사비는 1.7조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1년 전세계 최대 군비지출 국가로는 미국(1위), 중국(2위), 러시아(3위) 순이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약 5년동안 전세계 무기거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무기거래와 비교해 24%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세계 무기 수입의 14%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세계 2위의 무기수입 국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33조원의 국방비가 책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무기구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토록 많은 돈으로 국방비로 지출해서 연유공공체는 그리고 한반도는 더 안전하고 평화로워 필요하요?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돈은 도대체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더 과학적이고 치명적인 무기를 사; 대신,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보육과 교육, 주거와 의료를 보장해주는 데 썼더라면, 지구촌 빈곤 퇴치와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대처했다라면, 그리고 각국이 서로간의 신뢰를 쌓고 갈등예방을 위한 외교에 힘썼더라면 세상은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안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한반도를 비롯해 전세계가 무장갈등과 군사적 긴장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전혀 국방비가 적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나도 많이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보다 가공할 파괴력의 무기를 사는 데 쓴다면,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국가들은 더 큰 피해를 치루더라도 치명적인 무기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고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군비증강은 또 다른 군비증강을 불러오는 부에달릴 뿐입니다. 평화와 인류의 안전은 그 만큼 더 멀어집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유지하고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위협을 과장하고, 공포와 불안은 조성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거나 신뢰를 쌓기보다 군사력을 우선시할 경우, 그것은 권위적으로 처량과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제주 상공에서 광

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은 군사력 대비만을 강조한 경우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와 생태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시민에 대한 국가폭력이 만연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비증강은 평화권과 인권의 침해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군비증강이 결코 평화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군사강대국들이 그리고 한국이 나서고 있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각국이 공포와 불신의 정치를 중단하고 가장 시급하고 당연한 우리 삶의 위협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안보보장을 명분으로 한 군비증강이 서민에게 위협이 되고 결국 자신들의 평화와 복지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군비증강이 이루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일상화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군비경쟁은 즉각 종식되어야 합니다. 가장할 군사력으로 전세계 곳곳에서 무장갈등을 초래하면서 동시에 무기판매에 열을 올리는 국가들의 자살적인 군비축소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전세계적인 군비축소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40개 국가에서 130여개의 평화행동이 동시에 벌어져 이루어집니다. 인류 공동체를 위협하는 군비증강을 종식하는 것은 비단 한 국가의 집단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세금을 무기 대신에 복지에' 쓰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군의 일방적인 군사강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강경주민들에게 전세계 평화운동의 지지와 연대의 뜻도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2012. 4. 17

세계군축행동의 날 평화행동 참가자 일동

강정마을회 강정운사항한·축제사는 제주사를 개최자를 결실연동일협의 국제민주연대 나눔 문화 남북평화재단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연합 무기제로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연호사 모임 비폭력평화통일 평명평화경사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일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해군기지저지외평화의실현을위한범도연대폭위원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력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들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평화마을권 평화와통일을어는사람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운동원 흡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 이상 33개 시민·평화단체

새누리당은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오늘 새누리당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가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우리는 인연수설의 친족성폭력을 지지하려고도 사과는커녕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김 당선자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하며,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아울러 각기비달인 민심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고 당선시킨 새누리당은 김 당선자의 미의적 백담에 앞장서서 모습을 통해 끝까지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친족성폭력 가해자 김형태는 즉각 자진사퇴하라!

김형태 당선자가 과거 제수(동생의 지)를 강제 성추행한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감지 못하고 있다.

우리 여실단체들이 피해자를 만난 후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미 김 당선자의 성추행으로 인해 자살을 기도하는 등 수년간 정신적 피해와 수치심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당선자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내용이 공개되었고, 한 언론사의 음성분석에 의해 “동일인물의 목소리로 들 수 있다”는 결과가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당선자는 오늘까지 성폭력 사실을 부인하며 억각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인연수설 친족성폭력을 지지하려고도 사과는커녕 어떻게든 의원직을 지키려고 하는 행태는 물임치의 극치를 보여준다. 김 당선자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자진사퇴하라!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재원과 동시에 김 당선자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오늘 김 당선자의 자진탈당이 새누리당의 면과부가 될 수 없다. 친족성폭력이라는 재물을 지키는 후보를 뒷받쳐 공천하고 당선시킨 것은 새누리당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우리는 바로 지난해, 문재의 강용석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발빠르게 출당조치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밀리에 재영안을 무산시킨 만행을 복도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어제 밤부터 김 당선자에 대한 출당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오늘 아침 김 당선자의 자진탈당 선언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이 김 당선자를 출당 조치하여 재명코자 한 것은 김 당선자가 국회의원으로서는 부적격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김 당선자의 자진 탈당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하지 말고,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 당선자의 재명안을 철회하고 당원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우리는 반인륜적이고 반여성적인 후보를 공정한 새누리당이 김자해지의 자사로 김 당선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김형태 재명안' 국회 상원 대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사안에 즉각적이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김형태 재명안' 국회 상원을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에 돌입, 김 당선자가 19대 국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김 당선자와 같은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저지른 부적격 인사들이 다시는 민회의 원당인 국회에 한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끝까지 재명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김형태 국회의원 당선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즉각 자진사퇴하라.
2. 새누리당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유권자 앞에 사과하고, 19대 국회의원과 동시에 김 당선자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3. 지난해 강용석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정제요건에 여성인권 침해행위를 포함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성명등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18대 국회는 이런 치욕스런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19대 개원 전에 관련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4. 국회의원의 성추행, 성폭력 등의 근절을 위한 본질적 대응은 하지 않으면서 여성인권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주력하거나 선경적으로 대응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2012년 4월 18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세계상용어노원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장애여성재활을위한한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참여연주연대 울산여성회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원교교육회한전국학부모회 전남여성회 포항여성회 평화공동체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연결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골뿌리여성센터'여관' 성인지예산진국네트워크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연구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인권위원회 여성권장연대

<남북 군사충돌을 반대하는 긴급 성명>

남북한 양국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한다!

지금 남과 북의 말의 충돌과 위협은 사망 유례없이 심각하게 치닫고 있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언제 어디서 화약고가 터져버릴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광명성 3호 발사 실패로 내부 불안요인이 발생한 북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김일성 주석 100돌 행사를 비판하자 북한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부 집무실의 참호를 지날하는 듯한 크루즈미사일을 공개하자 북한도 이에 맞서 최고사령부 특별행동소조 이끈으로 3-4분대에 특이한 수단으로 도발근원을 초토화해버리겠다고 초강경 발언을 내뱉었다.

최고사령관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남과 북의 두 정상은 서로를 향해 마주보며 달리는 기차처럼 내모는 상황이나 다를 없다. 긴장이 쉽사리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다.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간의 남북관계를 실패를 남북대결 탓으로 돌리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상황이 가져온 치열하고도 비극적인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현재의 상황은 혹시나 우발적으로 작은 국지전이라도 발생한다면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민족의 운명이 종전통화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으니 이를 예방할 노력은 눈에 띄지 않고 뛰기는 방치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무기력한 현실을 주저앉아서 구경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지난 시절 수많은 젊은이들이 만천방을 뒤흔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걸었던 바로 그 비장한 각오로 민주주의와 평화와 통일을 외쳤던 우리들이 다시 앉아서 남북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촉구하고자 한다. 김정은 총수이요 모든 것을 좌명시킨다. 평화만이 민족의 삶 길이다. 남과 북의 양국은 우리의 호소에 귀 기울여서 현재의 긴장을 해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1. 남과 북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언행을 자제하고 즉각적으로 남북 핫라인을 가동하라.
2. 정부는 긴장해소의 일환으로 6.15 선언 발표 12주년을 맞아해서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라.
3. 우리는 국회와 시민사회 각계에 현재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평화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할 것을 제안한다.

2012년 5월 4일

남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비상 반전평화 대책회의 참가자 임동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드리는 호소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은 적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우근민 지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근민 지사에서도 잘 하시시며 감정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그 시작부터 권법과 반법으로 얼룩졌고, 주민 대다수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착적 정당성 없이 강행되어 왔습니다. 민주적 절차 준수와 주민 의견 청취와 수렴은 민주사회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감정만을 구립비 따위 인권의 절대보존지역 해제나 원년기년분 112호인 감정앞마당에 대한 행정명령 허가 역시 권법과 반법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와이, 괌, 수미 등 대다수 해군기지가 직면한 심각한 환경피해에 비추어 볼 때, 감정마을과 범선 인근의 전체의 자원 환경에 해군기지 건설이 미칠 심각한 환경적 피해가 과소평가되었음이 명백합니다.

더구나 지난해 국회에서 지적된 이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와 해군의 약속이 사실상 실현되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에서 지난 3월, 공사중지 명령을 예고하고 일종의 대수권을 차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근민 지사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군은 이리저리러한 미봉책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해왔고, 실질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할 의지도 실질적인 구상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직행위에 불과했던 해군 주도의 시뮬레이션이나, '부역할 지경' 등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의 크루즈 항만구역에 대해서조차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항만출입허가권을 관할 부대장이 행사한다고 함으로써 민군복합형은 뭇대기요 실제로는 원지적 군행위주로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감정마을에 건설되는 기지는 항공모함 선체에 필요한 규격으로 설계된 것이 명확하고, 15만톤 크루즈 선박이 기항하는 민항기능에 대해서는 언급에도 없었음이 틀림없습니

다. 15만톤 크루즈 선박이 실박할 민항 구상은 당초 정부가 도민들에게 제안한 것이지만, 정부 스스로도 현실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당초 제주도가 승인한 공유수면 매립사업 중단을 지체할 사유도 충분하고 나아가 공유수면 매립 면적자격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년민 도지사님,

수많은 국제사업이 부실사업으로 전락하여 주민들과 자치단체에 대응단위로 취약하고 있습니다. 국제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사담만립으로 병행기 수요예측과 부실한 타당성 조사가 그 원인입니다. 환공 이후에 후회한들 이미 파리된 자연환경과 주민 공동체의 피해, 그리고 자치단체가 치야한 경제적 손실과 부담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항만 관제권과 관리권을 이양 받는다는 식의 조암모사식 처방에 제주도와 강정마을 주민의 미래를 미지할 것이 아니라, 당초 민간복합형관광미항의 선체가 되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15만톤 크루즈 임출입 시용태이션 등 해군기지 건설의 근본 문제가 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객관적인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할 때입니다. 강정마을의 피해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제주도면 대다수가 우려하는 군항을 건설하면서 제주도민들과 강정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도 과연 무엇인지, 그것은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제대로 따져 봐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사중지 명령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유년민 도지사님,

공사중지 명령은 지금 현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급합니다. 주민들의 없는 공사장행으로 마을공동체는 파괴되었고, 해군기지 공사장행에 평화롭게 저항해온 주민들과 앞방통행식 공사장행으로 맞서는 해군과 경찰의 갈등으로 인해 2010년 공사착공 이래 무려 50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특히 구덩이 배위 발파가 장행된 올해에만 250명 이상이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제주해군기지 인근 주요거점에 대해서는 집회 자제를 금지함으로써 제압령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유년민 지사에서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 응하여 공사중지 조치를 강당해 주시기를 다시금 호소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구덩이 발파와 매립 공사가 아니라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실태조사입니다.

유년민 도지사님,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착공된 이래 정부와 해군은 조암모사식 인기용변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정부와 해군의 무성의한 자세를 보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 제주도지사로서 해군기지사업을 뒷받 치다한 문제점과 모순점에 정면으로

매주하여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용기와 민주적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2년 5월 7일

강우현(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회장, 천주교 제주교구 교구장) 장경구(경화회동일언어사관) 살인대
표) 김미희(한국어성탄체연합 살인대표) 권해효(방송연) 김경일(성공회 광주교구 신부, 생명평화결과
운영위원장) 김경희(한국어성탄체연합 공동대표) 김남옥(가톨릭평화 공동대표) 김규옥(한국어성탄체연
합 공동대표) 김미희(방송연) 김경, 노수사, 4.15남측위원회 위원장) 김진수(민주사회참여위원회사무
장 회장) 김해근(서울대 교수)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표(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
원장) 김인숙(한국어성탄체 연합대표) 김인숙(민주주의역량연구회 회장) 김진숙(민주노동 조합 시도위
원)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홍식(말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강경을 사살하! 특지사는
제주사를 공동대표) 남우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노범(노년, 대한불교조계종 화성위원장)
명수(민주노동당중앙 위원장) 문국현(경화회동일언어사관) 살인대표) 문정현(천주교청교구 인권위원장)
민주노동당 중앙 위원장) 박경호(노동자연대 공동대표) 박승호(서울대학교 중앙경화위원회 회장, 제주
경화회실질형성을위한천주교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재규(연극재단 이사장) 박지훈(민주연론시
연합 공동대표) 백영숙(출판이론 이사장) 박우삼(민주연론시연합 이사장) 박재승(변호사, 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종순(연극미술협회 회장) 박종진(경화회동일언어사관) 살인대표) 박
기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아영(서울대 명예교수) 박이순(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백봉희(대구 경
화회동일언어사관) 공동대표) 변영(국민권과 평화의 실현) 국책연구원에 대표) 김태성(민주연론시
연합 살인대표) 안길영(대우비교법과) 원우동(노동 공동대표) 양문순(농과 대학과 교수, 강경
을 사살하! 특지사는 제주사를 공동대표) 여희숙(경화회동일언어사관) 살인대표) 오병선(한국여성
운동가) 오종원(한국김포인대 살인대표) 유미향(한국성탄체문제대책위원회 살인대표) 윤희순(한국청
년연대 공동대표) 이승원(한국김포인대 살인대표) 이승원(한국연노동조합 위원장) 이상기(한국농민
회총연맹 회장) 이도훈(교수, 민주화기위한한국교수협의회 공동회장) 이석(출판이론대 공동대표) 이
성(민중과 중앙총연합 회장) 이시영(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철수(한국민주예술훈원합 부이사장)
이희숙(목사, 평화박물관 이사장) 이희학(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경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호중(천주
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장) 임광민(목사, 전국목회자성경평화위원회 회장) 임보라(목사, 천주교회) 임
소희(나눔문화 사무처장)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장석웅(한국교회노동조합 위원장) 강병영(목
사, 한국기독교교로교회 평화 사회위원장) 장상덕(위문교인위원회 사무총장) 정용원(21세기한국대
학연구원 회장) 정옥식(경화회동일언어사관) 대표) 정지철(한국민주예술훈원합 이사장) 김혜수(진 천주교
적노동조합 위원장) 심현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영택(참여연대 공동대표, 시민평
화포럼 공동대표) 조현철(목사, 예수삼기 대표) 지영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철학(대한불교조계종
신 교육원장) 최관홍(경화회동일언어사관) 운영위원장) 황재순(신부, 진 민주회총동맹기념사업회) 황
수(제주사회단체협의회 회장, 강경을 사살하! 특지사는 제주사를 공동대표) 현기현(목사, 강경을 사
살하! 특지사는 제주사를 공동대표)

이상 78명(가나다 순)

“5.24 평화와 균속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 “5.24 조치 2년” 성명서

“여성들은 남북의 갈등과 분쟁의 확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

매해 5월 24일은 세계여성들이 평화와 균속을 기원하는 평화의 날이다. 여성들은 이 날 자기 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군사비를 감축하고, 무력분쟁과 갈등을 중지하여 평화로운 세상이 앞당겨지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지난 2년 동안 5월 24일은 평화의 날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로 촉발된 남북의 갈등과 긴장을 가장 부정적으로 해괴한 “5.24 조치”를 위한 비평화의 날로 기억되고 있다. 2년 짝 이날 정부가 천안함 침몰에 대해 북한의 이른 바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시킨 ‘잠정적 조치’는 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해악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항구적 조치’로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평화는 더 멀어지고, 남북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공격, 전쟁의 위협, 그리고 불안은 점차 증가되어 왔다. 아울러 대북지원 단체들에 의한 대북 지원도 중단되어 북한의 취약계층인 여성과 어린이들이 인도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여성들은 현재의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인도의 지원을 실행하고 한반도의 분쟁과 갈등 상황을 개선하여 화해와 평화로 나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말의 전쟁을 중단하라”

최근에 남과 북이 서로를 자극하고 공격하는 말의 전쟁은 국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아한 상황까지 이르고 있다. 4월 13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4월 16일 유엔 안보리는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서울 광화문에서 일부 학생들이 북한 지도자를 비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로켓발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4월 18일 남한 정부가 북의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며 ‘서울의 모든 것을 날려 보낼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왔다. 국방부는 북한 지도부의 김무성도 집단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고 북을 자극하고 대통령도 북한지도자가 농지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기에 대해 북한은 남한에 대한 ‘혁명부리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며 북측을 경명했고, 남한에서는 대통령이 어린이날 청와대에 초대된 어린이를 앞에서 ‘북한은 말 안 듣는 나쁜 어린이’라고 하면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머지않아 북한도 그 얘기를 듣게 될 것이라 했다.

우리 여성들은 최근 남과 북 사이에 상대방을 자극하는 격한 말의 전쟁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남북의 주민들은 이런 말의 전쟁이 무려 갈등의 씨앗이 되어 실제의 전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다. 서로에게 상처주고 헐뜯하는 말로 인해 남과 북이 무너진 신뢰를 언제 다시 쌓을 수 있을지 걱정을 할 뿐이다. 남과 북의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위임된 정치적 책무가 한반도의 갈등과 분쟁의 악화가 아닌 대화를 통한 신뢰의 조성, 소통을 통한 화해의 길을 여는 것임을 인식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하기 바란다.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라”

5.24 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식량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의 취약계층, 즉 여성과 노인, 어린이들이다. 남반에서 5월은 어미의 날, 어린이 날, 스승의 날, 가정의 날, 성년의 날 등 사랑과 감사, 배려로 가득 찬 달인 데 비해, 북쪽은 5.24 조치로 인해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중단되었고, 그 고통으로 비정하고 잔인한 달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다. 유엔아동기금(UNICEF)에 의하면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10명 중 8명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하며 올해 4월에도 북한 당국에 의한 식량 배급량은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의 필수 권장량 600g의 66%인 400g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인천항에는 북한에 지원될 영양강화식품과 어린이 의약품 등이 북에 전달되지 못하고 묵어 있다고 한다(통일뉴스 5.16).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에 의하면 북한의 취약계층의 영양상징과 의료현실이 악화되어도 지원물품이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최근의 악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도적 물자의 전달여지도 규제한 5.24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여성들은 인도적 대북지원까지 가로막는 5.24 조치가 하루 빨리 철폐되어 고통 받는 북의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에 대한 영양식,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막대한 군사비를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복지비로 전환하라”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인 오늘 여성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남한 정부의 군사비 지출과 이에 비해 초대한 여성과 아동 복지 현실에 절망을 금할 수 없다. 올해 한국의 국방비는 33조원이고 14.3%의 무기수입을 결정할 계획으로 세계2위의 무기수입국이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막대한 군사비와 무기수입이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현재 1:99의 극단적 양극화와 소비가 극도로 위

축되는 경기침체, 비정규직 증가로 인해 악화되는 사회적 안전망과 이에 따른 불안으로 살아남으려는 생존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여성들은 여기서 가장 큰 사회적 약자로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1.8%에 달하고 육아 부담도 각도로 취약하며 양아화와 사회적 불안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게 생존을 위한 좋은 일자리와 실업등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보장되는 인간안보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여성들의 안녕과 복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의 변화를 위해 남북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의 길로 진화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아울러 여성들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반도에서 남북의 신뢰회복과 대화와 협상, 평화형성과정에서 여성들의 안녕과 복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가 평화안보분야의 정책의 반영되어야 하며 정부는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여성들은 남북의 평화 형성을 위해 남북의 긴장과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내외 여성들과 연대할 것이다.

2012년 5월 24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대진평화여성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 새세상을여는 전주교여성공동체, 새우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연연대,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원안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어성노동자회, 한국어성민우회, 한국어성연구소, 한국어성의전화, 한국여성감예인연합, 한국어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한반도 및 동북아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한·미·일 해상훈련 등 공격적 군사훈련 중단하라!

한국군과 미군, 일본 자위대 등이 참가하는 연합군사훈련이 잇따라 실시된다. 6월 21-22일에는 일본 자위대가 정식 참가하는 첫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이 제주남방 해역에서 실시된다. 이어 23일부터 25일까지 서해상에서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22일에는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한미연합 통합화력전투훈련이 실시된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킬 일련의 군사훈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은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되었다. 국방부는 이번 연합훈련이 "정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달 일본과 군사정보보호정보조약(GSOBIIA)과 콜론및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강행하려다 사회적 반대에 직면한 바 있다. 반면 한미일간 군사훈련이 정례화되었다는 것은 이미 상요간 군사 정보 교류가 상당한 합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한다. 즉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나 국회의 의견수렴과 동의 과정조차 없이 일본과의 군사협력관계를 밀실에서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다.

둘째, 한미일 해상훈련은 단순한 인도적 성격이 아니라 공격적 군사훈련이다. 국방부는 '수색 및 구조훈련, 해양차단작전 등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해양차단 작전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입(PSI)의 일환으로 공해상에서 의심되는 선박을 저지하는 군사적 행위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PSI는 공해상유형행위칙(유엔해양법 협약 87조)과 영해부해통항권(유엔해양법 제17조, 19조, 23조) 등 국제법에 반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셋째, 연이어 실시되는 한미연합 해상훈련, 한미연합 통합화력전투훈련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군은 초지위성 네트워크 핵잠수함 등 항모전투단을 동원하고, 한국 해군측은 구축함과 잠수함, 수상함, 경비함 등을 동원하여 서해상에서 대잠훈련 등을 실시한다고 한다. 한미연합 통합화력전투 훈련에도 육군 5군단 예하 1기갑여단, 5포병여단 등 11개 부대와 항공작전사령부 예하 6개 부대, 공군 16개 편대, 미군 아사치 1개 부대 등 총 38개 부대, 2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F-15K 전투기와 KF-16 전투기의 폭탄 부하, K1A1 순차와 미군 M2A3 브래논리 상급차의 포격, 아사치 헬기의 기총 사격과 대인지기 미사일 발사 등 국지전도 치를 수 있는 규모로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도 벌인다고 한다.

참모집단을 동원한 훈련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자 대륙군 라갈리어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한국, 일본과 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게 이러한 대남군 군사훈련은 충분히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같은 대남군의 공격훈련은 공격 적지와 격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적멸을 노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어떤 국가의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을 해하거나 기타 "유연의 목적에 위해 되는 방식의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threat or use of force)"을 금지하고 있는 유연원장 제2조 제4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한일 군사협정 체결 추진, 지난 한미2+2 회의에서는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 강화 선언,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잦아 등 일련의 사건들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형성하고 한미일 MID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연초 선국방전략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을 전후로 일본과 한국을 동원한 미사일 방어체제(MID) 구축, 주한미군 전략중상과 한국에 대한 무기판매, 대량살상무기탄위학전과 대규모 강습상륙작전 등 이른바 북한 규탄사태와 관련된 전쟁연습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비롯한 일련의 군사훈련이 또 다른 군비경쟁과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동북아 신냉전의 전조적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함께 북한과 중국에 대한 공격성과 견제 의도가 드러나는 전쟁연습을 벌이고,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나아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게 되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은 심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동북아에서 전쟁 간 대결을 초래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요원하게 할 것이다. 올 봄에 중국과 러시아가 100주년 만에 처음으로 연합함대를 무려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서해에서 훈련을 벌이는가 하면 일본이 "북 로켓 발사"를 명분으로 자위대 이지스함을 서해에 파견하려는 데 이어 미 함모집단이 서해 깊숙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서해가 분쟁수역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한일 군사협력은 일본의 군사화, 무장의 범위를 제공한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군대보유와 무력사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조처 없이 평화헌법을 무력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제국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군국주의자들은 폭도 영유권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은커녕 '한반도 육사사 자국민 구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뻔뻔스럽게도 호시탐탐 재침략의 기회를 노리면서 한일 군사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군사정보 공유나 물품 및 서비스 상호제공 등의 과정에서 주권 침해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이번 한미일 군사훈련은 해양안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 남방에서 실시된다. 이는 앞으로도 해양안보라는 이름을 내세워 미국은 물론 일본의 최첨단 군함들도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많은 문제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가 대중국 권초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럴 경우 제주해군기지에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전후하여 미군 뿐만 아니라 자위대 함정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대평양전쟁 말기 제주도를 초도화시킬 수도 있었던 '7.7호 작전'을 기억하고 있는 제주도민에게는 자위대 함정이 임항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름 돋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어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각종 공격적인 연합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국, 미국,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2. 6. 21.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강성마음회, 경제를넘어,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연합, 농민약국, 무기제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사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연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친역시민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범민특위전국연대(준), 불교평화연대, 비폭력평화물결, 사회진보연대, 새난희망연대, 서울의소리, 세상을바꾸는민중의힘, 시민평화포럼, 안중근희사기념사업회, 안티ZMB,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우리민족연방재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학생평진, 전쟁없는세상, 제주군사기지지지와평화의실실현을위한영도연대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적지를위한한국대책회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통합리보당, 평화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평화파울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올별도장군기념사업회

(총 55개 단체)

무장갈등예방국제네트워크 동북아시아 지역운영위원회 참가 불허 항의 성명서

1. 2012년 7월4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무장갈등예방을위한국제네트워크'(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AC) 동북아시아 지역운영위원회가 열린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 예정인 평화공동체(이하 상회) 정경란 정책위원장의 북한주년접속 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2. '무장갈등예방을위한국제네트워크'는 2001년 유엔 사무총장 코키 아난이 무력분쟁 예방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요청해 조직된 네트워크이다. 전 유엔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조직된 동북아시아 민간의 모임을 전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하지는 못한 망명 이 모임의 참가조차 막는 행위는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만한 일이다. 정부가 '남북일 코리아의 통일을 높이고자 한다'면 정부와 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가 가능하다는 국제사회의 상식에 맞게 행동하기를 결심해 촉구한다.

3. GPAC 동북아시아는 동북아시아 민간차원에서 분쟁 예방과 평화 증진을 위해 2005년 조직되어 매년 지역운영위원회는 개최하고 있다. 올해 이 회의에 북한의 참석이 예상되고 있다. 이 회의가 남북교류협력, 국가안전보장, 친서유지 또는 공공공리(공공이익)에 대한 명백한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정경란 위원장의 회의 참석을 불허한 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신고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처분이다.

4. 통일부는 정경란 위원장이 2012년 2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남북해외 실무접촉에 참여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북한 주민접속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제회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민개의 사안을 근거로 신고수리를 거부한 것은 민간의 남북실무접촉에 대한 보호행위로서 통일부의 직권남용이며 무당한 조치이다. 특히 다른 신청자들에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촉신고를 수리한 통일부가 같은 사안으로 신고한 정경란 위원장만 재관에 제1차 공인 미결의 사안을 이유로 접촉을 불허한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을 잃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내려진 처분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처사로서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3. 평화를연대(여성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따라 여성이 분쟁 해결의 당사자로서 분쟁 예방·관리·해결이 되는 과정과 관중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안전한 개입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GPIAC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특히 선고 수리 거부물 당한 동경만 위원장은 2003년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열린 GPIAC 동아시아회의에서 GPIAC 동아시아를 만장일치로 결성한 당사자 중 한명으로 1325호 이행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관심(Friends of 1325)의 일원인 한국정부는 여성들의 분쟁예방과 평화 증진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지원하기를 촉구한다.

武力紛争予防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 東北アジア地域運員加不許可にする抗議明書

1. 2012年7月6日から8日まで、ロシアのウラジオストークで「武力紛争予防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東北アジア地域運員が開かれる。統一部はこの議に韓代表として加予定である「平和をつくる女性」チョンギョンラン政策委員長の北朝鮮住民との接中告受理を拒否した。

2. 「武力紛争予防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は2001年連事務員であるコフィアナンが武力紛争予防のため、市民社に加を求め組織されたネットワークである。連事務員の求めによって組織された東北アジアの民間を、現連事務員を排出した韓政府が支援協力せずこのへの加さよ妨げる行は、防的な嘲笑の象となるはずべき事案である。政府が「グローバル 코리아」の品格を高めようとするならば、市民社との協力を通して平和が成し遂げられるという際社の常識に調を合わせて行動することを切に願う。

3. GPPAC東北アジアは、東北アジアを民間のレベルから紛争予防平和促進するために、2005年に組織され、平地域運員を開催している。今年、この議に北朝鮮の加が予定されている。この議が、南北交流協力、家安全保障、秩序維持、公共の福利を損なうという場内な懸念が無いにもかかわらず、統一部がチョンギョンラン委員長の議加を許可しないことは「南北交流協力に関する法律」の申告趣旨に前年から反する分である。

4. 統一部はチョンギョンラン委員長が2012年2月9日の615共同宣言南側委員の南北海外務接にわり「南北交流協力に関する法律」に違反した、北朝鮮住民との接を制限すると表明した。際議と全く係のない別例の事案を根に申告受理を拒否した事は、民間の南北務接にする根拠行であり、統一部の職用という不行である。特に、別の申請者達には「南北交流協力に関する法律」によって接中告を受理した統一部が、同じ事案で申告したチョンギョンラン委員長のみを裁判で保留中である未決の事案を理由に接を許可しない事は、合理性と公平性に欠ける恣意的な判によって下された分である。「南北交流協力法」の基本精神に照って蒸返されるべき分である。

5. 「平和をつくる女性」は国安保理決議第1325に基づき、女性が紛争解決の当事者として紛争予防・管理・解決の全ての課題と活動において女性の同等な加と完全な介入を保障することを求め、GPPAC活動に積極的に加してきた。特に、申告が受理されなかったことを受けて、チェンキョンラン委員長は、2003年フィリピンのマニラで開かれたGPPAC東アジア議でGPPAC東北アジアを作ろうと決めた当事者の一人として、1325履行の活動に積極的にしてきた。国安保理決議1325(Friends of 1325)の一員である韓政府には、女性連の紛争時と平和活動を妨害せず、支援することを求める。

平和を作る女性、連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참여성대

2102년의 선택, 평화! - 정전 59주년에 즈음한 7.27 평화선언

헤아릴 수 없는 원명과 재산 피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흔을 남긴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 체결로 끝지던 지 59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만세기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립도 또다시 많은 이가 죽고 나갔으며 물질적 정신적 손실 또한 막대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한반도와 주변의 군사적 갈등과 긴장이 정전협정 이래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평화와 협력의 길을 찾기보다 갈등과 분쟁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다시 군사주의와 냉전적 견제각기의 대리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급세기 초 한반도가 무였던 화해와 협력의 꿈은 실전 이래 가장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상황 속에서 질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희망 대신 새로운 군비경쟁과 갈등의 악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전 59년, 분단된 우리사회의 실정을 돌아보면,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경제위기가 깊어지고 경제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 민중의 삶이 총체적으로 파탄되고 있습니다. 이젠 되면 민생복지와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국가안보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만합니다.

이제 정치군사적인 적대행위와 군비 경쟁은 평화적 협력으로 대체하고,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소모되는 사회적 에너지와 비용을 경제회생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돌려야 합니다. 군비를 줄여서 복지에 써야 합니다. 국가가 외부 위협을 핑계로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소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과 북의 협력으로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남과 북, 그리고 동북아시아 주변국과의 평화와 협력은 세계가 처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경제회생의 물과구며 생존전략입니다.

북한과의 화해 협력이 소용없다가나 북한이 태도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더러는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위기에 빠진 북한 생존과 건전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개선하고 고쳐야 할 냉전 분단의 잔재들도 잔존합니다. 그리

나 내걸적 태도와 우월감을 가지고 북을 봉쇄하고 압박해서 지난 5년간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적대감과 군사적 갈등은 커지고 심려의 기회만 사라졌습니다. 한반도는 더 불안해졌고, 도리어 봉쇄된 북한의 주민들과 더불어 봉쇄의 주체인 우리 자신까지, 양측이 모두 고립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동북아 전체의 군사갈등과 대결을 촉진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전체의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6.15선언 이후 지난 10년간 제대로 실현해보지 못하고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한반도 평화협력 작업에 진지하게 제대로 부자해야 합니다. 2012년 대선을 통해, 그리고 2013년 정권 60주년을 맞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남은 냉전의 시대, 무한갈등과 군사대결의 시대로 뒷걸음치는 상황을 제대로 그대로 되돌리는 안 됩니다.

2013년 정권 60주년이 되는 대선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전환의 때, 한반도 평화의 귀년으로 만듭시다. 늦어도 2013년 7월 27일까지 60년 정권상환을 공식적일 황금적 평화방안 마련을 위한 남북 북, 그리고 관련국들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정부 일기 전에 한반도 평화협정을 실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5.21조치는 철회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합니다. 6.15선언, 10.4선언에서 합의한 신뢰구축 방안과 교류협력 계획을 복원하고 더욱 발전시켜 남북의 화해와 평화봉양을 촉진해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핵무기와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고, 6자회담 합의대로 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동북아시아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대결은 대결을 부릅니다. 서로를 군사적으로 자각하는 행위를 줄이는데 남한이 보다 성숙하고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공격적인 군사훈련이나 무력시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한일군사협력이나 한미일 군사협력 같은, 냉전시대여조차 상상하기 힘들었던 역내 권가르기를 국민 합의 없이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평화와 협력은 대결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생존전략이며 동북아시아 시대의 여명을 열어야 할 수단입니다. 이제 만으로는 민주화된 북지도가, 앞으로는 평화협력의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갈등과 분쟁의 전원지가 아니라 남과 북은 물론, 동북아 모든 나라가 공존하고 상생할 비전을 주도하는 평화협력의 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2012년 대선을 계기로 경과를 초월해 이 새로운 국가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합니다. 민주주의, 복지와 더불어 평화의 길을 선택합니다.

2012. 7. 26.

2102년의 선배, 평화! -

정권 59주년에 즈음한 7.27 평화선언 참가자 일동

작산(스님) 경기갑(통합진보당 대표) 강동수(진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장동휘(통합진보당 의원)
장만일(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정남(서울신문지부 수석부위원장) 강신민(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장신화(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장영직(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강영철(한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총무) 장영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장중학(한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호남지회장) 장권규(경향신문지부 지부장) 장철우(민주주의를 위한 연호사모임 통일위원) 장동현(우리신학연구소 소장) 고승화(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남지회장) 고영근(부원장년회 회장) 고영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고이환(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 고원희(사)평화지평연구소 공동이사장) 구갑우(참여연대평화교육센터 실행위원, 목원대학원대학교 교수) 구용희(CBS지부 지부장) 권기진(한국방송광고공사지부 지부장) 권미영(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 권미택(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권성환(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권영국(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노동위원장) 권오환(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상임대표) 권영선(참여연대 선출직집행위원) 김경호(북사, 예수살기 회원) 김경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강진(민주통합당 의원) 김광철(예수살기 회원) 김교민(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호서대 교수) 김기석(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자분회원) 김기욱(민주화발전위원회) 김기욱(민주화발전위원회) 김기욱(인도차량생명공동체 운영위원) 김근욱(노동연합 공동대표) 김규중(민주화를 위한한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김관(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근환(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기남(진국국민연합 조직국장) 김기영(포항)BKC지부 지부장) 김기준(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김나곤(광주)MBC지부 지부장) 김남근(참여연대 집행위원회부위원장) 김태환(G)지부 지부장) 김덕진(천주교연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도형(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사무총장) 김동현(광교, 예수살기 회원) 김두환(민주통합당 대동방선거 예비후보) 김두원(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수석부위원장) 김두원(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김영준(민주민주주의사실정치추진(기남)단체연대회의 회장) 김민준(사)고양새마을사업연호회 대표) 김병관(광주전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김병대(평화재향군인회 고문) 김보형(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실장) 김부희(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상근(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김현수(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선>회장) 김성근(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처장) 김성하(한국국민연합 부대표) 김성수(예수살기 회원) 김성준(예수살기 회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중앙운영위원) 김성준(평화포럼<선>여성회 이사장) 김성일(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문화사회연구소) 김세진(서울대 정치외교학과교수) 김인태(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김영석(대전충청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김영희(신부) 김영민(예수살기 회원) 김영호(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전충남지회장) 김홍일(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김용주(OBS리빙포함지구 부부장) 김용현(참여연대평화교육센터 집행위원, 동국대북한학과 교수) 김
 용석(동아일보신문인재지구 부부장) 김인철(교무, 사)생태지정연구소 공동이사장 김인국(신부) 김인
 화(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자매위원장) 김인희(인정평화와통일음악하는사람들 공동대표) 김장윤(전
 국민민연합 부의장) 김재명(참여연대평화교육센터 집행위원, 국제노동신문기자) 김재영(평화재향군
 인회 고문) 김정길(민주통합당 대동령선거 예비후보) 김정태(신부) 김정원(한국인민예술인총연합 임
 천지회장) 김정영(예술가기 상담대표) 김성수(평화물안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정원(참여연대 운영위
 원회부위원장) 김성주(학술단체협의회 연구위원장, 한양대 교수) 김정훈(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
 부장) 김세남(통합진보당 의원) 김승태(참여연대평화교육센터 집행위원,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김
 종모(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교육팀장) 김종실(신부) 김준옥(YTN지구 부부장) 김종철(녹색평론
 대표) 김주영(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주배(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여
 성인위원회) 김준형(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언론위원장) 김지복(예술가기 회원) 김지현(부산평화
 와통일음악하는사람들 운영위원) 김진(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김진국(민주주의를
 위한연호사모임 부의장) 김진욱(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진희(신부) 김현수(대구평화와통일음악하는사
 람들 공동대표) 김향란(평화와통일음악하는사람들 공동대표) 김철호(예술가기 회원) 김태군(신부) 김태
 인(전국실기시험위원회중앙회 공동대표) 김혁수(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변호사) 김한기(청주방송지
 부 부부장) 김현(원불교 교무) 김현(연보신당부천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석(OBS본부 본부장) 김현
 역(연문노조 부부장) 김현호(예술가기 회원) 김형태(평화와통일음악하는사람들 자문연호사) 김혜림(서
 명평화포럼 운영위원, 불경운동연합 대변사) 김홍술(부산평화와통일음악하는사람들 공동대표, 예술가
 기 회원) 김홍현(예술가기 회원) 김형영(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 김효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
 지부장) 김홍원(평화와통일음악하는사람들 중앙운영위원) 나용민(한국인민예술인총연합 광주지회장)
 남미영(구도당원평화와통일음악하는사람들 공동대표) 남부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남상식
 (SBS본부 본부장) 노경주(국제평화와통일음악하는사람들 사무국장) 노광준(경기방송지구 부부장) 노경
 선(평화와통일음악하는사람들 지도위원) 노정원(전국민민연합 사무처장) 노종현(YTN지구 부부장) 노
 최환(통합진보당 의원) 태원(스님) 대일(스님) 도경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도명(스님, 대한
 불교조계종 화상위원장) 도윤(스님) 류영희(경기여성당지역합 대표) 유성우(EBS지구 부부장) 유연복
 (한국인민예술인총연합 경기지회장) 유상원(예술가기 회원) 유승환(인드라당생명공동체 운영위원) 영
 재영(신부) 영진(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영호(사)정책지원연구소 사무처장) 문남원(평화와통일음악
 하는사람들 상담대표) 문대훈(예술가기 고문) 문성주(군산평화와통일음악하는사람들 공동대표) 문정원(전
 주교정지구원 전국사제단 신부) 문혜진(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홍근(예술가기 회원) 문홍자(평화와
 통일음악하는사람들 공동대표) 민단기(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 전 녹색교총운동 사무처장) 민병원(통
 합진보당 최고위원) 박경(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복원대 교수) 박경호(녹색연합 공동대표) 박정훈
 (한국인민예술인총연합 부이사장) 박덕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장) 박동호(신부) 박태준(인권
 재단이사장 상담이사) 박기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박태준(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서
 울대 교수) 박성원(MBC캐미플류시지구 부부장) 박성희(전주평화와통일음악하는사람들 공동대표) 박서
 진(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화강위원장) 박석원(평화와통일음악하는사람들 중앙운영위원) 박석훈(민
 주연문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순실(중국대 교수) 박순희(전주교정지구원전국연합 지도위원장) 박영진
 (참여연대 언론기김영희원) 박영숙(발달이 지단 이사장) 박유림(평화와통일음악하는사람들 자문연호사)
 박유원(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박우영(민주연문시민연합 이사장) 박원석(통합진보당 의원) 박재창
 (한국인민예술인총연합 서울지회장) 박재성(제주)IBC지구 부부장) 박정기(전국인민민주유가족협의회

교수) 박영은(기독교철학포럼 운영위원) 박종래(한국인주목예수인총연합회 총무 시회장) 박종원(예수삼기 회원) 박종원(남성평화재단장외문부 공동대표) 박순임(광주기독교평화포럼임용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박종성(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박수민(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사무처장) 박승기(한국인주목예수삼기회 설립자) 박승진(한국교회원로노총총무 사무처장) 박정현(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처장) 박진성(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이 곳문예연구회원) 박정섭(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 평화지평연극소 부소장) 박지현(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이 곳문예연구회원) 박태현(스카이라이프 지부 사무장) 박현용(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박원석(한국교회원로노총총무 지도자분위원) 박형규(목사,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박옥재(한국교회원로노총총무 사무처장) 방영식(예수삼기 장의대표) 방인성(목사, 예수삼기 회원) 방성환(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변호사) 방원섭(예수삼기 회원) 배성원(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문신대 교수) 배은성(한국인주목예수삼기회 회장) 배영식(한국인주목예수인총연합회 전임이사) 배재광(민주통합당 의원) 배종영(평화포럼임용여는사람들 장의대표) 배재희(민주교회의 구원 한국연합 사무총장) 백기환(통일전대연구소 소장) 백복원(민주통합당 의원) 백철우(대구평화포럼임용여는사람들 장의대표, 예수삼기 회원) 변인(스님) 변공(스님) 변안(스님, 조계종총교사회연구소 소장) 변일(스님) 변희(스님) 변경수(예수삼기 회원) 변현(남성평화포럼임용여는사람들 공동대표) 변준기(한국민연합 조직위원장) 변준기(선부) 보현(스님) 보원(스님) 봉암(스님) 사근기(한국교회원로노총총무 부위원장) 서기호(통일전대보장 의원) 서보희(참여연대평화연구센터 설립위원,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서복환(선부) 서영(서울평화포럼임용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서우석(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호원대 교수) 서관(전국국민연합 연구위원장) 서창호(평화포럼임용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서효일(전국국민연합 집행위원장) 신광(현종교 중앙총연합회 회장) 신희(스님) 신재삼(평화포럼연구회 공동대표) 신성민(선부) 신하진(민주통합당 대동방선기 예배주보) 신종만(사)교향과주어성연우회 지역어동원대문틀이 센터장) 송경승(한국전국예수인총연합회 전임이사) 송기호(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최고총무위원장) 송인홍(선부) 송하(남성평화포럼임용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수진(스님) 신성수(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이 곳문예연구회원) 신정길(부원평화포럼임용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신정희(한국인주목예수삼기회협의회 이 곳문사지회장) 신대갑(민주연호사모임 운영 공동대표) 신자원(한국인주목예수인총연합회) 신원(사)구인대사대어영회 회장) 신장삼(통일전대보장 의원) 신재환(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이 곳문예연구회원) 심호일(전국국민연합 공동회장) 안길정(제주한미교번제교통신동문부 공동대표) 안병준(구교단평화와포럼임용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안병욱(가톨릭대 교수) 안선희(사)교향과주어성연우회 과주총무위원장) 안영도(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전 생경대위원) 안영수(사)교향과주어성연우회 연우회협의회 이사장) 안종석(선부) 양동숙(범교단임용여는사람들 새삼가민대운동본부 본부장) 양재철(목사, 예수삼기 회원) 양진(예수삼기 회원) 양은하(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부산대 교수) 여규환(한국인주목예수삼기회 주협의회 회장) 여영(평화포럼) 이대익(사)이성회 장의대표) 연희(스님) 영철(국)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소수자위원장) 영희(스님) 영(스님) 영현(스님) 오종원(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원) 오종택(남시시지부 사무장) 오하진(평화포럼 사무처장) 오해연(평화포럼임용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원(스님) 원공(스님) 원영민(한국교회원로노총총무 지도자분위원) 원용환(문화연대) 서광대 집행위원장(교수) 원용환(대전중성평화포럼임용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원재은(부원어영회 회장) 원은재(민주주의를위한연호사모임 사무처장) 유선하(통일전대보장 최고위원) 유순홍(한국전국예수인총연합회 전임이사) 유진희(부원연총연대 집행위원장) 유영진(민주교단전연대 대표) 유요행(예수삼기 회원) 유이규(선부) 유이달(연교)양평영공동체 설립위원장) 유성길(연안평화포럼임용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유성수(노총교단연구소 대표) 유은지(예수삼기 교회) 유미향(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설립대

1E) 윤영환(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윤종식(참여연대 정책개발협력원, 인허대 교수) 이강민(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동원서회장) 이강서(정부) 이강태(한국연노노총조합 위원장) 이강현(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이근중(예수당기 회원) 이경주(참여연대정책개발협력원) 김병익(연과대법학사 교수) 이상진(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대법정책연구위원) 이나희(평화과학연구원) 고은(이남주(참여연대정책개발협력원, 실용외대공공학사 교수) 이태훈(참여연대평화과학센터) 김병익(실용외대 교수) 이도훈(민주과학위원회한국교육협의회 상임의장) 여승기(한국정치연구협회 중앙회 지역부장위원장) 이봉수(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임이사) 이만호(한국교회원노총조합 지도자분위회) 이명순(제일신학대학교 부장) 이명순(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발전위원회) 이명희(인도네시아생명공동체 운영위원, 경상사 공부실장) 이이성(민주통합당 의원) 이이숙(민주노총부동산공로지구협의회 회장) 이인중(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희망에스앤에프) 이병(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 환경개발연구소장) 상임이사) 이병호(한국교회원노총조합 총괄사무장) 이병환(김치평화공동협의회)사관) 공동대표) 이부영(한국교회원노총조합 지도자분위회) 이상희(가톨릭평화교회 회장) 이상희(정부) 이석일(민주평화통일위원회)사관) 공동대표) 이석진(한국민족민주주의자협의회 수도권지회)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세주(부서, 예수당기 회원) 이소하(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이순(강원일보지구 부장) 이수영(한국교회원노총조합 지도자분위회) 이수희(한국교회원노총조합 지도자분위회) 이송희(참여연대 정책사무처장) 이안희(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이이모(사)고양과주여성민우회정책기획과장(이희자)김민지(김남) 권대성) 이영민(정부) 이영우(KNN지구 부장) 이영희(아리랑국제방송지구 부장) 이영희(한국교회원노총조합 지도자분위회) 이원(아세아인문문화인대 대표) 이원환(원주YMCA지구 부장) 이원환(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원환(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이원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위원) 사무처장) 이원환(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상임이사) 이원환(평화통일위원회)사관) 공동대표) 이재성(전 통일부 장관) 이장기(통일선교당 최고위원) 이장기(사)고양과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 이성희(인도네시아생명공동체 정책위원) 이지훈(참여연대정책개발협력원, 환경대법학사) 이사) 이종원(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이종원(경기남부평화와통일위원회)사관) 공동대표) 이창국(서울신문지구 부장) 이창국(부동산개발총연합회 대표) 이창연(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 인허대 교수) 이희수(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이사장) 이희선(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장서회장) 이준(한국교회원노총조합 경기지구) 이송희(한국YMCA전국연맹 기획국장) 이태희(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광호(한국연인연합 상임의장) 이희원(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대법정책연구위원) 이희경(인도네시아생명공동체 남부지구총연합회) 고은) 이희봉(평화과학연구원) 이희성) 이희환(인도네시아생명공동체 정책위원) 이영복(방송사)김남지구 KNB문화부장) 이원환(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정책위원) 이혜진(남한민보) 최고위원) 이재환(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변천위원) 이희송(한국정치연구협회중앙회 지도위원) 이효진(부산일보 지구 부장) 이희원(민주연문지인연합 사무처장) 이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임이사) 임병호(한국교회원노총조합) 임철(부장) 임소희(나눔문화 사무처장) 임승재(평화통일위원회)사관) 중앙운영위원) 임환중(인도네시아생명공동체 공동대표) 임승경(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위원) 임정희(문화재단)대내대 공동대표)교수) 임종태(참여연대 정책개발위원, 문선대 교수) 임종희(평화통일위원회)사관) 공동대표) 임경(고양대학교)재연대) 학생회장) 차선(스님) 차선(스님) 차민(스님) 차용(불교평화재단) 부장)장남) 공동대표) 장원(한국교회원노총조합 정책실장) 장남(한국민족민주주의자협의회 부회장) 장동훈(신학) 장석용(한국교회원노총조합 위원장) 장영석(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장) 장원(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과사)장남)위원장)장남) 한국교회원노총조합) 전남)지구

장) 장주영(민주주의위원회사무소모임 회장) 장창원(경기남부평화와통일유어는사람들 공동대표, 예수들이 회원) 장하나(민주통합당 의원) 장태욱(한국교회원도농조합 지도자분회원) 장미영(한국민족애송인총연합 사무총장) 장병영(신명평화와통일유어는사람들 공동대표) 전승수(사)생애시정연구소 소장) 전승수(하숙단체협의회 운영위원, 동국대 교수) 권철일(평화대담군인회 고문) 권철원(한국교회원도농조합 대구지부장) 정경관(시민평화포럼 공동운영위원장) 정대원(IBC본부 재무장) 정승환(전국침거민회협의회중앙회 공동대표) 정승영(관 통일부 장관,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정병희(평화대담군인회 고문) 정석원(신부) 정영하(IBC본부 본부장) 정우원(예수들이 회원) 정옥식(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 평화대담회 대표) 정지창(한국민족애송인총연합 이사장) 정진화(한국교회원도농조합 지도자분회원) 정진우(통합전보당 의원) 정재영(한국민족애송인총연합 전남지회장) 정혜희(하숙단체협의회 운영위원, 전북대 교수) 정태연(이신평화와통일유어는사람들 공동대표) 정태욱(한국교회원도농조합 지도자분회원) 정철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정현배(참여연대 공동대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학숙(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 중산단체연동본부 사무처장) 조미란(부정가담회노동시책 회장) 조진화(한국민연맹 공동회장) 조은문(하숙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가톨릭대 교수) 조승원(민주주의위원회사무소모임이사) 조영진(민주주의위원회사무소모임미국국제연구위원장,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 조영희(평화유어는사람들이 이사) 조윤식(한국교회원도농조합 울산지부장) 조원석(한국민족애송인총회국무위원회 부회장) 조원순(한국민연맹 집행위원장) 조원철(평화와통일유어는사람들 중앙운영위원, 예수들이 회원) 조희순(예수들이 고문) 좌재연(민주주의위원회사무소모임 사무처장) 주영숙(부평평화와통일유어는사람들) 공동대표) 주정현(평화대담군인회 공동대표) 지공(스님) 지영(스님) 지영원(불교노동연합 공동대표) 지주영(하숙단체협의회 학술위원장, 서강대 교수) 지홍(스님,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정경순(기독교사회연고연대 상임대표, 교단함께 사무총장) 정경(민주통합당 의원) 정종유(한국민족애송인총연합 전북지회장) 차재원(한국교회원도농조합 경남지부장) 천나정(민주위원회사무소모임 임위원장) 천호원(통합전보당 최고위원) 평화(참여연대) 공동대표, 조계종 선 교목위원장) 천근아(새마을유어는사람들이성공세계 대표) 최인화(민주통합당 의원) 최병상(부평평화와통일유어는사람들) 공동대표) 최사득(평화대담군인회 상임공동대표) 최성기(전국침거민회협의회 부회장) 최수원(한국민족애송인총연합 대구지회장) 최완진(평화유어는사람들이 운영위원) 최영남(대전(IBC)지부 재무장) 최영재(한국민연맹 대협실장) 최원석(민주통합당 의원) 최현국(목사, 예수들이 총무) 최정원(평화대담군인회 상임공동대표) 최주희(민주주의위원회사무소모임 운영위원) 하순수(신부) 한강희(해남평화와통일유어는사람들 상임대표) 한관중(한국교회원도농조합 위원장) 한명숙(민주주의위원회사무소모임 연초위원) 한모니카(하숙단체협의회 운영위원) 한광(하숙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덕성여대 교수) 한성태(예수들이 상임대표) 한성민(노동연결 협동사무처장) 한달래(관 통일부 장관) 한철희(안동평화와통일유어는사람들 사무처장) 한택(민주주의위원회사무소모임 부회장) 한홍구(평화대담군인회) 한재용(민주평화통일기념사업회 전 회장, 전주교정의학원사제단 고문) 해공(스님) 해인(스님) 해인(스님, 사)생애시정연구소 공동이사장) 현성훈(본부) 해(스님) 해봉(스님) 해성(스님) 홍기봉(예수평화연결위원회 센터장) 홍병배(참여연대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홍성원(예수들이 고문) 홍익(민주통합당 의원) 홍근리(스님)앤디로니아구리대학 교수) 황대철(한국교회원도농조합 창작사무장) 황상(신부) 황수영(전주방송지구 사무장) 황용복(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 여관에어제노동 사무총장) 황효정(한국민족애송인총연합 집행위원회)가나다순, 482명)

광복 67주년을 맞아 해내의 온겨레에 드리는 공동호소문

- 해내의 온 겨레의 힘을 모아 일본의 재침략동을 배격하며
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자-

오늘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치고 자주 독립의 새날을 실현한 영광스런 광복 67주년의 날이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시작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의 파수는 세기가 바뀔 오늘에도 지속되고 있고,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진 분단의 상처 역시 세기를 넘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침략전쟁과 식민통치로 인한 모든 범죄를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일본제국주의는 지난 세기 초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자행한 모든 범죄적 행위들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기는 커녕 오히려 침략역사와 온갖 죄과를 왜곡하거나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정당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간도대지권> 당시의 조선인 대학살 반성을 악재한 교과서들을 검정통과시킴으로써 일본의 침략전쟁과 만인문학 범죄행위를 은폐하려 하였다.

일본은 가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 없이는 그 누구와도 평화, 협력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일본 당국은 무엇보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전쟁과 식민지 범죄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 왜곡을 중단하고, 전쟁과 식민 범죄의 진실과 반성을 기술했던 교과서로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 당국은 재일동포에 대한 온갖 차별행위와 민족학살 책임을 당장 중지하고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존권, 민족교육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한반도 세침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실무정책으로 공식화한 <외교실적>과 <방위백서>를 발표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세침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한일군사협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대결기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의 영토주권을 또다시 침략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공공연히 추진하는 것은 그들의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우리 민족의 영토인 독도를 불법적역화 하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략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독도영유권 주장을 낱장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은 평화헌법 수정과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기도 등 한반도를 동북아의 대결장으로 만들려는 모든 기도를 극구 중단해야 한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기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으로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고 화해와 단합의 새 시대가 개척되었지만, 대결정책이 공공연히 추진된 지난 4년 동안 대외정책은 남변했고, 평화와 통일의 길은 다시 하나를 높은 장벽으로 막히기 시작하였다. 이제: 남북 사이의 대화는 물론 민간외교 교류와 협력조차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침착한 군사대결의 기운이 이 땅을 무겁게 뒤덮고 있다.

오늘 한반도의 무거운 현실은 당백히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부정하고 민족의 대결을 조장한 결과이다. 그러나 그 어떤 난관과 장애도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가는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을 결코 막을 수 없다. 대결과 전쟁위험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모든 열의는 남북공동선언의 존중과 이행에 있다.

해내외의 온 거래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전쟁의 불안이 없고 통일의 환희와 격성으로 가득한 새2의 6.15시대를 개척해나가기!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손을 맞잡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지평을 더욱 활차게 열어나가기!

2012년 8월 1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10.4선언 5주년을 맞아 온 겨레에 드리는 6.15민족공동위원회의 공동호소문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10.4선언 발표 5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나라의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을 위한 실천적 방도들이 명시되어 있는 10.4선언은 통일대권군의 길에서 이룩한 민족공동의 귀중한 결실이다.

10.4선언 채택으로 남북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평화로 실현하며 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대외가 형성되었다.

남북 사이에 10.4선언 이행을 위한 공동의 추진기구들이 구성되고 여러 차례의 접촉과 대화, 협의작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온 나라가 통일과 평화의 희망으로 들끓어 올랐고, 통일외 대권군은 새로운 건설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 남북공동선언의 소중한 결실들은 어디까지 사라지고 남북관계는 과거에 직화 있으며, 부분적인 대립, 대결로 양측국민의 엄청난 사태가 초성되었다.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겨레에게 묻고 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으로 통일의 기대와 희망 넘치던 이 광휘에 언제부터 군사대결과 전쟁의 검은 구름이 휘몰아쳤는가. 과연 어떻게 되어 6.15시대의 전진이 가로막히고 오늘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초래되었는가.

우리는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외 온 겨레에게 호소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키고 실천해나가자! 남북통일 이행을 나라의 평화와 있으며 통일번영의 빛나는 미래가 있다. 왜대외의 온 겨레가 남북선언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뜻을 모으고 힘과 지혜를 합쳐나가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더 이상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결연적 호소문으로 외제 하자!

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다방면적이며 적극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해나가자!

남북선언들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온 겨레와 시대의 요구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온갖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인간의 정당한 교류를 가로막는 각종 장벽을 제거하고, 각계각층의 접촉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자!

평화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요구이다. 오늘날의 나라의 정세가 전쟁 직전의 극단에 이르게 된 것은 남북선언들이 무시되고, 대결, 대립을 추구해온 데 있다.

남북사이에 불신과 적대, 겨레의 안寧과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자!

이 땅에서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온 겨레와 함께 힘차게 싸워나가자!

남북선언 이행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데 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아래 세대의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자!

남과 북의 계승법, 부문법, 지역별 단체들 사이의 연대운동들 적극 벌여나가며, 6.15민족공동위원회에 역량을 더욱 쏟며 나가자!

오늘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단합된 힘으로 6.15의 흐름을 다시 이어가야 할 역사적 과제가 나서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그 누가 막을 수 있는가.

우리 모두의 뜨거운 열정과 단합된 힘을 남김없이 분출시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2012년 10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제1045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성명서

수요시위를 해온 지 20년, 오늘날 1045회째 시위를 열고 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험악한 폭음을 이어가며 고통 받고 있지만, 가해자인 그들은 과잉지원 연행을 일삼으며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모욕하고 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 분개하며 우리는 일본정부에게 더 이상 진실을 회면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고 강력히 외치는 바이다!

지난 15일 한국 정부의 대표가 UN 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진지 성숙한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한데 이어, 유엔과 전 회원국들이 희생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구제조치와 예방, 가해자 처벌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역사적 사건에 관한 정확한 교육을 통해 이러한 잔혹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변역사적인 교육방함에 우려를 표명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국내적, 국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가운데 정부가 세계무대에서 이와 같이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하여 여러 국가의 지지를 얻고자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도 한국정부가 ‘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집단의 목소리를 모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도록 권력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대표가 UN총회에서의 한국정부에 발언에 대해 위안부 여성에 대한 사죄를 표하면서도, “위안부피해여성의 권리구제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보건의 서비스 및 사죄금을 지급하였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과잉지원 행위에 분개하며, 위안부 문제는: 급격한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로서 일본정부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일본정부는: 치욕한 자기변명을 거두고 자신들의 자오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 실현에 있어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여성인권회복과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화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1.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진상을 진지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1.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국제법에 따라 배상하라!
1. 한국 정부는 역사를 바로잡고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되찾는 일에 적극 앞장서라!

2012. 10. 24

제1045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참가자 연명

대통령 선거 투표 D-30, 탈핵 후보에게 투표하기 운동 선포식 핵발전 시대를 끝내고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 30일을 남겨두고 있다.

핵발전을 끊고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가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불안하고 암울한 핵발전 시대를 계속 이어갈지를 판가름할 결정의 시간이 한 달 남은 것
이다.

전국 원전, 지면사회, 병원, 종교, 지역 76개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은 대통령 투표일 D-30인 오늘부터 “탈핵 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부는 원자로 행진에 빠져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핵분열용, 중공분열, 원소분열에 이르기까지 각종 비
리와 원전 고장 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지만 정부와 인권규제당국은 원전 불감증과 무능
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외부세력’에게 의존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현실에도 정
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핵에너지들은 ‘전력난’ 운운하며 국민들을 헐뜯고
있다.

후쿠시마 재앙이후 세계는 한두번이 탈핵의 길로 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원자로 행진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았듯이 핵발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접되어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최상위 가치를 약속한 대통령이 되려면 핵발전
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내놓아야 한다.

분위인 안희정 심상정 후보 등 야권의 후보들은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폐쇄 내용이 포
괄된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새누리당의 박
근혜 후보는 핵발전과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거관리
위원회의 원전 중립 질문에는 “조기부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얼마전 한 인터넷 언론사의 질문에는 “원전 추가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새로
운 원전 건설에는 신중”하겠다는 두리분진한 답변만을 해 왔다.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성까지 떨어지; 핵발전의 시대를 이제; 마감해야 한다. 추락하; 핵산업에 우리의 삶과 미래를 재단 할수 없다. 방사능 세양과 핵폐기물을 양산하; 위험한 에너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12월 19일 대선은 핵발전 의존 시대 를 폐기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시대로 나아가;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있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대선 부표일까지 인종차별 복기 등 다양한 관 들을 통해 '탈핵후보에게 투표하겠습니다' 캠페인 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 다.

- 우리의 요구 -

1. 수명다한 노후원전 고리 1호기, 원전 1호기 폐쇄하라
1. 삼두영디 신간 핵발전소 부지 직결고지 폐지화하라
1. 건설 계획 중인 핵발전소 중단하고 원전 확대 정책 철회하라
1. 지역주민 희생시키는 밀양 호프위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하라
1.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라
1.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안전규제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전면 재편하라
1. 원본선 방사능오염저축 수입 중단하고 직종과 생활방사능 기준치를 강화하라

2012. 11. 1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행복,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유지 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평 사당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원전저지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연구공동체, 두 리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연문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 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분교환경연대, 사회정의연대, 삼척핵발전소 (핵단지)유지대책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을공동, 생태지평, 수도권생태유아공 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년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활, 아이쿱소비자운동연합회, 에 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예코포드, 예코생활, 여성민주회생협연

합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해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해발전소유지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해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회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대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차일드세이프, 참교육학부모회, 꿈어연대, 원도교한울연대, 전주교장조보진연대, 순천교육연대, 평화물만드는여성회, 하자직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함천평화의길, 해발전소만대경남시민행동, 해없는사회를위한한국기독교연대, 해없는세상, 해없는세상을위한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 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평화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평화여성회의 회원이 되시면,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관심분야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서 ☺

기본 사항	이름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민번호		이동전화	
연락처	집 주소			
	집 전화	(지역번호)	우편물 받을 곳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직장주소	(우편번호)		
	직 장 명		소 속	
	전자메일		직장전화	
회비 (CMS 자동이체)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이 체 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회비	일반회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금	원/월)	
	학생회원 (초중고 생)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금	원/월)	
		<input type="checkbox"/> 연1만원 <input type="checkbox"/> 연2만원 <input type="checkbox"/> 연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금	원/년)	
관심 분야	<input type="checkbox"/> 경제대중 <input type="checkbox"/> 통일과제 <input type="checkbox"/> 국방과제 <input type="checkbox"/> 남북교류 <input type="checkbox"/> 강동세권 <input type="checkbox"/> 전쟁반대 <input type="checkbox"/> 평화교육 <input type="checkbox"/> 평화문화 <input type="checkbox"/> 여성운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가입 동기				
가입 일자	20 년 월 일			

연 락 처 : 150-037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여성이해센터 401호
전화 02-929-4846 전송 02-929-4843

이 메 일 : wmp@peacewomen.or.kr / www.peacewomen.or.kr

후원계좌 : [하나은행] 398-810005-03104 예금주 [사]평화통일하는여성회
[국민은행] 347-01-0018-351 예금주 [사]평화통일하는여성회

2013년 제17차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기총회
발행일: 2013년 1월 24일
발행인: 여혜숙, 김정수
발행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편집: 최민정
인쇄: 장무 지원단

